

자기학습용

## 구간 등 「구지가」

1

### 작품 분석

- ① 거북아, 거북아,
- ② 머리를 내어라.
- 내어 놓지 않<sup>③</sup>으면,
- ④ 구워서 먹으리.

① 거북아

- ⇒ 거북 : 신령스런 존재, 주술의 대상, 인간의 집단적 의지에 하는 존재
- ⇒ 아 : 법, 대상에게 을 건네는 형식

② 머리를 내어라

- ⇒ 머리 : 생명, 생명의 근원, 우두머리, 왕
- ⇒ 머리를 내어라 : 주술의 핵심 내용
  - ▷  (직설적) - 왕의  기원(요구)

③ 으면 가정법

④ 구워서 먹으리

- ⇒ 불(의 수단, 의 수단)
- ⇒ 거북을 불로서 시키겠다는 의지
  - ▷ 위협(직설적) - 소망 성취를 위한  (의지)

자기학습용

# 김천택 「백구야 말 물어보자」

## 1

## 작품 분석

백구(白鷗) | 야 말 ①무러보자 놀라지 ②마라스라  
 ③명구승지(名區勝地)를 어디어디 ④브렛드니  
 ⑤날드려 자세(仔細)히 날러든 네와 게 가 놀리라

- ① 무러보자  
 ⇨ 물어보자 :  적기
- ② 마라스라  
 ⇨ 말려무나
- ③ 명구승지(名區勝地)  
 ⇨ 명승지
- ④ 브렛드니  
 ⇨ 날러 있더냐, 벌였더냐
- ⑤ 날드려 자세(仔細)히 날러든 네와 게 가 놀리라  
 ⇨ 날드려 : 나에게, 날더러  
 ⇨ 날러든 : 일러주면 -  법칙 적용 X  
 ⇨ 네 : 백구 -  법  
 ⇨ 게 : 명구승지, 명승지  
 ⇨ 놀리라 :

자기학습용

## 독오 「모죽지랑가」

### 1

### 작품 분석

- ①간 봄 그리매
- ②모든 것이 우러 시름.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 ③얼굴이 주름살 지는구나
- ④눈 돌칠 사이에
- ⑤만나보게 되오리
- ⑥낭(郎)이여 그릴 마음이 녀올 길
- ⑦다북쑥 마을에서 잘 밤이 있으리

- ① 간 봄
  - ⇒ 지나간 봄
  - ⇒ 죽지랑과 함께 했던 때 =  있던 때
- ② 모든 것이 우러 시름
  - ⇒ 모든 것이 울면서 시름한다
  - ⇒ 죽지랑과 함께 했던 시절을 함
- ③ 얼굴이 주름살 지는구나
  - ⇒ 에 대한 안타까움 : 인생무상
  - ⇒ 지난 시절(  )의 모습 회상
- ④ 눈 돌칠 사이에
  - ⇒ 잠깐만 이라도, 눈감짝할 사이에
- ⑤ 만나보게 되오리
  - ⇒ 의 소망
- ⑥ 낭(郎)이여 그릴 마음이 녀올 길
  - ⇒ 낭 : 죽지랑
  - ⇒ 그릴 : 하는
  - ⇒ 녀올 길 : 가는 길
  - ⇒ 낭이야 그릴 마음이 녀올 길 :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  
에 가는 길
- ⑦ 다북쑥 마을에서 잘 밤이 있으리
  - ⇒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무덤)이 있을 것이다.
  - ⇒ 재회의

자기학습용

# 박인로 「누항사」

## 1 작품 분석

- ① 어리고 우활(迂闊) 홀산 이 너 우히 더니 업다.
- ②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날기 부쳐 두고
- ③ 누항(陋巷) 킵문 곳의 ④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 ⑤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셉히 되야,
- ⑥ 셔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 ⑦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식일 뿐이로다.
- ⑧ 생애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옴길년가.
- ⑨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 ⑩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 조차 저어(齟齬) 한다.
- ⑪ 그올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⑫ 유여(有餘)하며,
- ⑬ 주머니 뷘엇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라.
- ⑭ 빈곤(貧困)흔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  
라.

▶ 서사 :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 일념으로 살려는 심정

- ① 어리고 우활(迂闊) 홀산 이 너 우히 더니 업다.  
⇒ 우히 : 위의  
⇒ 더니 : 더한 사람  
⇒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로는 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 ②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날기 부쳐 두고  
⇒ 길흉화복 : 모든 운수  
⇒ 하날기 : 하늘에다  
⇒ 모든 운수를 하늘에다 맡겨 두고 : [ ] 론적 태도
- ③ 누항(陋巷) [ ] 한
- ④ 초막(草幕) 초가
- ⑤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셉히 되야,  
⇒ 풍조우석 : 고르지 못한 날씨  
⇒ 석은 : 썩은  
⇒ 답히 : 짙이  
⇒ 셉히 : 떨감이  
⇒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짙이 떨감이 되어
- ⑥ 셔 흙 밥 닷 흙 죽(粥)  
⇒ [ ] 한 음식
- ⑦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식일 뿐이로다.  
⇒ 덜 데운 송농으로 고픈 배를 [ ] 뿐이로다.
- ⑧ 생애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옴길년가.

- ⇒ 살림살이가 이렇게 [ ] 하다고 한들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 살림살이가 구차해도 대장부의 뜻을 바꾸지 [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 법
- ⑨ 안빈일념(安貧一念)  
⇒ [ ]
- ⑩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 조차 저어(齟齬) 한다.  
⇒ 수의 : 옳은 일을 좇음  
⇒ 저어하다 : 뜻대로 되지 않음  
⇒ 옳은 일을 좇아 살려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 ⑪ 그올  
⇒ 가을
- ⑫ 유여(有餘) 하며  
⇒ 여유가 있겠으며
- ⑬ 주머니 뷘엇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라.  
⇒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겨 있으랴  
▷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에 술병에 술이 담겨 있지 않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 법
- ⑭ 빈곤(貧困)흔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랴.  
⇒ [ ] 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로다.

- ① 기한(飢寒)이 절신(切身) 한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는가.
- ② 분의 망신(奮義忘身)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 ③ 우탁 우량(于橐于囊)의 줌움이 모아 녀코,
- ④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 ⑤ 이시섭혈(履尸涉血)하야 몇 백전(百戰)을 지너연고.  
▶ 본사 1 : 충성심으로 백전 고투했던 왜란의 회상

- ① 기한(飢寒)이 절신(切身) 한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는가.  
⇒ 기한 : 배고픔과 추위  
⇒ 절신하다 : 몸을 괴롭힌다한들  
⇒ 일단심 : 일편단심 - [ ] 에 대한 충성심  
⇒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 한들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혀도 [ ] 을 잊지 않을 것이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 법
- ② 분의 망신(奮義忘身)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 분의망신 :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을 돌보지 않음  
⇒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을 돌보지 않고 [ ] 야 말겠노라  
고 마음 먹어
- ③ 우탁 우량(于橐于囊)의 줌움이 모아 녀코,

- ⇒ 전대와 망태에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 ④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서
- ⇒ 감사심 :  말리라는 마음
- ⇒ 전란 5년 동안에 죽고 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 ⑤ 이시섭혈(履尸涉血)
- ⇒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

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  
 란.  
 ②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겼거든,  
 ③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너 사이 칭각허리.  
 ④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논고.  
 ⑤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드.  
 ▶ 본사 2 : 전란 후 돌아와 몸소 농사를 지음

- 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랴
- ⇒ 일신 : (내) 한 몸
- ⇒ 여가 : 쉴 틈, 겨를
- ⇒ 한 몸이 겨를이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 ▶ 내 한 몸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서 집안을 돌볼 수가 없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②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겼거든,
- ⇒ 일노장수 : 늙은 종
- ⇒ 노주분 : 하인과 주인의 관계에 맞는 분수
- ⇒ 늙은 종은 하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는데
- ③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너 사이 칭각허리.
- ⇒ 고여춘급 : 봄이 왔다고 일러줌
- ⇒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 ▶ (늙은 종이) 나에게 봄이 왔으니 (농사일에 대해) 알려 줄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④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논고.
- ⇒ 경당문노 : 밭 가는 일을 에게 물음
- ⇒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한다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 ▶ 물을 사람이 없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⑤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드.
- ⇒ 궁경가색 : 가난한 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
- ⇒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에 맞는 줄을 알겠도다.

① 신야경수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타 ② 허리 업것  
 마는,

③ 아므려 갈고전들 어너 쇼로 갈로손고.  
 ④ 한기태심(旱既太甚) 허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⑤ 서주(西疇) 늙흔 논애 잠깐 긴 널비에  
 ⑥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칸 덕혀두고,  
 ⑦ 쇼 흥 격 듀마 흥고 엄섬이 흥논 말삼 친절(親切)호  
라 너긴 집의  
 ⑧ 돌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⑨ 구디 다든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서  
 ⑩ 큰 기춤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흥논 후(後)에,  
 ⑪ 어와 괴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너옴노라.  
 ▶ 본사 3 : 농사를 지으려 하나 농우가 없어, 농우를 빌리러 감

- ① 신야경수와 농상경옹(隴上耕翁)
- ⇒ 들에서 밭 갈던 사람
- ② 허리
- ⇒ 할 이(사람)
- ③ 아므려 갈고전들 어너 쇼로 갈로손고.
- ⇒ 아무리 갈려고 한들 어느 로 갈겠는가
- ▶ 밭을 갈아야 하는데 밭을 갈만한 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④ 한기태심(旱既太甚) 허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 ⇒ 한기태심 : 이 몹시 심하여
- ⇒ 이 몹시 심하여 (철이) 다 늦은 때에
- ⑤ 서주(西疇) 늙흔 논애 잠깐 긴 널비에
- ⇒ 서주 : 서쪽 두둑
- ⇒ 늙흔 : 늙은
- ⇒ 논애 : 논에
- ⇒ 널비 : 지나가는 비
- ⇒ 서쪽 두둑 높은 논에 잠깐 간 지나가는 비에
- ⑥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칸 덕혀두고,
- ⇒ 도상 무원수 : 길 위에 흐르는 물
- ⇒ 길 위에 흐르는 물을 반쯤 대어 놓고는
- ⑦ 쇼 흥 격 듀마 흥고 엄섬이 흥논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  
긴 집의
- ⇒ 쇼 한 번 빌려 주마 하고 하게 하는 말을
- 하다고 여긴(생각한) 집에
- ⇒ 쇼 주인이 쇼를 빌려 주겠다고 화자에게 말을 했으나 하게 말을 했으므로 진심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⑧ 돌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 ⇒ 황혼 : 저녁
- ⇒ 허위허위 : 허우적허우적
- ⇒ 달이 없는 저녁에 허우적허우적 달려가서
- ⑨ 구디 다든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서
- ⇒ 구디 :
- ⇒ 밧긔 :

- ⇒ 어둑히 : 우두커니
- ⇒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 ⑩ 큰 기쁨 아함을 양구(良久)토록
  - ⇒ 큰 기쁨 아함 : 큰 기침으로 ' [ ] '하는 소리
  - ⇒ 양구토록 : 오래도록
  - ⇒ ' [ ] '하는 인기척을 꽤 오래도록 한 후에
- ⑪ 어와 괴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너옴노라.
  - ⇒ '어, 거기 누구신가?(말한 이 : [ ] )' (문기에)
  - ⇒ '염치 없는 저울시다.(말한 이 : [ ] )'

① 초경(初更)도 거윰되 괴 엇지 와 거신고.  
 ② 연년(年年)에 이러히기 구차(苟且)흔 줄 알건마는  
 ③ 소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④ 공히나나 갑시나 주엄 죽도 하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름이,  
 ⑤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너고,  
 ⑥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히거든,  
 ⑦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⑧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히야거든,  
 ⑨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히니 사설이 어려와라.  
 ⑩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 흘고.  
 ⑪ 헌 먼덕 수기 스고 축 업슨 짚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⑫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기 즈칠 썬이로다.  
 ▶ 본사 4 : 농우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옴

- ① 초경(初更)도 거윰되 괴 엇지 와 거신고
  - ⇒ 초경 : 해질녘부터 밤 10시 사이
  - ⇒ 거윰되 : 거의 지났는데
  - ⇒ 엇지 : 어찌
  - ⇒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무슨 일로 와 계신가? (말한 이 : [ ] )'
- ② 연년(年年)
  - ⇒ 해마다, 매년
- ③ 소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 ⇒ 업슨 : 없는
  - ⇒ 궁가 : [ ]한 집
  - ⇒ 혜염 : 헤다(헤다) - [ ]하다, [ ]하다
  - ▶ 험 : [ ], [ ]
  - ⇒ 소 없는 [ ]한 집에서 [ ]이 많아 왓소이다.  
(말한 이 : [ ] )
- ④ 공히나나 갑시나
  - ⇒ [ ]로 주거나 [ ]을 치거나
- ⑤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너고
  - ⇒ 목 붉은 수기치 : 목이 붉은 수평

- ⇒ 옥지읍 : 구슬같은 기름에
- ⇒ 목이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어 내고
- ⑥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히거든
  - ⇒ 간 이근 : 갓 익은
  - ⇒ 삼해주 : 좋은 술을
  - ⇒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 ⑦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 ⇒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갚지 않겠는가?
    - ▶ 은혜를 갚아야 한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  
법
- ⑧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히야거든
  - ⇒ 큰 언약 : 크게 약속, 굳게 약속
  - ⇒ 내일 소를 빌려 주마 하고 굳게 약속을 하였기에
- ⑨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히니 사설이 어려와라.
  - ⇒ 실약이 미편하니 :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 않으니
  - ⇒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가 어렵구로  
(말한 이 : [ ] )
- ⑩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 흘고
  - ⇒ 실위 : 정말로
  - ⇒ 혈마 : 설마
  - ⇒ 정말로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말한 이 : [ ] )
- ⑪ 헌 먼덕 수기 스고 축 업슨 짚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 ⇒ 먼덕 : 모자
  - ⇒ 수기 : 숙이어(숙여)
  - ⇒ 축 : 축
  - ⇒ 설피설피 : 맥없이
  - ⇒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  
나오니
- ⑫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기 즈칠 썬이로다
  - ⇒ 저근 : 적은
  - ⇒ 형용 : (내) 모습
  - ⇒ 기 : 개
  - ⇒ 즈칠 : 짓을
  - ⇒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짓을 뿐이로구나 : [ ]함

①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서 누어시랴.  
 ②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식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③ 대승(戴勝)은 이너 한(恨)을 도우는다.  
 ④ 종조(終朝) 추창(惆悵)히야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⑥ 아까운 저 소뉘는 벗보님도 도호세고.  
 가시 영권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려마는,  
 ⑦ 허당 반벽(虛堂半壁)애 슬딤업시 걸려고야.  
 ⑧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 본사 5 : 집에 돌아와 야박한 세태를 한탄하며 춘경을 포기함

- ①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서 누어시라
  - ⇒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 ⇒ 잠이 와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다 : 이유 - [ ]를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것이 걱정되어서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 ②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식배를 기다리니,
  - ⇒ 북창 : 북쪽 창문
  - ⇒ 비겨 : 기대어
  - ⇒ 식배 : 새벽
  - ⇒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 ③ 대승(戴勝) 오디새
- ④ 종조(終朝) 추창(惆悵)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다
- ⑤ 세정(世情)
  - ⇒ 세정 : 세상 물정
  - ⇒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 이유 - 소를 빌리기 위해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였어야 한다는 [ ]을 몰랐기 때문에 [ ]를 빌리지 못한 것을 깨달음
- ⑥ 아까운 저 소뉘는 벵보님도 뉘홀세고
  - ⇒ 소뉘 : 쟁기
  - ⇒ 벵보님 : 날
  - ⇒ 아까운 저 쟁기는 벵보임도 좋구나.
- ⑦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뉘업시 걸려고야.
  - ⇒ 허당 반벽 : 집 벽 한가운데
  - ⇒ 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표현
    - ▷ 유배지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좋은 [ ](가시 엉긴 묵은 발도 쉽게 갈 수 있는 쟁기의 날)을 발휘하지 못하고 [ ](허당 반벽)에 쳐박혀 있음
- ⑧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 ⇒ 춘경 : 봄갈이
  - ⇒ 거의거다 : 거의 다 지남

- ① 강호(江湖) 혼 쉼을 꾸언지도 오러러니
  - ⇒ 강호 : [ ]
  - ⇒ 혼 : [ ]
  - ⇒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큰 꿈을 꾸 지도 오래더니
- ②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져셔다
  - ⇒ 구복이 위루하야 : 먹고 사는 것이 누(문제)가 되어
  - ⇒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 (슬프게도) 다 잊었도다. - [ ]에서 벗삼아 살겠다는 큰 꿈을 잊었다.
- ③ 첩피기옥(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 ⇒ 첩피기옥 : 냇가를 바라보니
  - ⇒ 녹죽 : 푸른 대나무
  - ⇒ 하도 할샤 : 하다 - [ ], [ ]
    - ▷ 많기도 많구나
  - ⇒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 ④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딤 하나 빌려스라
  - ⇒ 유비군자 : 교양 있는 선비
  - ⇒ 낙딤 : 낚싯대
  - ⇒ 빌려스라 : 빌려 주오
  - ⇒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 주오
- ⑤ 노화(蘆花)
  - ⇒ 갈대꽃
- ⑥ 넘치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 ⇒ 넘치 : 임자(주인)
  - ⇒ 풍월강산 : [ ]
  - ⇒ 임자(주인)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근심 없이) 늙으리라.
- ⑦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 ⇒ 백구 : 갈매기
  - ⇒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하랴?
- ⑧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 ⇒ 다토리 : 다들 이(人)
  - ⇒ 업슬손 : 없는 것은
  - ⇒ 너기로라 : 생각하노라
  - ⇒ 다들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생각하노라 : 속세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①강호(江湖) 혼 쉼을 꾸언지도 오러러니,
- ②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져셔다.
- ③첩피기옥(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 ④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딤 하나 빌려스라.
- ⑤노화(蘆花) 김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 ⑥넘치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 ⑦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 ⑧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 결사 1 : 자연을 벗 삼으면서 절로 늙기를 소망함

- ①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②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령 뉘논를 다 ③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경,
- ④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 ⑤넉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 ⑥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 ⑦인간(人間) 어넉 일이 명(命) 바긔 삼겨시리.
- ⑧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넉 생애(生涯) 이러호디 ⑩설은 뜻은 업노왜라.

①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흥 뜻이 ⑫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⑬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흥리 님 이시리.  
 ⑭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덕로 살렸노라.

▶ 결사 2 : 빈이 무원하지만 충효와 화형제·신봉우에 힘씀

- ① 무상(無狀)한  
 ⇒ 보잘 것 없는
- ② 지취(志趣)  
 ⇒ 뜻과 취향
- ③ 무겨 더덕  
 ⇒ 묵혀 던져
- ④ 남의 집 남의 거스 전혀 부러 말렸노라  
 ⇒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노  
 라 : 양반으로서의  있는 삶을 유지하려 함
- ⑤ 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 나의 빈천을 싫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 나의  
 빈천을 싫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지 않겠다.
- ⑥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가지 않겠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⑦ 인간(人間) 어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밖에 생겼겠느냐?  
 ▷ 모든 일은  과 연관이 있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론적 가치관
- ⑧ 빈이무원(貧而無怨)  
 ⇒ 가난하면서도  하지 않음
- ⑩ 설운  
 ⇒ 서러운
- ⑪ 단사표음(簞食瓢飲)  
 ⇒ 한 사발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의  운 생활
- ⑫ 온포(溫飽)  
 ⇒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것
- ⑬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흥리 님 이시리.  
 ⇒ 화형제 : 형제간에 화목하고  
 ⇒ 신봉우 :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  
 ⇒ 외다 : 그르다(틀리다)  
 ⇒ 그르다 할 이가 없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⑭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덕로 살렸노라.  
 ⇒ 삼기다 :  다,  다  
 ⇒ 그 밖의 일이야 타고난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자기학습용

# 박인로 「선상탄」

## 1

### 작품 분석

- ① 늙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내실새
- ②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나려오니
- ③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 ④ 일장검(一長劍) 비기 차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 ⑤ 여기진목(勵氣瞋目)하야 대마도(對馬島)을 구버보니
- ⑥ 바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싸혀 잇고,
- ⑦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한빛칠쇠.

▶ 진동영으로 내려와 병선에 오름

- ① 늙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내실새
  - ⇒ 늙고 병든 몸 : 화자 자신( )한 표현
  - ⇒ 주사 : 해군 통주사
- ②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나려오니
  - ⇒ 을사 삼하 : 배경, 선조 3년
  - ⇒ 진동영 : 부산
- ③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 ⇒ 관방중지 : 변방의 중요한 땅
  - ⇒ 변방의 중요한 땅에 병이 깊다고 앉아 있을 수 없다
    - ▷ 나라와 임금에 대한 심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④ 일장검(一長劍) 비기 차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 ⇒ 비기 : )듬히
  - ⇒ 병선 : 군함
  - ⇒ 구테 : 감히
- ⑤ 여기진목(勵氣瞋目)하야 대마도(對馬島)을 구버보니
  - ⇒ 여기진목 : 기운을 내고 눈을 부릅뜨고
  - ⇒ 대마도를 구버보니 : 왜적에 대한 )심
- ⑥ 바람 조친 황운(黃雲)
  - ⇒ 바람 조친 황운 : 바람 따라 일어나는 누런 구름, )의 기운
- ⑦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한빛칠쇠
  - ⇒ 창파 : 푸른 물결은, 험한 파도
  - ⇒ 아득하고 험한 파도는 긴 하늘과 같은 빛(색깔)이구나.

①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하고,

- ② 어리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轅氏)를 애다노라.
- 대양(大洋)이 ③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 진실로 배 아니면 ④ 풍파 만리(風波萬里) 밧기,
- ⑤ 어내 사이(四夷) 옛볼넝고
- 무삼 일 하려 하야 ⑥ 배 못기를 비롯하고
- ⑦ 만세천추(萬世千秋)에 가업산 큰 폐(弊) 되야,
- ⑧ 보천지하(普天地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나다.

▶ 배를 처음 만든 현원을 원망함

- ①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하고,
  - ⇒ 고금을 사억하고 :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고
  - ⇒ 배 위를 걸어다니며 : 옛날과 현재를 생각하고
- ② 어리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轅氏)를 애다노라.
  - ⇒ 어리미친 회포 : 어리석고 미친듯한 생각
  - ⇒ 현원씨 : )를 처음 만든 이
  - ⇒ 애다노라 : )하노라
- ③ 망망(茫茫)하야
  - ⇒ 넓고 아득하여
- ④ 풍파 만리(風波萬里) 밧기,
  - ⇒ 풍파 만리 : 바람과 파도가 많은
  - ⇒ 밧기 : 밧의 - )의
- ⑤ 어내 사이(四夷) 옛볼넝고
  - ⇒ 사이 : 오랑캐들, 왜적
  - ⇒ 어느 오랑캐도 (조선을) 옛볼 수 없다
    - ▷ 배를 만든 현원씨를 )하는 이유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⑥ 배 못기
  - ⇒ 배 만들기
- ⑦ 만세천추(萬世千秋)에 가업산 큰 폐(弊) 되야
  - ⇒ 만세천추 : 오랜 세월
  - ⇒ 가업산 : )없는
  - ⇒ 폐 : 폐단
- ⑧ 보천지하(普天地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나다
  - ⇒ 보천지하 : 온 천지에
  - ⇒ 만민원 : )의 근심
  - ⇒ 온 천지에 만 백성의 근심을 기르는가

어즈버 깨다라니 ①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배 비록 잇다 하나 ②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③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빈 배 절로 나올넝가  
 뉘 말을 미더 듯고,  
 ④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대도록 드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⑤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⑥ 통분(痛憤)한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마나 어디 내어  
 ⑦만리 장성(萬里長城) 높히 싸코 몇 만년을 사도면고  
 ⑧남대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한 줄 모라로다.

▶ 왜국을 만든 진시황을 탓함

- ① 진시황의 타시로다 이유 : [ ]을 만들었기 때문
- ②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 왜 : 일본  
 ⇨ 삼기던들 : 삼기다 - [ ]다, [ ]다
- ③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빈 배 절로 나올넉가  
 ⇨ 대마도로 : 대마도에서  
 ⇨ 일본 대마도에서 빈 배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 진시황을 탓한 이유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  
 법
- ④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대도록 드러다가  
 ⇨ 동남동녀 : 소년 소녀들  
 ⇨ 그대도록 : 그토록  
 ⇨ 드러다가 : 들여다가
- ⑤ 난당적(難當賊)  
 ⇨ 감당하기 어려운 적, [ ]적
- ⑥ 통분(痛憤)한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  
 ⇨ 통분한 수욕 : 원통하고 분한 부끄럽고 욕됨  
 ⇨ 화하 : 중국  
 ⇨ 밋나다 : 미친다
- ⑦ 만리 장성(萬里長城) 높히 싸코 몇 만년(萬年)을 사도면고  
 ⇨ 사도면고 : 살았던가  
 ⇨ 만리 장성을 높이 쌓고 오래 살지 못했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 ⑧ 남대로  
 ⇨ 남들처럼

어즈버 생각하니 ①서불(徐弗) 등(等)이 이심(已甚)하다.

②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하난 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③수이나 도라오면,  
 ④주사(舟師)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 왜적을 만든 서불을 원망함

- ① 서불(徐弗) 등(等)이 이심(已甚)하다  
 ⇨ 서불 등 : 서불의 무리([ ]의 조상이 됨)  
 ⇨ 이심하다 : 더욱 심하다
- ② 인신(人臣)이  
 ⇨ 신하가
- ③ 수이  
 ⇨ 쉽게

- ④ 주사(舟師)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 주사 이 시림 : 나의 이 근심  
 ⇨ 삼길렀다 : 삼기다 - [ ]다, [ ]다

두어라, ①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하로소니  
 ②속결업산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③잠사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④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난 윈 줄도 모라로다.  
 ⑤장한(張翰) 강동(江東)애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⑥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 해활(天聽海闊)하다  
 어내 흥(興)이 절로 나며, ⑦삼공(三公)도 아니 밧골  
 ⑧제일강산(第一江山)애, 부평(浮萍)갓한 어부생애(漁父生涯)을

⑨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대 부쳐 단힐난고  
 ▶ 자연을 즐기는 수단으로서의 배

- ① 기왕불구(既往不咎) 지나간 일을 탓하지 않음이라
- ② 속결업산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 속결업산 시비 : 다른 사람을 [ ]하는 일  
 ⇨ 후리쳐 : 핑개쳐
- ③ 잠사각오(潛思覺悟)하니  
 ⇨ 깊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 ④ 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난 윈 줄도 모라로다  
 ⇨ 황제 작주거 : 흰원씨가 [ ]를 만든 것  
 ⇨ 윈 : 외다 - [ ]되다, [ ]다
- ⑤ 장한(張翰) 강동(江東)  
 ⇨ 가을 경치가 아름다운 곳
- ⑥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 해활(天聽海闊)하다  
 ⇨ 편주 : (작은)배  
 ⇨ 천청 해활 :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 ⑦ 삼공(三公)도 아니 밧골  
 ⇨ 삼공 : 높은 벼슬자리  
 ⇨ 밧골 : 바꿈
- ⑧ 제일강산(第一江山)애, 부평(浮萍)갓한 어부생애(漁父生涯)을  
 ⇨ 제일강산 : 경치 좋은 [ ]  
 ⇨ 부평갓한 : 개구리밥 같은  
 ⇨ 어부생애 : [ ]을 벗 삼아 사는 삶
- ⑨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대 부쳐 단힐난고  
 ⇨ 일엽주 : (작은)배  
 ⇨ 어대 부쳐 단힐난고 : 어떻게 불혀 다닐 수 있는가  
 ⇨ 배가 아니면 다닐 수 없다  
 ▷ 흰원씨를 원망했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한 이유 : 배는 [ ]을 즐길 수단이 되기 때문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① 일언 날 보견댄, 배 삼긴 제도(制度)야  
 ② 지묘(至妙)한 덧 하다마난, 엇디한 우리들은  
 ③ 나난닷한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타고,  
 ④ 임풍 영월(臨風詠月)호대 흥(興)이 전혀 업난게오  
 ⑤ 석일(昔日) 선중(舟中)에논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  
 니,  
 ⑥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논 대검장창(大劍長槍)뿐이로  
 다  
 한 가지 배언마는 가진 배 다르니,  
 ⑦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가지 못하도다.  
 ▶ 과거와 달리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배

- ① 일언 날 보견댄, 배 삼긴 제도(制度)야  
 ⇒ 일언 날 : 이런 일 - [ ]을 즐기는 일  
 ⇒ 삼긴 : 삼기다 - [ ]다, [ ]다
- ② 지묘(至妙)한 덧 하다마난, 엇디한 우리들은  
 ⇒ 지묘 : 지극히 묘한  
 ⇒ 엇디한 : 어찌한 - 어미한 - [ ]한
- ③ 나난닷한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타고  
 ⇒ 나난닷한 판옥선 : 나는 듯한 전함  
 ⇒ 빗기 : [ ]듬히
- ④ 임풍 영월(臨風詠月)호대 흥(興)이 전혀 업난게오  
 ⇒ 임풍영월 : 바람을 맡고 달을 읊지만  
 ⇒ 흥이 전혀 업난게오 : [ ]의 상황
- ⑤ 석일(昔日) 선중(舟中)에논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 석일 : 옛날  
 ⇒ 배반이 낭자터니 : [ ]이 어지럽터니
- ⑥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논 대검장창(大劍長槍)뿐이로다  
 ⇒ 대검장창 : 큰 칼과 긴 창, 무기  
 ⇒ 과거와 현재의 [ ]
- ⑦ 기간(其間) 우락(憂樂)  
 ⇒ 그동안의 걱정과 즐거움

①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② 상시(傷時) 노루(老淚)랄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나다.  
 ③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애 디라  
 만난,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하야 ④해추(海醜) 흥모(兇謀)애  
 ⑤만고수(萬古羞)를 안고 이셔,  
 백분(百分)에 한 가지도 못 시셔 바려거든,  
 ⑥이 몸이 무상(無狀)한달 신자(臣子) | 되야 이셔다가,  
 ⑦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뵈압고 늘거신달,  
 ⑧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내 각(刻)애 이즐넉고  
 ▶ 임진왜란의 치욕과 우국단심

- ①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 ⇒ 시시로 : 때때로
- ⇒ 북신 : 북극성, [ ] 계신곳
- ② 상시(傷時) 노루(老淚)랄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나다  
 ⇒ 상시 노루 : 시절을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  
 ⇒ 천일방 : 하늘 한 모퉁이  
 ⇒ 디이나다 : 떨어뜨린다
- ③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애 디라만난  
 ⇒ 오동방 : 우리나라  
 ⇒ 한당송애 디라만난 : 한, 당, 송나라에 뒤지겠느냐만은  
 - 우리 문화에 대한 [ ]심
- ④ 해추(海醜) 흥모(兇謀)  
 ⇒ 왜적들의 흉악한 꾀
- ⑤ 만고수(萬古羞)  
 ⇒ 오랜 세월 씻을 수 없는 치욕
- ⑥ 이 몸이 무상(無狀)한달 신자(臣子) | 되야 이셔다가  
 ⇒ 무상한달 : 변변치 못한 들  
 ⇒ 신자 | : 신하가
- ⑦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뵈압고 늘거신달  
 ⇒ 궁달이 길 : 임금과 신하의 길  
 ⇒ 뵈압고 : 모시고
- ⑧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내 각(刻)애 이즐넉고  
 ⇒ 우국단심 : 핵심어  
 ⇒ 어내 각에 : 어느 때에  
 ⇒ 우국 단심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①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하  
 다마는,  
 ②도고마난 이 몸이 병중(病中)애 드러시니,  
 ③설분 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④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좃  
 고,  
 발 업손 ⑤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하물며 이 몸은 ⑥수족(手足)이 가자 잇고  
 ⑦명맥(命脈)이 이어시니,  
 ⑧서절 구투(鼠竊拘偷)을 저그나 저흠소냐  
 ⑨비선(飛船)에 달려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月) ⑩상풍(霜風)애 낙엽(落葉)가치 헤치리  
 라.  
 ⑪칠중칠금(七縱七禽)을 우리들 못 할 것가  
 ▶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결의와 의지

- ①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하다마  
 는  
 ⇒ 강개 계운 장기 : 원통하고 분을 이기지 못한 [ ]한  
 기운

- ⇒ 노당익장하다 : 늙으면서 더욱 [ ]하다
- ② 도고마난
  - ⇒ 보잘 것 없는
- ③ 설분 신원(雪憤伸冤)
  - ⇒ 분함을 씻고 원한을 풀어버림
- ④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좃고,
  - ⇒ 사제갈 : 죽은 제갈 공명
  - ⇒ 생중달 : 살아 있는 중달
- ⑤ 손빈(孫臏)
  - ⇒ 손자, 손자 병법
- ⑥ 수족(手足)이 가자 잇고
  - ⇒ [ ]보다 나은 상황
- ⑦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 ⇒ 명맥 : 목숨
  - ⇒ 명맥이 이어시니 : [ ]보다 나은 상황
- ⑧ 서절 구투(鼠竊拘偷)을 저그나 저흠소나
  - ⇒ 서절구투 : 쥐, 개 같은 도둑, 왜적
  - ⇒ 저그나 저흠소나 : 조금이라도 두려워할소나
  - ⇒ 왜적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 ⑨ 비선(飛船)에 달려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 ⇒ 비선 : 빠른 배
  - ⇒ 선봉을 거치면 : 선봉을 몰아치면
- ⑩ 상풍(霜風)에 낙엽(落葉)가치
  - ⇒ 추풍 낙엽,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 ⑪ 칠중칠금(七縱七禽)
  - ⇒ 칠중칠금 : 제갈 공명이 남마왕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  
가 일곱 번 놓아준 일

①준피도이(蠢彼島夷)들아 수이 걸항(乞降) 하여사라.  
 ②항자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태 섬멸(殲滅)하라  
 ③오왕(吾王) 성덕(聖德)이 욕병생(欲并生) 하시니라.  
 ④태평 천하에 요순(堯舜) 군민(君民) 되야 이서,  
 ⑤일월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 하얏거든,  
 ⑥전선(戰船) 타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晚)하고  
 하고  
 ⑦추월춘풍(秋月春風)에 눕히 베고 누어 이서,  
 ⑧성대(聖代) 해불 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하노라.  
 ▶ 평화 공존과 태평성대의 의지

- ① 준피도이(蠢彼島夷)들아 수이 걸항(乞降) 하여사라
  - ⇒ 준피도이 : 구물거리는 섬나라 오랑캐, 왜적
  - ⇒ 걸항 하여사라 : [ ]하여 용서를 빌어라
- ② 항자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태 섬멸(殲滅)하라
  - ⇒ 항자불살 :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음
  - ⇒ 섬멸하라 : 모조리 죽이라

- ⇒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으니 너희가 (항복한다면) 굳이  
모조리 죽이지 않겠다
  - ▷ [ ]로운 공존의 희망, 의지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 ③ 오왕(吾王) 성덕(聖德)이 욕병생(欲并生) 하시니라.
  - ⇒ 오왕 성덕이 : 우리 왕의 성덕이
  - ⇒ 욕병생 하시니라 : 함께 살고자 하시니라
- ④ 태평 천하(太平天下)에 요순(堯舜) 군민(君民)
  - ⇒ 태평성대의 임금과 백성
- ⑤ 일월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 하얏거든,
  - ⇒ 일월광화 : 해와 달의 빛, [ ]의 성덕
  - ⇒ 조부조 하얏거든 : 아침에 아침이거늘(더 빛난다)
- ⑥ 전선(戰船) 타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晚)하고
  - ⇒ 전선 : 군함
  - ⇒ 어주 : 고깃배
  - ⇒ 창만하고 : 늦도록 노래하고
- ⑦ 추월춘풍(秋月春風)
  - ⇒ 가을 달 봄바람
- ⑧ 성대(聖代) 해불 양파(海不揚波)
  - ⇒ 성대 : 태평성대
  - ⇒ 해불양파 : 파도가 일지않음 - [ ]로움

자기학습용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 1

## 작품 분석

- ① 임은 물을 건너지 마오.
- ②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다가.
- ③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④ 임을 어찌할거나.

- ① 임은 물을 건너지 마오
  - ⇒ 임 : 시적대상, 백수광부
  - ⇒ 물 : (河) -
  - ⇒ 건너지 마오 : 버리지 마라 - 을 통한 만류
  - ⇒ 기 : 임을 만류()
- ②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다가
  - ⇒ 임 : 시적대상, 백수광부
  - ⇒ 그예 : 기어이, 부사
  - ⇒ 물 : (河) -  (의 갈림길)
  - ⇒ 승 : 임이 건넌()
- ③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 물 :
  - ⇒ 전 : 임의 죽음()
- ④ 임을 어찌할거나
  - ⇒ 어찌할거나 : 탄식과 , 애절한 감정의 고조
  - ⇒ 결 : 화자의 슬픔()

자기학습용

# 송순 「면앙정가」

## 1 작품 분석

- ① 무등산(无等山) 흔 활기 뫼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 ② 멀리 세쳐 와 제월봉(齊月峯)이 되어거늘
- ③ 무변대야(無邊大野)의 모습 짐작호노라
- ④ 닐곱 구빅 흙딤 움쳐 므득므득 버러는 듯.
- ⑤ 가운데 구빅는 굴기 든 늘근 놓이
- ⑥ 선즙을 곳 썩야 머리를 언쳐시니

▶ 서사1 : 제월봉의 위치와 형세

- ① 무등산(无等山) 흔 활기 뫼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 ⇒ 활기 : 즐기
  - ⇒ 동다히 : 으로
  - ⇒ 버더 이셔 : 뺨어 있어
- ② 멀리 세쳐 와 제월봉(齊月峯)이 되어거늘
  - ⇒ 세쳐와 : 떨어져 나와
  - ⇒ 제월봉 : 제일 높은 봉우리
- ③ 무변대야(無邊大野)의 모습 짐작호노라
  - ⇒ 무변대야 : 끝 없이 넓은 들판에
  - ⇒ 짐작호노라 : 짐작하노라고
  - ▷ 표현법 : 법
- ④ 닐곱 구빅 흙딤 움쳐 므득므득 버러는 듯
  - ⇒ 닐곱 구빅 : 일곱 구비가
  - ⇒ 흙딤 움쳐 므득므득 버러는 듯 : 함께 춤추려 무더기 무더기 벌여 있는 듯
  - ▷ 표현법 : 법
- ⑤ 가운데 구빅는 굴기 든 늘근 놓
  - ⇒ 가운데 구빅 : 제월봉
  - ⇒ 굴기 든 늘근 놓이 : 구멍에 든 늙은 용 - 의 비유
- ⑥ 선즙을 곳 썩야 머리를 언쳐시니
  - ⇒ 선즙 : 풋잠
  - ⇒ 머리를 언쳐시니 : 머리를 엮었는 듯하다
  - ▷ 표현법 : 법

- ① 너러바회 우히 松竹(송죽)을 헤허고
- ② 정자(亭子)를 언쳐시니
- ③ 구름 툰 청학(靑鶴)이 천 리(千里)를 가리라

④ 두 노래 버러는 듯.

▶ 서사2 : 면앙정의 모습

- ① 너러바회 우히 松竹(송죽)을 헤허고
  - ⇒ 너러바회 : 너럭바위
  - ⇒ 우히 : 에
  - ⇒ 헤허고 : 헤치고
- ② 정자(亭子)를 언쳐시니
  - ⇒ 정자 :
  - ⇒ 언쳐시니 : 지었으니
- ③ 구름 툰 청학(靑鶴)
  - ⇒ 구름 툰 청학 : 의 비유
- ④ 두 노래 버러는 듯
  - ⇒ 두 노래 : 두 날개 - 의 비유
  - ⇒ 버러는 듯 : 벌러는 듯
  - ▷ 표현법 : 법

- 옥천산(玉泉山) 용천산(龍泉山) ① 느린 물이 정자(亭子) 압 ② 너븐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 ③ 넙꺼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마나
- ④ 쌍룡(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
-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⑤ 빅앗바
- ⑥ 돋는 듯 색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 본사 1-1 : 시냇물의 모습

- ① 느린 느린
  - ⇒ 내리는, 흐르는
- ② 너븐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 ⇒ 너븐 : 넓은
  - ⇒ 들히 : 들에
  - ⇒ 울울히 : 끊임없이
  - ⇒ 퍼진드시 : 퍼진 듯이
  - ▷ 표현법 : 법 - 을 비유
- ③ 넙꺼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마나
  - ⇒ 넙꺼든 길지 말거나. (-마나 생략)푸르거든 희지 말거나 : 넓고도 고 푸르고도 다
- ④ 쌍룡(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
  - ⇒ 쌍룡 : 의 비유
  - ⇒ 긴 깃 : 긴 비단
  - ⇒ 치פת는 듯 : 펼쳤는 듯
  - ▷ 표현법 : 법 - 을 비유
- ⑤ 빅앗바 빅앗바
  - ⇒ 바빠서
- ⑥ 돋는 듯 색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 ⇒ 돋는 듯 색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 달는 듯 (는 듯) 따르는 듯 으로 흐르는 듯

▷ 표현법 : [ ]법 - [ ]을 비유

- ① 므조친 사정(沙汀)은 눈긏치 퍼젓거든
- ② 어즈로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 ③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 ④ 노화(盧花)를 스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노.

▶ 본사 1-2 : 면양정 주변의 풍경(근경 > 원경)  
- 물가의 기러기의 모습

- ①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긏치 퍼젓거든  
⇒ 므조친 : 물 따라  
⇒ 사정 : 모래 사장
- ② 어즈로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 어즈로운 : 어지러운  
⇒ 므스거슬 : 무엇을  
⇒ 어르노라 : 사랑하노라
- ③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 앉았다가 내렸다  
[ ]다가 [ ]졌다
- ④ 盧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노  
⇒ 노화 : 갈대꽃  
⇒ 우러곰 : 울면서  
⇒ 좃니는노 : 좃(좃/좃)다 - [ ]다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두르고 쇠즌 거슨 뉘힌가 ① 병풍(屏風)인가  
② 그림가 아닌가.  
③ 노픈듯 녹즌 듯 근눈 듯 닛는 듯  
④ 이츠러온 가운데 일흠 눈 양하야  
하늘도 ⑤ 젓티 아녀 웃독이 섯는 거시  
⑥ 추월산(秋月山) 머리 짓고  
용구산(龍龜山) 몽선산(夢仙山) 불대산(佛臺山) 어등산(魚登山)  
용진산(湧珍山) 금성산(錦城山)이 허공(虛空)에  
⑦ 버러거든  
遠近(원근) ⑧ 창애(瘡崖)의 머문 것도 하도 할샤.

▶ 본사 1-3 : 면양정 주변의 풍경(근경 > 원경)  
- 면양정 주변 산들의 모습

- ① 병풍인가  
⇒ [ ]이 아름다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음
- ② 그림가 아닌가  
⇒ 그림가 아닌가 : 그림인가 아닌가 - [ ]답다
- ③ 노픈듯 녹즌 듯 근눈 듯 닛는 듯  
⇒ 노픈듯 녹즌 듯 근눈 듯 닛는 듯 :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진 듯 이어진 듯 - 산의 [ ]한 모습
- ④ 이츠러온 가운데 일흠 눈 양하야

- ⇒ 이츠러온 : 어지러운
- ⇒ 일흠 눈 양하야 : 이른날 체하여 - [ ] 체하여
- ⑤ 젓티 아녀 웃독이  
⇒ 젓티 아녀 : 두려워하지 않고  
⇒ 웃독이 : 우뚝이
- ⑥ 추월산(秋月山) 머리 짓고  
⇒ 추월산(秋月山) 머리 짓고 : 추월산이 머리가 되고
- ⑦ 버러거든  
⇒ 펼쳐져 있는데
- ⑧ 창애(瘡崖)의 머문 것도 하도 할샤.  
⇒ 창애 : 높은 절벽에  
⇒ 하도 할샤 : 하다 - [ ], [ ]

- ① 흰구름 브흰 연하(煙霞) 프르니는 산람(山嵐)이라.
- ② 천암(千庵) 만학(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 ③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누리거니 ④ 장공(長空)의 썸나거니  
광야(廣野)로 거너거니
- ⑤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 ⑥ 사양(斜陽)과 섯거디어 세우(細雨)조차 썸리는다.

▶ 본사 2-1 : 사계절에 따른 면양정의 풍경  
- 면양정의 봄 경치 - 구름

- ① 흰구름 브흰 연하(煙霞) 프르니는 산람(山嵐)이라  
⇒ 브흰 : 뿌연  
⇒ 연하 : [ ]와 [ ]  
⇒ 산람 : 산 아지랑이
- ② 천암(千庵) 만학(萬壑)  
⇒ 천암 만학 : 수많은 [ ]와 골짜기
- ③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 나명성 들명성 : 나면서 들면서  
⇒ 일히도 구는지고 : [ ]도 부리는구나  
⇒ 주체 : [ ]
- ④ 장공(長空)  
⇒ 높은 하늘
- ⑤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 프르렀다가 붉었다가 열어졌다가 질여졌다
- ⑥ 사양(斜陽)과 섯거디어 세우(細雨)조차 썸리는다  
⇒ 사양 : [ ]  
⇒ 섯거디어 : 섯어디어 - 섯어디어 - [ ]  
⇒ 세우 : 가랑비

- ① 남여(藍輿)를 비야 트고  
솔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② 녹양(祿楊)의 우는 황앵(黃鶯) 교태(嬌態) 겨워 흐는 고야.

- ③ 나모 새 즈즈지어 수음(樹陰)이 얼린 적의
- ④ 백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어 퍼니
- ⑤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굿칠 줄 모르논가.

▶ 본사 2-2 : 사계절에 따른 면양정의 풍경  
- 면양정의 여름 경치

- ① 남여(藍輿)를 비야 타고  
⇒ 남여 : 가마, 화자의 [ ]을 알 수 있음  
⇒ 비야 : 재촉하여
- ② 녹양(祿楊)의 우는 황앵(黃鶯) 교태(嬌態) 겨워 흐는 고야  
⇒ 녹양 : 푸른 버들  
⇒ 황앵 : [ ]  
⇒ 겨워 : 못 이겨
- ③ 나모 새 즈즈지어 수음(樹陰)이 얼린 적의  
⇒ 새 : 사이  
⇒ 즈즈지어 : 우거져서  
⇒ 수음 : 나무 그늘  
⇒ 얼린 : 어우러진
- ④ 백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어 퍼니  
⇒ 백척 난간 : 높은 난간 - [ ]  
⇒ 조으름 내어 퍼니 : 낮잠을 자니
- ⑤ 수면(水面) 양풍(涼風)  
⇒ 수면 양풍 : 물위에서 부는 [ ]한 바람

- ① 존 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금수(錦繡)로다.
- ② 황운(黃雲)은 쏘 엇디 만경(萬頃)의 퍼겨 디오.
- ③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브니논다.

▶ 본사 2-3 : 사계절에 따른 면양정의 풍경  
- 면양정의 가을 경치

- ① 존 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금수(錦繡)로다  
⇒ 존 서리 : 된서리  
⇒ 싸딘 : 걸힌  
⇒ 금수 : [ ] - [ ]감
- ② 황운(黃雲)은 쏘 엇디 만경(萬頃)의 퍼겨 디오  
⇒ 황운 : 익은 [ ] - [ ]감  
⇒ 엇디 : 어찌 - 어찌 - [ ]  
⇒ 만경 : 넓은 들판  
⇒ 퍼겨 디오 : 퍼져 있고
- ③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브니논다  
⇒ 어적 : 어부의 [ ]소리  
⇒ 계워 : 못이겨  
⇒ 브니논다 : 불며 가는구나

-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① 익물커늘
- ② 조물(造物)리 현스 하야 빙설(氷雪)로 꾸며내니
- ③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 ④ 안저(眼底)의 버러세라.
- ⑤ 건곤(乾坤)도 가음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 본사 2-4 : 사계절에 따른 면양정의 풍경  
- 면양정의 겨울 경치

- ① 익물커늘  
⇒ 익물커늘 : [ ]에 묻혔거늘 - [ ]감
- ② 조물(造物)리 현스 하야 빙설(氷雪)로 꾸며내니  
⇒ 조물 : [ ] (=조물(주), 조화(옹))  
⇒ 현스 하야 : [ ]스러워서 (조물주가 자연을 만들어 내는 솜씨가 야단(굉장해서)스러워서
- ③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  
⇒ 경궁요대 :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궁  
⇒ 옥해은산 : 옥같은 바다 은같은 산  
⇒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궁과 옥같은 바다, 은같은 산이 : [ ] 덮인 아름다운 강산
- ④ 안저(眼底)의 버러세라  
⇒ 안저 : 눈 앞  
⇒ 버러세라 : 펼쳐졌구나
- ⑤ 건곤(乾坤)도 가음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 건곤 : 하늘과 땅([ ])  
⇒ 가음열사 : 풍성하구나  
⇒ 경이로다 : 좋은 경치로다

- ① 인간(人間)을 썩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 ②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 ③ 브롬도 혀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 ④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노.
- ⑤ 아츰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나.
- ⑥ 오늘리 부족(不足)커니 내일리라 유여(有餘)하라.  
이 뉘히 안자 보고 더 뉘히 거러 보니
- ⑦ 번로(煩勞)흔 므음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 ⑧ 실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히리아.  
다만 현 ⑨ 청려장(靑藜杖)이 다 므디여 가노되라.

▶ 결사 1-1 : 자연 속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자연 속에서 풍류 생활

- ① 인간(人間)을 썩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 인간 : 인간 세상, [ ]  
⇒ 겨를 : 여유  
⇒ 겨를 업다 : [ ]가 없다
- ②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 ⇒ 이것도 보려 하고 : 이것(자연)도 봐야 하고
- ⇒ 저것도 드르려코 : 저것(자연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 ③ **바람도 허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 ⇒ 허려 : 쇠려
- ⇒ 마즈려코 : 맞으려 하고
- ④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노**
- ⇒ 시비 : 문
- ⇒ 딘 곳츠란 : 떨어진 꽃
- ⇒ 인간을 떠나와도 여유가 없는 이유 : 자연을 보고 들어야 하며, 바람도 쇠고 달도 맞아야 하며 밤도 좁고 고기를 낚으며 사립문도 닫고 진 꽃도 쓸어야 하기 때문 - 을 즐겨야 하기 때문
- ⑤ **아침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홀소냐**
- ⇒ 낫브거니 : (시간이) 부족하거나
- ⇒ 나조히라 : 저녁이라
- ⇒ 슬홀소냐 : 싫을소냐
- ⇒ 아침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홀소냐
  - ▷ 아침에도 자연을 즐길 시간이 부족하므로 저녁에도 자연을 즐기는 것이 싫지 않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⑥ **오늘리 부족(不足)커니 내일리라 유여(有餘)하라**
- ⇒ 유여하라 : 가 있으라
- ⇒ 오늘리 부족(不足)커니 내일리라 유여(有餘)하라 : 오늘도 (자연을 즐기는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자연을 즐기는 시간이) 여유가 있겠느냐
  - ▷ 가 없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⑦ **번로(煩勞)흔 막음의 버릴 일이 아조 업다**
- ⇒ 번로 : 번거로운
- ⇒ 아조 : 전혀
- ⇒ 번로흔 막음의 버릴 일이 아조 없다 : (자연을 즐기느라) 번거로운 마음이지만 (자연을 즐기는 것은) 버릴 것이 전혀 없다
- ⑧ **실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
- ⇒ 길히 : 길이나 전하겠는가
- ⇒ 길 : 1) 에 오는 길 2) 아름다운 을 구경하는 길
- ⇒ 실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
  - ▷ 실 사이가 없으니 길도 전할 틈이 없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⑨ **청려장(靑藜杖)이 다 므디여 가노되라**
- ⇒ 청려장 : 명아쫓대로 만든 지팡이
- ⇒ 므디여 가노되라 : 무디어 갈 뿐이다
  - 이유 : 을 즐기러 열심히 다니기 때문

술이 닢어거니 ①벗지라 업슬소냐.

② **블너며 툃이며 허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③ **빅야거니**  
 ④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라.**  
 ⑤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⑥ **을프락 프람허락 노헤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넘고넘고 ⑦ **일월(日月)도 혼가하다.**  
 ⑧ **희황(羲皇) 모를러니 이적이야 괴로그야**  
 신선이 ⑨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그야.  
 ▶ 결사 1-2 : 자연 속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풍류 생활과 만족감

- ① **벗지라 업슬소냐**
- ⇒ 벗지라 : 벗이라고
- ⇒ 벗지라 업슬소냐 : 벗이 없겠는가
  - ▷ 벗이 있다 : 이 나의 벗이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② **블너며 툃이며 허이며 이아며**
- ⇒ (노래를)부르게 하며 (악기를)타게 하며 켜게 하며 (방울) 흔들며 - 하는 모습
- ③ **빅야거니**
- ⇒ 재촉하니
- ④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라**
- ⇒ 근심이 있을 것이며 시름이 붙어 있겠느냐
  - ▷ 근심도 없고 시름도 붙어 있지 않다 : 이유 - 속에서 즐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⑤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 ⇒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었다가 젖혔다가
- ⑥ **을프락 프람허락 노헤로 놀거니**
- ⇒ 을프락 : (시름) 옮기도 하고
- ⇒ 프람허락 :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 ⇒ 노헤로 : 마음 놓고(거리낌 없이)
- ⇒ 놀거니 : 에 겨워 거리낌 없이 가무하는 모습
- ⑦ **일월(日月)**
- ⇒
- ⑧ **희황(羲皇) 모를러니 이적이야 괴로그야**
- ⇒ 희황 : 복희 황제 -
- ⇒ 이적이야 : 이 때야
- ⇒ 괴로그야 : 그것()로구나
- ⑨ **엇더턴지**
- ⇒ 엇더턴지 : 어찌턴지 - 어떠턴지 - 어떻턴지 - 어떤지 몰랐더니

①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놀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②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오다.

③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 흘소냐.

- ▶ 결사 1-3 : 자연 속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자연 속 풍류와 호탕정회

- ①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 ⇒ 강산풍월 :
  - ⇒ 거느리고 : 거느리고
  - ▶ 표기 방식 : 적기
- ②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오다
  - ⇒ 악양루상 : 악양루에서 시를 지은
  - ⇒ 사라오다 : 살아오다 - 살아온다고 한들
- ③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 흘소냐
  - ⇒ 호탕정회 : 호탕한 마음(浩然之氣)
  - ⇒ 이에서 : 이보다
  - ⇒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 흘소냐
    - ▶ 호탕한 마음이야 이보다 더하겠는가
    - ▶ 호탕한 마음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 이태백의 호탕한 마음도 을 거느리고 사는 나보다 더할 수 없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이 몸이 ①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 결사 1-4 : 자연 속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임금의 은혜에 감사

- ①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 이렇 : 이렇게
  - ⇒ 굶도 : 지내는 것도 -  속에서 즐기며 지내는 것도
  - ⇒ 역군은이샷다 :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 ⇒ 강호가도( + )

자기학습용

# 송순 「십년을 경영하여」

## 1

## 작품 분석

십 년(十年)을 ①경영(經營)하여 ②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혼 간(間)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間) ③맛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④둘러 두고 보리라

① 경영(經營)하여

⇒ 하여

② 초려 삼간(草廬 三間)

⇒ 방이 세 칸인 초가 집 : 한 삶, ,

③ 맛져

⇒ 맡겨 : 법, 자연과 함께하는 의 경  
지

④ 둘러 두고

⇒ 처럼

자기학습용

### 안도환 「만언사」

#### 1

#### 작품 분석

어와 ①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인생 천지간에 그 ②아니 느껴온가.  
 평생을 다 살아도 ③다만지 백년이라.  
 하물며 백년이 ④반듯기 어려우니  
 ⑤백구지과극(白駒之過郤)이요 창해지일숙(滄海之一粟)이라.  
 ⑥역려건곤(逆旅乾坤)에 지나가는 손이로다.  
 빌어온 인생이 ⑦꿈의 몸 가지고서  
 남아의 하울 일을 ⑧역력히 다 하여도 ⑨풀 끝에 이슬이라.  
 오히려 덧없거든 어와 내 일이야.  
 ⑩광음(光陰)을 ⑪헤어보니  
 반생이 채 못되어 ⑫육륙(六六)에 들어 없네.  
 ⑬이왕 일 생각하고 즉금 일 헤아리니 번복도 측량없다.  
 ⑭승침(昇沈)도 하도할사  
 ⑮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아무리 내 일이라 내 역시 내 몰라라  
 ⑯장우단탄(長吁短嘆) 절로 나니 도중상감(途中傷感) 뿐이로다

▶ 귀양을 가는 자신의 신세 한탄

- ① 벗님네  
⇒ [ ] 사람들 : [ ] 자
- ② 아니 느껴온가  
⇒ 가슴에 사무치게 느껴진다
- ③ 다만지  
⇒ 기껏해야
- ④ 반듯기  
⇒ 순탄하게 살기, [ ] 게 살기
- ⑤ 백구지과극(白駒之過郤)이요 창해지일숙(滄海之一粟)이라  
⇒ 백구지과극 : 흰 말이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이 [ ] 다  
⇒ 창해지일숙 : 너른 바다의 좁쌀 한톨과 같이 [ ] 것 없다
- ⑥ 역려건곤(逆旅乾坤)  
⇒ 여관과 같은 세상
- ⑦ 꿈의 몸  
⇒ 한바탕 [ ] 과 같은 인생, 인생무상, 남가일몽, 한단지몽
- ⑧ 역력히

- ⇒ 똑똑히
- ⑨ 풀 끝에 이슬이라  
⇒ [ ] 것 없는 존재라
- ⑩ 광음(光陰)  
⇒ [ ]
- ⑪ 헤어보니  
⇒ 헤다(헤다) : [ ] 하다, [ ] 하다
- ⑫ 육륙(六六)에 들어 없네  
⇒ 36-2 : 34세
- ⑬ 이왕 일 생각하고 즉금 일 헤아리니 번복도 측량없다  
⇒ 이왕 일 : [ ] 간 일  
⇒ 즉금 일 : [ ] 일  
⇒ 헤아리니 : 헤다(헤다) - [ ] 하다, [ ] 하다  
⇒ 측량없다 : 어쩔 수 없다
- ⑭ 승침(昇沈)도 하도할사  
⇒ 승침 : 올라가고 내려옴(기복, 영고성쇠(榮枯盛衰))  
⇒ 하도할사 : 하다 - [ ], [ ]
- ⑮ 남대되  
⇒ 남에게도
- ⑯ 장우단탄(長吁短嘆) 절로 나니 도중상감(途中傷感) 뿐이로다  
⇒ 장우단탄 : 길고 짧은 [ ]  
⇒ 도중상감 : 중도에 느끼는 비참한 느낌

#### <중략 부분의 내용>

11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심  
 심 년간 외갓집에서 생활함  
 새 어머니 들어오심  
 ▶ 10대의 생활

20세에 결혼하고 이후 향락적인 생활을 함  
 맘 잡고 공부하여 관리과 됨  
 ▶ 20대의 생활

34세 죄 짓고 섬으로 귀양을 가게됨  
 유배지로 떠나는 감회  
 유배지로 향하는 노경의 힘겨움(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유배지 도착후 감회  
 ▶ 죄를 짓고 유배지에 도착함

눈물로 밤을 새워 아침에 ①조반(朝飯) 주니  
 ②덜 쏘은 보리밥에 떼 장(醬)덩이뿐이로다  
 한 술을 떠서 보고 ③클터히 내어 주니  
 그도 저도 아주 없어 굶은 적은 없었던가  
 ④장장하일(長長夏日) 긴긴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⑤의복(衣服)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⑥남방 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⑦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 오르니 ⑧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겹기 다 버리고 냄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⑨가련(可憐)히도 되었고나  
 ⑩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옴더니  
 ⑪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苟且)히 빌어 있어  
 ⑫옥식 진찬(玉食珍饈) 어디 두고 ⑬맥반 염장(麥飯鹽藏) 대하오며  
 ⑭금의 화복(錦衣華服) 어디 두고 ⑮현순백결(懸鵝百結)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鬼神)인가  
 ⑯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鬼神)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난다  
 이모양 무슴일고 미친사람 되었고나  
 ▶ 유배지에서 고통스러운 처지

- ① 조반(朝飯)  
⇒ 아침 식사
- ② 덜 쏘은 보리밥  
⇒ [ ] 보리밥
- ③ 클터히  
⇒ 큰덩이
- ④ 장장하일(長長夏日)  
⇒ 긴긴 [ ]
- ⑤ 의복(衣服)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 이유 : [ ]을 갈아입지 못해서
- ⑥ 남방 염천(南方炎天)  
⇒ 남쪽의 뜨거운 [ ]
- ⑦ 누비바지  
⇒ [ ] 바지
- ⑧ 굴뚝 막은 덕석  
⇒ 덕석 : 짚으로 엮은 명석  
⇒ 굴뚝 막은 덕석 : 옷이 굴뚝의 덕석처럼 [ ]다
- ⑨ 가련(可憐)히도 되었고나  
⇒ 자신의 처지 [ ]
- ⑩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옴더니  
⇒ [ ] : 서울에서의 상황
- ⑪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苟且)히 빌어 있어  
⇒ [ ] : 유배를 온 상황
- ⑫ 옥식 진찬(玉食珍饈)  
⇒ [ ] : 귀하고 맛있는 음식
- ⑬ 맥반 염장(麥飯鹽藏)  
⇒ [ ] : 보리밥 소금국, 초라한 음식
- ⑭ 금의 화복(錦衣華服)  
⇒ [ ] :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옷

- ⑮ 현순백결(懸鵝百結)  
⇒ [ ] : 헤어져서 백군데나 기운 옷 - [ ]기 옷
- ⑯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鬼神)일다  
⇒ 불품없고 [ ]한 모습

어와 ①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前山) 후산(後山)에 황  
 금빛이로다  
 남풍이 때때로 불어 보리 물결치는 고나  
 지계를 벗어놓고 ②전간(田間)에 ③궁닐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④청풍(淸風)에 취한 얼굴 깨운들 무엇하리  
 ⑤연년(年年)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⑥마당에 두드리고 용정(春精)에 쓸어내어  
 ⑦일분(一分)은 밥쌀 하고 일분은 술쌀 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⑧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⑨격양가(擊壤歌)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으면  
 ⑩공명(功名)을 탐(貪)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⑪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⑫청운(靑雲)이 알았으면  
 ⑬탐화봉접(探花蜂蝶) 이 ⑭그물에 ⑮걸렸으랴  
 ▶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공명을 추구한 삶의 반성

- ① 보리가을  
⇒ 보리를 [ ]해야 할 때 : 늦[ ], 초[ ]  
⇒ 계절적 가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할 것
- ② 전간(田間)  
⇒ 밭 사이에
- ③ 궁닐면서  
⇒ 몸을 구부렸다 폈다 일하면서
- ④ 청풍(淸風)에 취한 얼굴 깨운들 무엇하리  
⇒ 풍년(보리 술)에 취해 기분이 [ ]은 농부의 얼굴을 깨  
을 필요가 없다 : [ ]법
- ⑤ 연년(年年)  
⇒ 해마다
- ⑥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春精)에 쓸어내어  
⇒ 마당에 두드리고 : 타작  
⇒ 용정에 쓸어내어 : 방아
- ⑦ 일분(一分)  
⇒ [ ]
- ⑧ 함포고복(含哺鼓腹)  
⇒ [ ]른 배를 두드리고 : 먹을 것이 [ ]함
- ⑨ 격양가(擊壤歌)  
⇒ [ ]이 들어 [ ]를 말하는 노래
- ⑩ 공명(功名)

⇒ [ ] , [ ]

⑪ 백운(白雲) 흰 구름

⇒ [ ] 없는 삶

⑫ 청운(靑雲) 푸른 구름

⇒ [ ]을 추구하는 삶

⑬ 탐화봉접(探花蜂蝶)

⇒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

⇒ 유혹에 약한 [ ] 자신을 지시하는 말

⑭ 그물

⇒ 법망

⑮ 걸렸으랴

⇒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 [ ]법

어제 옳던 말이 오늘에야 ①원 줄 알고  
 뉘우친 마음이야 없어야 하라마는  
 ②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외에 들어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게 올랐으랴  
 천동할 줄 알았으면 잠든 누에 올렸으며  
 파선(破船)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田稅大同) 실었으며  
 실수(失手)할 줄 알았으면 내기 장기 두었으며  
 죄(罪)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 탐심(功名貪心) 하였으랴

▶ 공명 탐심에 대한 후회와 반성

① 원

⇒ 외다 : [ ]다, [ ]다

② 범 물릴 ~ 공명탐심(功名貪心) 하였으랴

⇒ 전세대동(田稅大同) : [ ]으로 거둔 쌀

⇒ 공명탐심(功名貪心) : [ ]을 탐하는 마음

⇒ 범 물릴 ~ 공명탐심(功名貪心) 하였으랴

▷ 욕심을 부려 죄를 지었던 일에 대한 [ ] : 자신이  
 죄를 지을 [ ]를 가지고 [ ]을 탐하는 마음  
 을 가졌던 것이 아님을 드러냄

▷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 [ ]법

①세상(世上)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人間離別) 나 혼자랴  
 ②소무(蘇武)의 북해 고생(北海苦生)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③귀불귀(歸不歸) ④설마 하랴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

▶ 다른데 마음을 붙여 시름을 잊고자 함

① 세상(世上)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人間離別) 나 혼자랴

⇒ 세상에서 귀양 온 사람이 나 뿐만이 아니고, 인간 중에  
이별한 사람도 나 혼자 아니다 : [ ]법

⇒ 스스로를 [ ]

② 소무(蘇武)의 북해 고생(北海苦生) 돌아올 때 있었으니

⇒ 소무(蘇武) : 중국의 충신

⇒ 북해 고생(北海苦生) : 북쪽 바다의 고생

⇒ 돌아올 때 있었으니 : 돌아올 수 있었으니

③ 귀불귀(歸不歸)

⇒ 가서 돌아오지 못함

④ 설마 하랴

⇒ 귀불귀하지 않을 것이다 : [ ]법

작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풍상(風霜)이 섞어 치니 만물(萬物)이 ①소슬(蕭瑟)하다  
 ②천고절(千古節)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곧은 대 빠져내어 가지 쳐 다듬으니  
 ③밭 가웃 낫대는 좋은 ④품(品) 되겠구나  
 ⑤청울치 가는 줄에 낚시 매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셋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  
 고기가 물릴 때라 낚시질 함께 가자  
 ⑥사립(簞笠)을 걸쳐 쓰고 ⑦망혜(芒鞋)를 조여 신고  
 ⑧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대 바람 한가하다  
 원근 산천(遠近山川)에 홍일(紅日)이 떠었으니  
 ⑨만경창파(萬頃蒼波)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⑩무심(無心)히 앉았으니  
 ⑪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무는구나  
 ⑫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의취(意趣)를 취(取)함이라

▶ 낚시를 하며 지취를 취하고자 함

① 소슬(蕭瑟)하다

⇒ [ ]하다

② 천고절(千古節)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 천고절(千古節) : 가을, 오랜 세월 지켜온 [ ]

⇒ 봄빛이 혼자로다 : 혼자 봄인 듯하다

③ 밭 가웃

⇒ 한발 남짓

④ 품(品)

⇒ 모습

⑤ 청울치

⇒ 노끈

⑥ 사립(簞笠)

⇒ 도롱이와 삿갓

⑦ 망혜(芒鞋)

⇒ 짚신

⑧ 조대(釣臺)

⇒ [ ]하는 자리

⑨ 만경창파(萬頃蒼波)

⇒ 넓은 [ ]

⑩ 무심(無心)히

⇒ [ ]이 없어

⑪ 은린옥척(銀鱗玉尺)

⇒ 은빛 비늘이 있는 아름다운 고기

⑫ 구태여 내 ~ 의취(意趣)를 취(取)함이라

⇒ 취어 : 고기를 잡음

⇒ 의취 : 의지와 취향, [ ]려고 낚시를 함

⇒ 구태여 내 ~ 의취를 취함이라 : 화자가 [ ]적인 [ ]이 없는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 - 죄를 지은 것이 자신의 [ ]적인 [ ]을 채우기 위해 서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①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②성상(聖上)이 버리시니 너를 좇아 예 왔노라

③네 본디 영물(靈物)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평생에 굶던 님을 천 리(千里)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④견딜손가

⑤수심(愁心)이 첩첩(疊疊)하니 내 마음 둘 데 없어

⑥흥(興)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⑦일없이 들었으니

고기도 ⑧불관(不關)커든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⑨흉중(胸中)의 붉은 마음

쾌(快)히 내어 볼 양이면 ⑩네가 응당 알 리로다

공명(功名)도 다 던지고 성은(聖恩)을 갚으려니

값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⑪일없으니

⑫성세(聖世)에 ⑬한민(閑民)되어 너를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가지 마라 네 벗 되오리라 <중략>

▶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① 내 낚대 ~ 놀라 날겠구나

⇒ 화자가 드리운 낚시대가 갈매기를 잡으려는 용도가 아님에도 갈매기들이 자신을 잡으려는 줄 알고 놀라서 날아가겠구나

② 성상(聖上)이 버리시니

⇒ [ ]이 버린 자신의 처지

③ 네 본디 영물(靈物)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 백구를 통해 [ ]을 풀어 보려함

④ 견딜손가

⇒ 못이기니

⑤ 수심(愁心)

⇒ [ ]스러운 마음

⑥ 흥(興)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 일간죽(一竿竹) : 낚싯대

⇒ 흥(興) 없는 일간죽(一竿竹) : 이유 - [ ]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것이 [ ]을 즐기며 [ ]을 누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⑦ 일없이

⇒ 기운없이

⑧ 불관(不關)커든

⇒ 관계 없거든

⑨ 흉중(胸中)의 붉은 마음

⇒ [ ]단심, [ ]심

⑩ 네

⇒ 백구 : [ ]법

⑪ 일없으니

⇒ 걱정할 일 없으니

⑫ 성세(聖世)

⇒ [ ]

⑬ 한민(閑民)

⇒ [ ]로운 백성

날이 지나 달이 가고 ①해가 지나 돌이로다

②상년(上年)에 비던 보리 올해 ③고쳐 비어 먹고

지난 여름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으니

새 보리밥 담아 놓고 ④가삼 맥혀 못 먹으니

뛰든 고기 회를 친들 ⑤목이 메어 들어가랴

⑥설위함도 남에 없고 못 견뎌도 별로하니

⑦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십년이라

⑧흥즉갈함 되올는가 고진감래(苦盡甘來) 언제 할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설은 ⑨원경(怨情) 비나이다

⑩책력(冊曆)도 해 묵으면 ③고쳐 쓰지 아니하고

⑪노호염도 밤이 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⑫세사(歲事)도 묵어지고 인사(人事)도 묵었으니

⑬천사만사 당척(蕩滌)하고 그만 저만 서용(恕容)하사

끓쳐진 옛 인연을 ③고쳐 잇게 하옵소서.

▶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소망함

① 해가 지나 돌이로다

⇒ 유배지에 온지 [ ]년이 되었다

② 상년(上年)

⇒ [ ] 해

③ 고쳐

⇒ [ ]

④ 가삼 맥혀 못 먹으니

⇒ [ ]움에 가슴이 막혀

⑤ 목이 메어 들어가랴

⇒ (서러움에 가슴이 막히니) [ ]이 메어 들어가지 않는다 - [ ]법

- ⑥ 설위함도 남에 없고 못 견뎌도 별로하니  
 ⇨ 서러움도 남이 없고 못 견디겠음도 남과 다르니
- ⑦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십년이라  
 ⇨ 유배 생활의 [ ]움
- ⑧ 흥즉길함  
 ⇨ [ ]한 것이 [ ]한 것으로 변함
- ⑨ 원정(怨情)  
 ⇨ [ ]하는 마음
- ⑩ 책력(冊曆)  
 ⇨ 달력
- ⑪ 노호염  
 ⇨ [ ]움
- ⑫ 세사(歲事)도 묵어지고 인사(人事)도 묵었으니  
 ⇨ 세사 : [ ]의 일  
 ⇨ 묵어지고 : 지난 일이고  
 ⇨ 인사 : [ ]의 일
- ⑬ 천사만사 탕척(蕩滌)하고 그만 저만 서용(恕容)하사  
 ⇨ 천사만사 : 온갖 일  
 ⇨ 탕척(蕩滌) : [ ]를 씻어줌  
 ⇨ 서용(恕容) : [ ]



자기학습용

# 어느 궁녀 「압 못세 든」

## 1

### 작품 분석

① 압 못세 든 고기드라 네 와 든다 뉘 너를 모라다가 너커늘 든다

② 북해청소(北海淸沼)를 어디 두고 이 못세 와 든다

③ 들고도 못 나눈 정(情)이야 네오 내오 다르냐

① 압 못세 든 고기드라 네 와 든다 뉘 너를 모라다가 너커늘 든다

⇒ 압 못 : 앞의 연못 -  공간,

⇒ 못세 : 못에 -  적기

⇒ 고기 : 화자의 처지와 되는 존재

⇒ 네 와 든다 : 네가 와서 들어왔느냐 - 적

⇒ 뉘 너를 모라다가 너커늘 든다 :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넣어서 들어왔느냐 - 적

② 북해청소(北海淸沼)를 어디 두고 이 못세 와 든다

⇒ 북해청소 : 북해의 맑은 연못 -  공간,

⇒ 이 못세 와 든다 : 이 연못(궁궐)에 들어왔느냐

③ 들고도 못 나눈 정(情)이야 네오 내오 다르냐

⇒ 들고도 못 나눈 정

▷ 들어오고도 못 나가는 심정

▷ 궁 안으로는 들어왔으나 라는 신분으로 인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 네오 내오 다르냐

▷ 네오 : 너와

▷ 내오 : 나와

▷ 다르냐 : 다르겠는가

▷ 너와 내가 다르겠는가 : 객체인 고기와 자신을 일체로 병렬시켜 을 자아내는 운명적 동질감을 표현

▷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자기학습용

# 오경화 「곡구룽 우는 소리에」

## 1

## 작품 분석

①곡구룽 우는 소리에 ②낮잠 깨어 일어 보니  
 ③작은아들 글 읽고 며늘아기 베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마초아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 전원의 한가로움 속에서 가족에게서 느끼는 정겨움

### ① 곡구룽

- ⇒ 피꼬리 우는 소리 : 의성어 - 적 심상
- ⇒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

### ② 낮잠

- ⇒ 로움, 로움

### ③ 작은아들 글 ~ 맛보라고 하더라

- ⇒ 글 읽고 : 신분을 암시 -
- ⇒ 꽃놀이 :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
- ⇒ 마초아 : 마침
- ⇒ 술 : 와 를 복돋우는 소재
- ⇒ 작은아들 글 ~ 맛보라고 하더라 : 식구들이 각자의 할 일을 하며 지내는 모습을 열거

자기학습용

## 월산대군 「추강에 밤이」

1

### 작품 분석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츄노뒀라.

①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뒀라.

②무심(無心)흔 들빃만 싣고 뵤 뵤 저어 오노뒀라.

<청구영언(靑丘永言)>

①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뒀라

⇒ 낙시 : 낚시대

⇒ 드리치니 : 드리우니

⇒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뒀라 : 낚시에는 관심이 없고 아름다운 [ ]의 경취에 [ ]이 팔려 버림

② 무심흔 들빃만 싣고 뵤 뵤 저어 오노뒀라

⇒ 무심 : [ ]이 없는

⇒ 뵤 뵤 : 빈 배

⇒ 무심흔 들빃만 싣고 뵤 뵤 저어 오노뒀라 :

▷ [ ]의 물욕과 명리를 초월한 허심탄회한 심경

▷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 ]만 싣고 돌아오는 것도 [ ]하고 있음

자기학습용

### 윤선도 「견회요」

#### 1

#### 작품 분석

- ① 슬프나 즐거오나 웁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② 해울 일만 뉘고 뉘을 뿐이언경
- ③ 그 뵈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 1수 : 신념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은 의지

- ① 슬프나 즐거오나 웁다 하나 외다 하나  
⇒ 외다 : 그르다, 틀리다  
⇒ 슬프나 즐거오나 웁다 하나 외다 하나 : 슬프거나 즐겁거나 (남들이) 웁다고 하거나 외다고 하거나
- ② 해울 일  
⇒ 할 일 -         와         에 대한
- ③ 그 뵈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 그 뵈기 : 그 뵈의 - 그         의  
⇒ 여남은 일 : 나머지, 남은  
⇒ 분별할 : 생각, 근심, 걱정  
⇒ 그 뵈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 그 뵈의 나머지 일들이야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 그 뵈의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 화자는         와         에 대한 생각과 걱정뿐이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①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야 모를 쓴가
- ② 이 ㅁ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다
- ③ 아모나 아모리 일너도 님이 헤여 보소서  
▶ 2수 :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결백 호소

- ①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야 모를 쓴가  
⇒ 망녕된 줄 : 잘못된 줄 - 작가인 윤선도가 집권세력 이이첨의 횡포에 대한 고발과 상소  
⇒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야 모를 쓴가 : 내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는가  
▶ 내가 한 일로 인해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② 이 ㅁ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다  
⇒ 어리기도 : 어리석음도 - (이유)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과 상소했기 때문

- ⇒ 님 :         님  
▶ 화자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과 상소한 이유 :         님을 위한 마음(충성심)
- ③ 아모나 아모리 일너도 님이 헤여 보소서  
⇒ 아모나 : 그 누가  
⇒ 아모리 : 아무리  
⇒ 일너도 : 모함해도  
⇒ 헤여 : 생각해, 헤아려

- ① 추성(椒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네는 저 시내 야
- ② 므슴 호리라 주야의 흐르는다
- ③ 님  향한 내 뜻을 좃아 그칠 뉘을 모로는다  
▶ 3수 : 임금을 향한 변함 없는 충절

- ① 추성(椒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네는 저 시내 야  
⇒ 추성 : 함경도의 지명  
⇒ 진호루 : 누각 이름  
⇒ 우러 네는 : 울며 흐르는  
⇒ 시내 : 시냇물  
▶ 시냇물이 울며 흐르는 이유 :         (        )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 -          이입
- ② 므슴 호리라 주야의 흐르는다  
⇒ 므슴 호리라 : 무엇을 하려고  
⇒ 주야 : 밤낮  
⇒ 흐르는다 : 흐르느냐
- ③ 님  향한 내 뜻을 좃아 그칠 뉘을 모로는다  
⇒ 님  향한 내 뜻 :         을 향한 마음  
⇒ 뉘를 : 줄을, 때를  
⇒ 임금님을  향한 내 마음을  좃아 그칠 줄을  모로는구나

- ① 되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② 그린 뜻은 많고 많고 ③ 하고 하고  
어디서 ④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4수 : 귀양지에서 부모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

- ① 되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되, 물 : 아버지 사랑의           
⇒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         법
- ② 그린  
⇒ 그리워하는 마음
- ③ 하고 하고 하다  
⇒ 하다 :         ,          - 크고 크고
- ④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외기러기 :         의 대상

- ① 아버지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 ② 남군 향한 뜻도 하눌히 삼겨시니
- ③ 진실로 남군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녀기노라

▶ 5수 : 총과 효의 일치에 대한 깨달음(연군지정)

- ① 아버지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 ⇒ 을 그리워할 줄은 부터 알았지만
- ② 남군 향한 뜻도 하눌히 삼겨시니
  - ⇒ 남군 향한 뜻 : 에 대한 심
  - ⇒ 하눌히 : 매일매일
  - ⇒ 삼겨시니 : 삼기다 - 다, 다
- ③ 진실로 남군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녀기노라
  - ⇒ 진실로 임금님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라고 생각하노라
  - ▷ 과 를 동일한 가치로 판단 : 임금과 부모 모두 똑같이 충성하고 공경해야 할 존재로 인식

자기학습용

# 이개 「방 안에 헛는」

## 1

## 작품 분석

- ① 방(房) 안에 헛는 촉(燭)불 놀과 이별(離別) 헛엇관디,
- ② 것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로는고
- ③ 더 촉(燭)불 날과 갓터여 속 타는 줄 모로도다

① 방(房) 안에 헛는 촉(燭)불 놀과 이별(離別) 헛엇관디

- ⇒ 헛는 : 켜 있는
- ⇒ 촉불 : 촛불
- ⇒ 놀과 : 누구와
- ⇒ 이별 헛엇관디 : 표현법 -  법

② 것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로는고

- ⇒ 것츠로 : 것트로 - 겹으로
- ▷ 표기 방식 :  적기
- ⇒ 디고 : 지고
- ⇒ 것츠로 눈물 디고 : 촛불의 촛농이 흐르는 것을 누군가와의 로 인해 을 흐르는 것으로 표현
- ⇒ 속타는 줄 모로는고 : 촛불의 심지가 타는 것을 누군가와의 로 인해 이 타는 것으로 표현

③ 더 촉(燭)불 날과 갓터여 속 타는 줄 모로도다

- ⇒ 더 : 저
- ⇒ 갓터여 : 같아여 - 같아서
- ▷ 표기 방식 :  적기
- ▷ 화자와 대상의 상태를 동일하게 표현 :  이입
- ▷ 현재 화자의 상황 : 누군가와 하여 하고 이 타고 있는 상황

자기학습용

# 이색 「부벽루」

## 1

### 작품 분석

어제 ①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②부벽루에 올랐어라.

▶ 기 : 부벽루에 오름

#### ① 영명사

⇒ 평양의 절, 광개토 대왕이 지은 절

#### ② 부벽루

⇒ 평양의 정자

①성은 비었는데 달은 한 조각이요,  
②돌은 늙었는데 구름은 천추로다.

▶ 승 : 부벽루 주변의 쓸쓸한 풍경

#### ① 성은 비었는데 달은 한 조각이요

⇒ 성은 비었는데 : 고려의 쇠락한 국운 ↔ 「」과 대조

⇒ 달 : 영원한 자연 ↔ 「」과 대조

⇒ 성은 비었는데 달은 한 조각이요 : 원나라의 침략으로 쇠락한 의 국운과 반대로 자연은 변함이 없다

▷ 고려의 국운은 에서 으로 바뀌었지만 자연은 변함이 없다 - 적막감, 애상감

#### ② 돌은 늙었는데 구름은 천추로다

⇒ 돌은 늙었는데 : 많은 의 흐름

⇒ 구름은 천추로다

▷ 구름 : 한 자연      ▷ 많은 의 흐름

⇒ 돌은 늙었는데 구름은 천추로다 : 돌도 늙었고 구름도 천년을 흘렀다

▷ 많은  (세월)의 흐름    ▷ 시간의 흐름의 시각화

▷ 그러나 동명왕 같은 은 없다

▷ 역사의 의 안타까움과 무상감

①기린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고,  
②천손은 어느 곳에 노니는고.

▶ 전 : 지난 역사에 대한 회고

#### ① 기린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고

⇒ 기린마 :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갔다는 말

⇒ 기린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고 : 고려의 쇠락한 국운을 시킬 수 있는 동명왕과 같은 을 기다리고 있음

#### ② 천손은 어느 곳에 노니는고

⇒ 천손 : 동명왕 같은 영웅

⇒ 천손은 어느 곳에 노니는고 : 고려의 쇠락한 국운을 시킬 수 있는 동명왕과 같은 을 기다리고 있음

①길게 휘파람 불고 바람 부는 언덕에 서니,  
②산은 푸르고 강은 저대로 흐르더라.

▶ 결 : 인간의 허망한 역사와 유구한 자연

#### ① 길게 휘파람 불고 바람 부는 언덕에 서니,

⇒ 길게 휘파람 불고 : 감의 표현

⇒ 바람 부는 언덕 : 쇠락한  국운의 상황

#### ② 산은 푸르고 강은 저대로 흐르더라.

⇒ 산, 강 : 한 자연

⇒ 산은 푸르고 강은 저대로 흐르더라 : 의 역사와 대조되는 자연의 모습

자기학습용

# 이이 「고산구곡가」

## 1 작품 분석

①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살림이 몰으든지,  
 ②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줍어, ③무이(武夷)를 상상(想像)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 1수 : 고산구곡가를 짓게 된 동기,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

- ①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살림 이 몰으든지
  - ⇒ 고산구곡담 : 고산 구곡의 , 수양의 경지 - 중의법
  - ⇒ 살림 : 사람
  - ▷ 표기 방식 : 적기
  - ⇒ 몰으든지 : 모르더니
- ② 주모복거(誅茅卜居)
  - ⇒ 풀을 베고 살 곳을 정하니
- ③ 무이(武夷)를 상상(想像)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 ⇒ 무이 : 주자가 정자를 짓고 살았던 곳,
  - ⇒ 학주자를 흐리라 : 주자를 리라
  - ▷ 시를 지은

일곡(一曲)은 어디먹고 ①관암(冠巖)에 히 빗친다.  
 ②평무(平蕪)에 너 거든이 원근(遠近)이 글림이로다.  
 송간(松間)에 ③녹준(綠樽)을 놓고 벗 온 양 보노라.

▶ 2수 : 관암의 아름다운 경치

- ① 관암(冠巖)에 히 빗친다
  - ⇒ 관암 : 갓처럼 생긴 바위 봉우리, 중심 대상
  - ⇒ 히 빗친다 : 시간적 배경 -
- ② 평무(平蕪)에 너 거든이 원근(遠近)이 글림이로다
  - ⇒ 평무(平蕪)에 : 잡초가 무성한 들판
  - ⇒ 너 거든이 : 가 걸히니
  - ⇒ 글림 : 그림(좋은 풍경) - 경치가 처럼 아름답다
  - ▷ 표기 방식 : 적기
- ③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온 양 보노라
  - ⇒ 녹준 : 좋은 술 - 을 즐기는 풍류, 흥취
  - ⇒ 벗 온 양 : 벗이 온 듯
  - ⇒ 벗 온 양 보노라 : 을 바라보는 자세

이곡(二曲)은 어디먹고 ①화암(花巖)에 춘만(春晚)커다.  
 ②벽파(碧波)에 곶츨 썩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③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혼 들 엇더리.

▶ 3수 : 화암의 늦봄 경치

- ① 화암(花巖)에 춘만(春晚)커다
  - ⇒ 화암 : 꽃바위, 중심 대상
  - ⇒ 춘만커다 :
- ② 벽파(碧波)에 곶츨 썩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 ⇒ 벽파 : 푸른 물결
  - ⇒ 곶츨 썩워 : 꽃을 띄워
  - ⇒ 야외 : 들판 밖(석담의 밖),
- ③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혼 들 엇더리
  - ⇒ 승지 : 명승지
  - ⇒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혼 들 엇더리 : 사람이 승지를 모르나 알게 하면 좋을 것이다
  - ▷ 속세로 꽃을 띄워 보내는 이유 : 사람들이 명승지를 모르기 때문에 명승지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삼곡(三曲)은 어디먹고 ①취병(翠屏)에 님 퍼졌다.  
 ②녹수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의  
 ③반송(盤松)이 수청풍(受淸風)하니 녀름 경(景)이 업세라.

▶ 4수 : 취병의 시원한 여름 경치

- ① 취병(翠屏)
  - ⇒ 푸른 빛 처럼 나무와 풀로 덮인 절벽, 중심 대상
- ②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의
  - ⇒ 녹수 : 푸른나무
  - ⇒ 산조 : 산새
  - ⇒ 하상기음 : 소리를 낮추었다가 높였다 함
- ③ 반송(盤松)이 수청풍(受淸風)하니 녀름 경(景)이 업세라
  - ⇒ 반송 :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 ⇒ 수청풍 : 에 흔들리니
  - ⇒ 녀름 경이 업세라 : 이 아니다
  - ▷ 소나무를 흔드는 바람이 불어오니 여름 같지 않게 하다

사곡(四曲)은 아드먹고 ①송애(松崖)에 히 넘는다.  
 ②담심암영(潭心巖影)은 온갓 빗치 줌것세라.  
 ③임천(林泉)이 김도록 조흐니 흥(興)을 겨워 흐노라.

▶ 5수 : 송애와 연못의 황혼녘 경치

- ① 송애(松崖)에 히 넘는다.
  - ⇒ 송애 : 소나무가 있는 물가의 낭떠러지, 중심 대상



⇒ 희 넘는다 : 시간적 배경 - [ ]

② 담심암영(潭心巖影)은 온갖 빗치 줌껏세라.

⇒ 담심암영 : 물에 비친 바위 그림자

⇒ 빗치 : 색깔(빛깔) -

▷ 표기 방식 : [ ]적기

③ 임천(林泉)이 깊도록 조흐니 흥(興)을 계워 흐노라.

⇒ 임천 : 수풀 속의 샘

⇒ 깊도록 : 깊을수록

⇒ 조흐니 : 좋으니 - 좋으니

⇒ 계워 흐노라 : 이길 수 [ ]

오곡(五曲)은 어드미고 ①은병(隱屏)이 보기 조희.

②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瀟灑)흥도 ㄱ이업다.

이 중(中)에 ③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詠月吟風)흐오리라

▶ 6수 : 수변 정사에서의 강학과 영월 음풍의 즐거움

① 은병(隱屏)

⇒ 으스스한 병풍처럼 들어 있는 절벽, 중심 대상

②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瀟灑)흥도 ㄱ이업다

⇒ 수변정사 : 물가에 세워진 정자

⇒ 소쇄흥도 : [ ]고 [ ]함

⇒ ㄱ이업다 : [ ]이 없다

③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詠月吟風)흐오리라

⇒ 강학 : [ ] 연구

⇒ 영월음풍 : 달과 바람과 더불어 시를 읊으리라

육곡(六曲)은 어드미고 ①조협(釣峽)에 물이 넘다.

②나와 고기야 낚야 더욱 즐기노고.

황혼(黃昏)에 낙대를 메고 ③대월귀(帶月歸)를 흐노라.

▶ 7수 : 조협의 낚시질과 대월귀

① 조협(釣峽)에 물이 넘다.

⇒ 조협 :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 중심 대상

⇒ 넘다 : 넘친다 - 물이 [ ]다

② 나와 고기야 낚야 더욱 즐기노고

⇒ 나와 고기 중에서 누가 더욱 즐거워하는가

③ 대월귀(帶月歸)

⇒ [ ]과 함께 돌아옴 - [ ]친화적 태도

칠곡(七曲)은 어드미고 ①풍암(楓巖)에 추색(秋色)이 좋다

②청상(淸霜)이 얹게 치니 절벽(絶壁)이錦繡(금수)로다.

③한암(寒巖)에 혼자 안자서 집을 닛고 잇노라.

▶ 8수 : 단풍으로 덮인 풍암에서의 흥취

① 풍암(楓巖)에 추색(秋色)이 좋다

⇒ 풍암 : [ ]으로 둘러싸인 바위, 중심 대상

⇒ 추색 : 단풍이 물든 [ ]의 색

② 청상(淸霜)이 얹게 치니 절벽(絶壁)이錦繡(금수)로다

⇒ 청상 : 맑은 서리

⇒ 금수 : 수놓은 [ ]

③ 한암(寒巖)에 혼자 안자서 집을 닛고 잇노라

⇒ 한암 : 차가운 바위

⇒ 집을 닛고 잇노라 : [ ]을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집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다

팔곡(八曲)은 어드미고 ①금탄(琴灘)에 돌이 밝다.

②옥진금휘(玉軫金徽)로 수삼곡(數三曲)을 노는 말이,

③고조(古調)를 알이 업스니 혼즈 즐겨 흐노라.

▶ 9수 : 금탄의 거문고 연주

① 금탄(琴灘)

⇒ 금탄 : 악기를 연주하며 노는 시냇가, 중심 대상

② 옥진금휘(玉軫金徽)로 수삼곡(數三曲)을 노는 말이

⇒ 옥진금휘 : 아주 좋은 거문고

⇒ 수삼곡을 노는 : 여러 곡을 연주

③ 고조(古調) 고조 ⇒ 옛 곡조

구곡(九曲)은 어드미고 ①문산(文山)에 세모(歲慕)커다.

②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못첫세라.

③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흐고 볼 것 업다 흐더라.

▶ 10수 : 문산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경박함  
- 학문하지 않은 세태 풍자

① 문산(文山)에 세모(歲慕)커다

⇒ 문산 : 중심 대상

⇒ 세모커다 : 한 [ ]가 저문다

②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못첫세라

⇒ 기암괴석 : 문산의 아름다운 경치

⇒ 못첫세라 : 못텃세라 - 물엿세라 - [ ]엿에라

▷ 표기 방식 : [ ]적기

③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흐고 볼 것 업다 흐더라

⇒ 유인 : 찾아오는 사람, [ ]의 사람

⇒ 볼 것 업다 흐더라 : [ ] 사람의 [ ]함

▷ 속세의 사람들은 [ ]에 문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서 보지도 않고 볼 것 없다고들 한다

자기학습용

# 이현보 「어부단가」

## 1 작품 분석

- ①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 ②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 ③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 ▶ 1수 : 세상사를 잊은 어부의 한가로움(소망)

- ①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 ⇒ 이 중 :  세상
  - ⇒ 어부 :  속에 묻혀 사는 선비
- ②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 ⇒ 일엽편주 : 작은 배(의 삶) - 시선의 이동
  - ⇒ 만경파 : 넓은 바다 물결(현실의 삶)
    - ▷  속에 있으면서 을 지향하는 내면 의식
- ③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 ⇒ 인세 :  세상
  - ⇒ 날 가는 줄을 알라 :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 ▷  세상을 다 잊었더니  속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굽어보면 ①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 ②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 ③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 ▶ 2수 :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유자적한 삶(정서)

- ①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 ⇒ 천심녹수 : 천길 푸른 물 - 시선의 이동
  - ⇒ 만첩청산 :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산 - 시선의 이동
    - ▷ 와의 단절을 강조
  - ⇒ 천, 만 : 적 거리
- ②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 ⇒ 십장홍진 :  세상, 열길이나 되는 의 티끌, 로운 세상
  - ⇒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 십장홍진을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이) 가리고 있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③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 ⇒ 강호 : 자연
  - ⇒ 월백하거든 : 달이 밝거든 ↔ ''과 대조
  - ⇒ 무심하여라 : 을 버림, 에 대한 관심을 버림, 적 욕심을 버림

- ①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 ②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 ③일반(一般)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 ▶ 3수 :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를 아는지(탄식)

- ①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 ⇒ 청하 : 푸른 연잎
  - ⇒ 녹류 : 푸른 버들
  - ⇒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 법
- ② 노적(蘆荻) 화총(花叢)
- ⇒ 노적 화총 : 갈대와 물억새 덩굴
- ③ 일반(一般)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 ⇒ 일반청의미 : 이 주는 참된
  - ⇒ 어느 분이 아실까 : 아는 분이 적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①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 ②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 일생에 시름을 잊고 ③너를 좇아 놀리라.
- ▶ 4수 : 자연과 함께 한가롭게 살고 싶은 소망(추구)

- ①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 ⇒ 산두 : 산꼭대기
  - ⇒ 한운 : 한가로운 구름
  - ⇒ 백구 :
- ②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 ⇒ 무심 :  없이
  - ⇒ 이 두 것 :  없는 과
- ③ 너를 좇아 놀리라
  - ⇒ 너 : ,
  - ▷ 표현법 : 법
  - ⇒ 좇아 놀리라 :  없이 에서 즐기며 살고 싶다

①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

다.

②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③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5수 :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우국충정)

①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 장안 : 한양,

⇒ 북궐 :  - 시선의 이동

⇒ 북궐이 천 리로다 : 적 거리감

▷ 궁궐에 살고 계신 이 그림다

②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 어주 :  속에 사는 삶

⇒ 잊은 때가 있으랴 : 잊은 적이 없다

▷ 정치적 이상에 대한

▷ 에 대한 인식변화

▷ 돌아보지만 의 삶 선택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③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시름 : 걱정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하는 선비 -

⇒ 제세현이 없으랴 : 세상을 구제하는 선비가 있을 것이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자기학습용

### 작가미상 「감군은」

#### 1 작품 분석

- ① 사해(四海) 바다 깊이는 달출로 재려니와
- ② 임의 덕택(德澤) 깊이는 어느 줄로 재리잇고
- ③ 향복무강(享福無疆)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 ④ 일간명월(一竿明月)이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제1장]

- ① 사해(四海) 바다 깊이는 달출로 재려니와
  - ⇒ 사해 : 온 세상
  - ⇒ 재려니와 : 짚 수 있지만
- ② 임의 덕택(德澤) 깊이는 어느 줄로 재리잇고
  - ⇒ 임 :
  - ⇒ 덕택 :
  - ⇒ 임의 덕택 깊이는 어느 줄로 재리잇고 : 임의 덕택 깊이를 어느 줄로 짚 것인가?
    - ▷ 의 은덕의 깊이는 짚 수 없을 만큼 크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③ 향복무강(享福無疆)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 ⇒ 향복무강 : 끝없는 을 누리다
  - ⇒ 만세 : 만수무강
  - ⇒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 끝없는 복을 누리시어 만수무강하시옵소서
    - ▷ 대상 :
    - ▷ 어조 : 형 어조
- ④ 일간명월(一竿明月)이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 일간명월 : 밝은 달빛 아래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며 지내는 것
  - ⇒ 역군은이샷다 : 역시 의 이시도다
  - ⇒ 일간명월이 역군은이샷다 : 밝은 달빛 아래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며 지내는 것도 역시 의 이시도다

- ① 태산(泰山)이 높다고 하나 하늘에 못 미치거니와
- ② 임의 높으신 은덕(恩德)은 하늘같이 높으시네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일간명월이 역군은이샷다 [제2장]

- ① 태산(泰山)이 높다고 하나 하늘에 못 미치거니와
  - ⇒ 태산이 높다고는 하지만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 ② 임의 높으신 은덕(恩德)은 하늘같이 높으시네
  - ⇒ 의 높으신 은 하늘같이 높으시도다

① 사해(四海) 넓은 바다 주춤(舟楫)이면 건너리어니와  
 ② 님의 넓은 은덕(恩德)은 차생(次生)에 갇소오리까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일간명월이 역군은이샷다 [제3장]

- ① 사해(四海) 넓은 바다 주춤(舟楫)이면 건너리어니와
  - ⇒ 사해 : 온 세상
  - ⇒ 주춤 : 를 타다
  - ⇒ 건너리어니와 : 건널 수 있지만
  - ⇒ 사해 넓은 바다 주춤이면 건너리어니와 : 온 세상에 있는 넓은 바다는 배를 타면 건널 수 있지만
- ② 님의 넓은 은덕(恩德)은 차생(次生)에 갇소오리까
  - ⇒ 차생 : 에
  - ⇒ 갇소오리까 : 갇겠습니까
  - ⇒ 님의 넓은 은덕은 차생에 갇소오리까 : 님의 넓은 은덕을 차생에 (어떻게) 갇겠습니까
    - ▷ 의 넓은 은덕은 현생에 갇을 수 없을 만큼 크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① 일편단심(一片丹心)뿐임을 하늘이여 알아주소서  
 ② 백골미분(白骨糜粉)인들 단심(丹心)이야 가시리잇가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향복무강하시어 만세를 누리소서  
 일간명월이 역군은이샷다 [제4장]

- ① 일편단심(一片丹心)뿐임을 하늘이여 알아주소서
  - ⇒ 일편단심 : 을 향한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
- ② 백골미분(白骨糜粉)인들 단심(丹心)이야 가시리잇가
  - ⇒ 백골미분 : 백골이 가루가 됨
  - ⇒ 단심 : 심, 변함없는 와 
    - ▷ =
  - ⇒ 백골미분인들 단심이야 가시리잇가 : 백골이 가루가 된들 단심이 가시겠습니까
    - ▷ 백골이 가루가 되어도 을 향한 마음은 변할 수 없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꿈은 고향 가건마는」

## 1

## 작품 분석

①꿈은 고향 가건마는 나는 어이 못 가는고  
 A《②꿈아 ③너는 어느 사이 고향 다녀왔노 ④고향 집  
 늙으신 부모 평안히 계시오며 ④집안의 젊은 처자와 ④어  
 린 동생과 ④각 댁 식구들이 다 태평터냐》A  
 ⑤태평키는 태평터라만 너 아니 온다고 수심(愁心)일레  
 ▶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 ① 꿈은 고향 가건마는 나는 어이 못 가는고  
 ⇨ 꿈 ↔  : 은 고향에 갈 수 있지만   
 는 가지 못함 - 법
- ② 꿈아  
 ⇨ 법, 법
- ③ 너  
 ⇨  : 법
- ④ 고향 집 늙으신 부모 / ④ 집안의 젊은 처자 / ④ 어린 동  
 생 / ④ 각 댁 식구들  
 ⇨ 화자가 안부를 궁금해하는 과
- A 《꿈아 너는 ~ 다 태평터냐》  
 ⇨ 말하는 이 : 의 질문 / 청자 :
- ⑤ 태평키는 태평터라만 너 아니 온다고 수심(愁心)일레  
 ⇨ 말하는 이 : 의 대답 / 청자 :   
 ⇨ 너 :   
 ⇨ 가족들이 태평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너가 오지 않아  
을 하고 있다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나모도 돌도 바히」

#### 1 작품 분석

① 나모도 돌도 바히 업슨 뒀헤 매게 조친 가토리 안과  
 ② 대천(大川) 바다 한 가운데 일천 석(一千石) 시른 빈  
 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코 뚝대도 것고 치도  
 싸지고 브릅 부러 물결 치고 안기 뒤섯거 즈즈진 날에  
 갈 길은 천리(千里) 만리(萬里) 남고 사면(四面)이 거머어  
 득 저뭇 천지(天地) 적막(寂寞) 가치노을 췌는뉘 수적(水  
 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③ 엇그제 님 여훤 내 안이야 엇다가 ㄱ을 ㅎ리오

- ① 나모도 돌도 바히 업슨 뒀헤 매게 조친 가토리 안과
  - ⇒ 나모도 돌도 : 나무도 돌도 -  곳
  - ⇒ 바히 : 전혀 / 바위
  - ⇒ 뒀헤 : 에서
  - ⇒ 매게 : 매에게
  - ⇒ 조친 : 고 있는
  - ⇒ 가토리 안 : 암평의 마음, 화자와의  대상
    - ▷ 가토리의 상황 : 숨을 곳이 전혀 없는 산 속에서 매에  
게 쫓기며 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
- ② 대천(大川) 바다 ~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 ⇒ 대천 바다 : 큰 바다
  - ⇒ 일코 : 잃고
  - ⇒ 농총 : 뚝대의 굽은 줄
  - ⇒ 근코 : 지고
  - ⇒ 것고 : 지고
  - ⇒ 치 : 키
  - ⇒ 싸지고 : 빠지고
  - ⇒ 뒤섯거 : 뒤췌어 - 뒤섞어
  - ⇒ 즈즈진 : 자욱한
  - ⇒ 거머어득 저뭇 : 검고 어둑하게 저물어
  - ⇒ 천지 적막 : 온세상이 적막하고
  - ⇒ 가치노을 췌는뉘 : 높은  치는데
  - ⇒ 수적 :
  - ⇒ 도사공의 안 : 뱃사공의 마음, 화자와의  대상
    - ▷ 도사공의 상황 : 넓은 바다 한 가운데에 쌀을 일천 석  
싣고 있는 상황에서 항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 파도가 높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해적을 만나
- 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
- ③ 엇그제 님 여훤 내 안이야 엇다가 ㄱ을 ㅎ리오
  - ⇒ 여훤 : 여희다(여의다/여희다) - 하다, 다
  - ⇒ 내 안이야 : 내 마음이야
  - ⇒ 엇다가 : 어짜가 - 어따가
  - ⇒ ㄱ을 ㅎ리오 : 비교하리오
  - ⇒ 엇그제 님 여훤 내 안이야 엇다가 ㄱ을 ㅎ리오 : 엇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을 어따가 비교하리오
    - ▷ 엇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을 비교할 수 없다 :
  - 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까투리와 사공보다도 임과 이별  
한  마음이 더 슬프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논매기 노래」

## 1 작품 분석

잘하고 ①자로 하네 에히요 ②산이가 자로 하네  
 ③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듣  
 소  
 ④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 기(1~3행) : 일꾼들의 관심 유도

- ① 자로 자주 또는 잘
- ② 산이  
 ⇨ 광대와 재주꾼, 여기서는 [ ]나 [ ]들을 가리  
 킴
- ③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듣소  
 ⇨ 농부들과 일꾼들의 [ ]을 유도
- ④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 일정한 리듬감으로 김매는 동작에 [ ]성을 형성하  
 여 노동의 [ ]성과 [ ]성을 높인다.  
 ⇨ [ ]을 돋우어 노동에서 오는 [ ]와 [ ]을  
 풀어 준다.  
 ⇨ 다 함께 일정한 가사를 반복한다는 주술적 효과를 통해  
 [ ]체 의식을 길러 준다.

①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가 이 아닌가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 서(4~5행) : 기름진 농토에 대한 예찬

- ①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가 이 아닌가  
 ⇨ 편편옥토 : 조각조각 모두가 [ ]진 땅  
 ⇨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가 이 아닌가 : 하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편편옥토이다.  
 ▷ 하늘이 준 땅을 경작한다는 농부들의 [ ]심이 드  
 러남 (= [ ]적인 태도)  
 ▷ 비옥한 토지에 대한 예찬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①물꼬 찰랑 돌아 놓고 친네 영감 어디 갔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②잘한다 소리를 퍽 잘하면 질 가던 행인이 질 못 간  
 단  
 ③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 서(6~11행) : 일꾼들에 대한 격려

- ① 물꼬 찰랑 돌아 놓고 친네 영감 어디 갔나  
 ⇨ 물꼬 찰랑 돌아 놓고 : 눈에 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물  
 꼬를 터 놓고  
 ⇨ 친네 영감 어디 갔나 : [ ]을 유발하는 표현  
 ▷ 주인에게 탁주 등 [ ]을 더 내놓으라
- ② 잘한다 소리를 퍽 잘하면 질 가던 행인이 질 못 간다  
 ⇨ 김매기를 열심히 하라는 선창자의 [ ]  
 ⇨ 모내기 노래의 [ ] 과시
- ③ 잘하고 자로 하네 ~ 일꾼들 자로 한다  
 ⇨ 일을 빨리 하자고 [ ]

①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②담송담송 닷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③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  
 에 달 돈는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 서(12~17행) : 일을 빨리 끝내자는 독려

- ①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  
 ⇨ 논배미 : 논과 논 사이를 구분하여 놓은 곳  
 ⇨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  
 : [ ]하는 농촌의 모습
- ② 담송담송 닷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 담송담송 : 드문드문한 모양, 언어 유희적 표현  
 ⇨ 담송담송 닷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 일이 얼마 남  
 지 않았으니 빨리 끝내자는 [ ]의 표현 - [ ]  
 적인 삶의 태도
- ③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돈는다  
 ⇨ 일락서산 : 해가 서산으로 넘어감  
 ⇨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 [ ]된 표현 - 일락 = 해가  
 지고  
 ⇨ 월출동령 : 달이 동쪽 고개로부터 솟아 오름  
 ⇨ 월출동령에 달 돈는다 : [ ]된 표현 - 월출 = 달 돈  
 는다  
 ⇨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에 달 돈는다  
 : 하루 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빨리 일을 끝

내자는 의 표현

▷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 법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①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솜씨로다

▶ 결(18~20행) : 결과에 대한 만족감

①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솜씨로다

⇒ 자신들의 솜씨에 대한 심이 드러남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덴동어미 화전가」

## 1

### 작품 분석

①가세 가세 화전(花煎)을 가세 꽃 지기 전에 화전 가세  
 이때가 어느 땐가 때마침 삼월이라  
 ②동군(東君)이 포덕택(布德澤)하니 춘화일난(春和日暖)  
 때가 맞고  
 ③화신평(花信風)이 화공(畫工) 되어 만화방창(萬化方暢)  
 단청(丹青) 되네  
 이런 때를 잃지 말고 화전놀음 하여 보세  
 ④불출문외(不出門外)하다가 소풍도 하려니와  
 우리 비록 여자라도 ⑤흥체 있게 놀아 보세  
 ▶ 화전 놀이의 권유

- ① 가세 가세  
 ⇨ 화전놀이의 [ ]
- ② 동군이 포덕택하니 춘화일난 때가 맞고  
 ⇨ 동군 : 봄의 [ ]  
 ⇨ 포덕택 : 은혜를 베푸니  
 ⇨ 춘화일난 : [ ]이 되어 날씨가 따뜻하여
- ③ 화신평이 화공 되어 만화방창 단청 되네  
 ⇨ 화신평 : [ ]피는 것을 알리는 바람  
 ⇨ 화공 : [ ]  
 ⇨ 만화방창 : 모든 사물이 한창 자라  
 ⇨ 단청 : 고운빛깔 무늬
- ④ 불출문외  
 ⇨ 문밖에 나가지 않다가 : [ ]에서 벗어나고 싶음
- ⑤ 흥체 있게  
 ⇨ 재미있게

#### <중략된 부분의 내용>

경북 ①순흥의 한 마을의 부인들이 화전놀이를 준비한다. 여러 집에서 화전 재료를 모아 내고 노소 부녀들이 단장을 하여 비봉산에 오른다.

- ① 순흥  
 ⇨ 구체적 지명의 사용

①상단이는 꽃 데치고 삼월이는 가루짐 풀고  
 취단이는 불을 넣어라 향단이가 떡 굽는다  
 ②청계반석(淸溪盤石) 너른 곳에 노소를 갈라 좌차리고  
 꽃떡을 일변 드리나마 ③노인부터 먼저 드리어라  
 옛과 떡과 함께 먹으니 향기의 감미가 더욱 좋다  
 ▶ 화전을 함께 나누어 먹음

- ① 상단이는 꽃 ~ 떡 굽는다  
 ⇨ 가루짐 풀고 : 부침 가루 풀고  
 ⇨ 상단이는 꽃 ~ 떡 굽는다 : [ ]을 부치는 모양
- ② 청계반석 너른 곳에 노소를 갈라 좌차리고  
 ⇨ 청계반석 : 맑은 시냇가의 큰 바위  
 ⇨ 너른 : 넓은  
 ⇨ 노소를 갈라 좌차리고 : 나이에 따라 갈라 앉히고
- ③ 노인부터 먼저 드리어라  
 ⇨ [ ]의 예절

①함포고복(含哺鼓腹) 실컷 먹고 서로 보고 하는 말이  
 일 년 일 차 화전놀음 ②여자 놀음 제일일세  
 ③노고지리 신질(迅疾) 떠서 빌빌깎길 피리 불고  
 오고 가는 벽궁새는 벽궁벽궁 벽구치고  
 봄빛자는 꼬꼬리는 좋은 노래로 벗 부르고  
 호랑나비 범나비는 머리 위에 춤을 추고  
 말 잘하는 앵무새는 잘도 논다고 칭찬하고  
 ④천인화표(千仞華表) 학두루미 요지연인가 의심하네  
 어떤 부인은 글 용해서 ⑤내칙(內則) 편을 외워 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칠월 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성 좋아 화전가를 잘도 보네  
 ⑥그중에도 덴동 어미 멋 나게도 잘도 놀아  
 춤도 추며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그중에도 ⑦청춘 과녀(淸春寡女) 눈물 콧물 귀취하다  
 ▶ 화전놀이 중에 청춘과부가 등장함

- ① 함포고복  
 ⇨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린다, [ ]하고 즐겁게 지낸다
- ② 여자 놀음 제일일세  
 ⇨ [ ]를 벗어나는 즐거움
- ③ 노고지리 신질 ~ 논다고 칭찬하고  
 ⇨ 노고지리 : 종다리  
 ⇨ 신질 : 빠르고 날쌔게  
 ⇨ 빌빌깎길 : [ ]적 심상 벽궁새 : 삐꾹새  
 ⇨ 벽궁벽궁 : [ ]적 심상  
 ⇨ 봄빛자는 : 봄을 즐기는  
 ⇨ 노고지리 신질 ~ 논다고 칭찬하고 : 자연물을 통해 [ ]움을 표현

- ④ 천인화표 학두루미 요지연인가 의심하네
  - ⇒ 천인화표 : 신선이 학이 되어 앉은 천길 되는 돌기둥
  - ⇒ 요지연 : 신선이 살았던 연못
- ⑤ 내척
  - ⇒ 책 이름
- ⑥ 그중에도 덴동 ~ 웃음소리 남자한테
  - ⇒ 덴동어미는 놀이를 [ ]하고 [ ]있게 만듦
- ⑦ 청춘 과녀 눈물 콧물 귀취하다
  - ⇒ 청춘 과녀 : [ ], 한 많은 여인
  - ⇒ 귀취하다 : 께죄지하다

**<중략된 부분의 내용>**

부인들이 화전을 부쳐 먹고서 글을 외우거나 노래와 춤으로 즐기다가 어떤 ①젊은 과부가 개가(改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신의 설움을 토로한다. 그러자 ②덴동 어미가 나서서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토로한다.

덴동 어미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로 태어나 ③같은 신분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나 신랑이 그네를 뛰다 떨어져 죽고 만다. ④개가하여 역시 아전 신분의 이승발의 후처로 들어갔으나, 시집이 이포(吏浦, 구실아치가 공금을 집어쓴 빚)를 많이 지게 되자 그것을 갚느라고 재산을 다 날리게 된다. 유랑하던 부부가 경주에서 군노(軍奴)가 경영하는 여각에서 안팎으로 ⑤담살이를 하며 누만금을 저축하였으나 ⑥괴질로 낭군이 죽고 빚을 준 사람들도 다 죽어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이어지는 부분은 덴동 어미가 다시 ⑦옹기장사를 하는 울산의 황 도령을 만나 ⑧그의 인생 역정을 듣는 부분이다.

- ① 젊은 과부가 개가할 ~ 자신의 설움을 토로한다
  - ⇒ 일반 화전가와 달리 [ ]의 이야기 : [ ]식 구성
- ② 덴동 어미가 나서서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토로한다.
  - ⇒ 실의에 빠진 청춘 과부 [ ]
  - ⇒ 청춘과부 때문에 사라진 [ ]을 살리는 역할
- ③ 같은 신분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나 신랑이 그네를 뛰다 떨어져 죽고 만다
  - ⇒ 덴동어미의 [ ] 번째 결혼과 [ ]적 결과
- ④ 개가하여 역시 아전 신분의 이승발의 후처로 들어갔으나
  - ⇒ 덴동어미의 [ ] 번째 결혼
- ⑤ 담살이
  - ⇒ 머슴살이, 더부살이
- ⑥ 괴질로 낭군이 죽고
  - ⇒ [ ] 번째 결혼의 [ ]적 결과
- ⑦ 옹기장사를 하는 울산의 황 도령을 만나
  - ⇒ [ ] 번째 결혼

- ⑧ 그의 인생 역정을 듣는 부분이다
  - ⇒ [ ]식 구성 : 화전가 속에 덴동 어미의 사연이 들어있음

여보시오 말씀 들소 우리 사정을 논지컨대  
 ①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홀과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②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가만히 숨숨 생각하니 ③먼저 얻은 두 낭군은  
 흥문(鴻門) 안의 사대부요 큰 부자의 세간  
 패가망신하였으니 ④흥진비래 그러한가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육대 독자 내려오다가  
 ⑤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苦盡甘來) 할까 보다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내 말이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 보세  
 ▶ 황도령에게 다시 시집감

- ① 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홀과부라
  - ⇒ 삼십 넘은 노총각 : 울산 황도령
  - ⇒ 삼십 넘은 홀과부 : 덴동 어미
- ②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 ⇒ 울산 황도령의 말 : [ ]
- ③ 먼저 얻은 두 낭군은
  - ⇒ 첫 번째 결혼 : 이방의 아들 / 두 번째 결혼 : 아전 이승발
- ④ 흥진비래 그러한가
  - ⇒ 흥이 다하면 [ ]이 온다 : [ ]론적 세계관
- ⑤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 할까 보다
  - ⇒ 죽을 목숨 살았으니 : 남해에서 표류하다가 살아 돌아온 일
  - ⇒ 고진감래 : 이제 고생은 끝, [ ] 일만 있을 것이다

①영감은 사기 한 짐 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고  
 나는 사기 광우리 이고 가가호호에 도부한다  
 조석(朝夕)이면 ②밥을 빌어 한 그릇에 둘이 먹고  
 남촌북촌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도부하니  
 돈백이나 될 만하면 둘 중에 하나 병이 난다  
 ③병구려 약시세 하다 보면 남의 신세를 지고 나고  
 다시 다니며 ④근사 모아 또 돈백이 될 만하면  
 또 하나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쓰고 나네  
 ⑤도부 장사 한 십 년 하니 장바구니에 ⑥들이 없고  
 ⑦모가지가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  
 ▶ 옹기 장사로 어렵게 연명함

- ① 영감은 사기 한 짐 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고 / 나는 사기 광우리 이고 가가호호에 도부한다

⇒ 영감 : 울산 황도령 - 덴동 어미의 [ ] 번째 남편

⇒ 사기 : 사기 그릇

⇒ 나 : 덴동 어미

⇒ 가가호호 도부한다 :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판다 - [ ]

② 밥을 빌어 한 그릇에 돌이 먹고

⇒ 돈을 벌기 위해 잘 [ ]도 못함

③ 병구려 약시세

⇒ 병구완, 약 쓰는 일

④ 근사

⇒ 부지런히

⑤ 도부

⇒ 장사 행상

⑥ 틀이 없고

⇒ 모퉁이가 닳고

⑦ 모가지가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

⇒ [ ]해도 살기 힘든 [ ]들의 고달픈 생활상

산 밑에 주막의 주인하고 굶은비 실실 오는 날에

①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천둥소리 ②북아치며 소나기비가 쏟아진다

③주막 뒷산이 무너지며 주막 터를 빼 가지고

동해수(東海水)로 달아나니 살아날 이 누굴런고

④건너다가 바라보니 망망대해뿐이로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⑤남해수(南海水)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 산사태로 남편이 죽음

① 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 남편은 [ ]고 덴동어미는 [ ]는 계기

② 북아치며

⇒ 급하게 몰아치며

③ 주막 뒷산이 무너지며 ~ 살아날 이 누굴런고

⇒ 남편이 있던 주막의 뒷산에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주막을 [ ] 바다로 쓸어가 버림

▷ [ ]의 모습 형상화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④ 건너다가 한 집 건너 두집 가다가

⇒ ①번의 내용

⑤ 남해수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 남편의 기구한 [ ]

그 주막에나 있었더라면 같이 따라가 죽을 것을

①먼저 괴질에 죽었더라면 이런 일을 아니 볼걸

②고대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도부가 다 무엇이고 도부 광우리 무여 박고

③혜염 없이 앉았으니 역장이 무너져 기막힌다

죽었으면 좋겠구만 ④생한 목숨이 못 죽을네라

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 하니 ⑤그 집 댁네가 강권하니

⑥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죽으면 쓸 데 있나 살기만은 못하리라

저승을 누가 가 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도 살고 보지 죽어지면 말이 없네

▶ 주막집 아낙의 위로

① 먼저 괴질에 죽었더라면

⇒ [ ] 번째 남편 따라 죽었더라면

② 고대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 고대 : 바로

⇒ 고대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 [ ]

③ 혜염

⇒ 혜염 : 혜다(혜다) - [ ]하다, [ ]하다

▷ 혜염 : [ ], [ ]

④ 생한

⇒ 살아 있는

⑤ 그 집 댁네

⇒ 주막집 아낙

⑥ 죽지 말고 밥을 먹게 ~ 죽어지면 말이 없네

⇒ 주막집 아낙의 [ ] : [ ]보다 [ ]이 낫다

⇒ 마음을 바꾸는 계기

### <중략된 부분의 내용>

덴동 어미는 주위의 권유로 또다시 ①옛장수하는 조 첨지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나 ②옛을 고오다 불이 나서 남편은 죽고 아들은 화상을 입고 만다. ③덴동 어미의 이름은 그녀의 아들이 불에 덴 아이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녀가 마침내 ④덴동이를 업고 60이 된 나이에 옛 고향에 돌아와 보니 옛집은 터만 남았을 뿐이다. ⑤덴동 어미는 이에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과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① 옛장수하는 조 첨지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아들을 낳게 된다

⇒ 옛장수하는 조 첨지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 덴동어미의 [ ] 번째 결혼

⇒ 아들을 낳게 된다 : [ ]이를 낳음

② 옛을 고오다 불이 나서 남편은 죽고

⇒ [ ] 번째 남편의 [ ]적 죽음

③ 덴동 어미의 이름은 그녀의 아들이 불에 덴 아이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 [ ] 어미로 불리는 이유

④ 뎡둥이를 업고 60이 된 나이에 옛 고향에 돌아와 보니 옛 집은 터만 남았을 뿐이다

⇒ [ ] : 뎡둥어미의 [ ]적 삶

⑤ 뎡둥 어미는 이에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 자신의 운명을 [ ]하는 달관의 태도를 보여줌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다 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①관계참고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②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③맘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 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 운명에 흔들리지 않는 뎡둥 어미의 삶의 태도

① 관계참고

⇒ 관계치않고

② 고쳐

⇒ [ ], [ ] 듣고

③ 맘 심 자가 제일이라

⇒ [ ]먹기에 달려있다

앉아 울던 청춘과부 ①황연대각(惝然大覺) 깨달아서  
 뎡둥 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②개개 옳애  
 ③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두고  
 ④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⑤세운 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⑥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 유수로 씻어 볼까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⑦웃음 끝에 하나 없네  
 ⑧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실실 풀려  
 ⑨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실실 녹네  
 ⑩자네 말은 봄 춘 자요 내 생각은 꽃 화 자라  
 봄 춘 자 만난 꽃 화 자요 꽃 화 자 만난 봄 춘 자라  
 ▶ 뎡둥 어미 말에 청춘과부가 깨닫고 신명나게 참여함

① 황연대각(惝然大覺)

⇒ 환하게 모두 깨달아

② 개개 옳애

⇒ [ ] 옳다

③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 이내 수심 : [ ]의 근심

⇒ 부쳐 보세 : 놀아보세

⇒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 방향을 끝낸 청춘 과부도 [ ]놀이에 참여

④ 화용월태

⇒ [ ]다운 얼굴과 모습

⑤ 세우

⇒ 가랑비

⑥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 유수로 씻어 볼까

⇒ 일촌간장 쌓인 근심 : [ ]타는 마음

⇒ 도화 유수 : 복숭아 꽃 흐르는 물

⑦ 웃음 끝에 하나 없네

⇒ [ ]니 사라지더라

⑧ 구곡간장 굵이굵이 서린

⇒ 창자, 깊은 마음 속

⑨ 삼동설한

⇒ 추운 겨울 세달(11월, 12월, 1월)

⑩ 자네 말은 봄 춘 자요 내 생각은 꽃 화 자라

⇒ 자네 : [ ]어미

⇒ 내 : 청춘 [ ]

⇒ 자네 말은 봄 춘 자요 내 생각은 꽃 화 자라 : 두 사람이 서로 잘 어울림

<중략된 부분의 내용>

봄 '춘' 자 노래와 꽃 '화' 자 타령이 이어진 뒤, 화자는 오늘 화전놀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년에 다시 이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화전 흥이 ①마진(磨盡)하여 해가 하마 석양일 제  
 ②사월 해가 길다더니 오늘 해는 자르도다  
 하느님이 감동하사 사흘 해만 ③겸해 주소  
 사흘 해를 겸하여도 하루 해는 ④맛창이지  
 해도 해도 길고 보면 실컷 놀고 가지만은  
 해도 해도 자를시고 이내 그만 ⑤해가 가네  
 산그늘은 물 건너고 ⑥가막같이 자라드네  
 각기 귀가(歸家)하리로다 언제 다시 놀아 볼꼬  
 ⑦꽃 없이는 재미없어 명년 삼월 놀아 보세  
 ▶ 화전 놀이를 마치는 아쉬움과 내년의 기약

① 마진(磨盡)하여 해가 하마 석양일 제

⇒ 마진하여 : [ ]는데(다하지 못하여)

⇒ 하마 :

② 사월 해가 길다더니 오늘 해는 자르도다

⇒ 자르도다 : 짧도다

⇒ 사월 해가 길다더니 오늘 해는 자르도다 : 흥겨워서 시간  
간이 빨리 지나간다 - 더 고 싶다

③ 겸해 주소

⇒ 더해 주소

④ 맛창이지 마찬가지로

⇒ 다

⑤ 해가 가네

⇒ 놀이를 내야 하는 아쉬움

⑥ 가막같이 자라드네

⇒ 검은빛에 가깝게 희미해진다, 어두워진다

⑦ 꽃 없이는 재미없어 명년 삼월 놀아 보세

⇒ 꽃 : 화전놀이의

⇒ 명년 삼월 : 내년 봄

⇒ 명년 삼월 놀아보세 : 을 기약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봉선화가」

## 1 작품 분석

①향규(香鬪)의 일이 업서 ②백화보(百花譜)를 ③혀쳐 보니,  
 ④봉선화 이 일흠을 뒤라서 지어내고.  
 ⑤진유(眞游)의 옥소(玉簫) 소리 자연(紫煙)으로 횡흔 후에,  
 ⑥규중(閨中)의 ⑦나은 인연 ⑧일지화(一枝花)의 머므르니,  
 ⑨유약(柔弱)흔 푸른 잎은 봉의 꼬리 넘노는 듯.  
 자약(自若)히 붉은 꽃은 자하군(紫霞裙)을 헤쳐는 듯.

▶ 서사-봉선화의 모습과 이름의 유래

- ① 향규(香鬪)
  - ⇒ 향기로운 규방(부녀자의 방)
- ② 백화보(百花譜)
  - ⇒ 꽃을 설명한 책
- ③ 혀쳐
  - ⇒ 펼쳐
- ④ 봉선화 이 일흠을 뒤라서 지어내고
  - ⇒ 일흠 : 이름
  - ⇒ 뒤라서 : 누가
  - ⇒ 봉선화 이 일흠을 뒤라서 지어내고 : 봉선화 [ ]에 대한 질문 - [ ]법
- ⑤ 진유(眞游)의 옥소(玉簫) 소리 자연(紫煙)으로 횡흔 후에
  - ⇒ 진유 : [ ]의 이름
  - ⇒ 옥소(玉簫) 소리 : [ ] 소리
  - ⇒ 자연(紫煙) : [ ]빛 연기 - [ ]이 사는 곳
  - ⇒ 횡흔 : 사라진(간)
  - ⇒ 진유(眞游)의 옥소(玉簫) ~ 횡흔 후에 : 피리를 잘 불던 사람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지상에서 인연을 [ ]에 머물게 하였다는 고사를 인용
- ⑥ 규중(閨中)
  - ⇒ 규방(여인이 머무는 방) 중에
- ⑦ 나은
  - ⇒ [ ]적기
- ⑧ 일지화(一枝花)
  - ⇒ 한 가지 [ ]
- ⑨ 유약(柔弱)흔 푸른 ~ 자하군(紫霞裙)을 헤쳐는 듯
  - ⇒ 유약(柔弱)흔 : 연약한
  - ⇒ 잎 : [ ] - [ ]법칙 적용되지 않음

- ⇒ 푸른 잎은 봉의 꼬리 : 봉선화의 푸른 [ ]을 [ ]의 [ ]에 비유 - [ ]법
- ⇒ 자약(自若)히 : 차분히
- ⇒ 자하군 : [ ]의 옷자락
- ⇒ 붉은 꽃은 자하군(紫霞裙) : 봉선화의 붉은 [ ] [ ]의 [ ]자락에 비유 - [ ]법
- ⇒ 헤쳐는 듯 : 펼쳐놓았는 듯 - [ ]법
- ⇒ 유약(柔弱)흔 푸른 ~ 자하군(紫霞裙)을 헤쳐는 듯 : 봉선화 꽃의 [ ] 묘사

①백옥(白玉)섬 ②조흔 ③흠게 ④중중이 심어너니,  
 춘삼월(春三月)이 지난 후의 향기(香氣) 업다 웃지 마소.  
 ⑤취(醉)흔 나빅 미친 벌이 ⑥쓰르올가 저허흔네.  
 ⑦정정(眞靜)흔 저 기상(氣像)을 ⑧녀자 밧기 뉘 벗홀고.

▶ 본사1-봉선화의 정숙함

- ① 백옥(白玉)섬
  - ⇒ 백옥같은 섬돌
- ② 조흔
  - ⇒ 깨끗한
- ③ 흠게
  - ⇒ 흠에 : [ ]적기
- ④ 중중이
  - ⇒ 한 그루 한 그루
- ⑤ 취(醉)흔 나빅 미친 벌
  - ⇒ [ ]한 [ ]
- ⑥ 쓰르올가 저허흔네
  - ⇒ 저허흔네 : [ ]하네
  - ⇒ 쓰르올가 저허흔네 : [ ]가 없는 이유
- ⑦ 정정(眞靜)흔 저 기상(氣像)
  - ⇒ 깨끗한 봉선화의 [ ] 예찬
- ⑧ 녀자 밧기 뉘 벗홀고
  - ⇒ 여자 : 여자 - [ ]법칙 적용되지 않음
  - ⇒ 밧기 : 밖의 - 밖의
  - ⇒ 뉘 : 누 + | ([ ] 조사) - 누가
  - ⇒ 벗홀고 : 벗하겠는가 - 벗할 수 없다 ([ ]법)

①옥난간(玉欄干) 긴긴 날의 ②보아도 다 못 보아,  
 ③사창(紗窓)을 반개(半開)하고 ④차환(叉鬪)을 불너너여,  
 ⑤다 핀 꽃을 키여다가 ⑥수상자(繡箱子)에 다마노코,  
 ⑦여공(女工)을 ⑧긋친 후의 ⑨중당(中堂)에 밤이 깊고,  
 ⑩납촉(蠟燭)이 발갓을 제, ⑪나옴나옴 고초 안즈,  
 ⑫흰 구슬을 가르마아 빙옥(氷玉) 꺾흔 손 가운뎃 난만(爛漫)이 개여너여,

⑬ 파사국(波斯國) 저 제후(諸侯)의 홍산궁(紅珊宮)을 허  
쳤는 듯,

심궁풍류(深宮風流) 절고의 홍수궁(紅守宮)을 마아는 듯,

⑭ 섬섬(纖纖)한 십지상(十指上)에 ⑮ 수실로 가마너니,

⑯ 조회 우회 불근 물이 미미(微微)히 숨의는 양,

가인(佳人)의 앗흔 뺨의 홍로(紅露)를 끼쳤는 듯,

⑰ 단단히 봉흔 모양 춘라옥자(春羅玉字) 일봉서(一封書)  
를 왕모(王母)에게 부쳤는 듯

▶ 본사2-손톱에 봉선화를 물들이는 모습

① 옥난간(玉欄干)

⇒ 옥난간에서

② 보아도 다 못 보아

⇒  꽃을

③ 사창(紗窓)을 반개(半開)하고

⇒ 사창 :  방(규방)의 비단 창문

⇒ 반개하고 : 반 정도 열고

④ 차환(叉鬢)

⇒ 계집중

⑤ 다 핀 꽃

⇒  화

⑥ 수상자(繡箱子)에 다마노코,

⇒ 수상자 : 수 놓는 도구를 넣어 둔 상자

⇒ 다마노코 : 담아놓고 -  적기

⑦ 여공(女工)

⇒  질

⑧ 굿친

⇒ 굿친 - 그친 :  적기

⑨ 중당(中堂)

⇒ 안채

⑩ 납촉(蠟燭)이 발갓을 제

⇒ 납촉 : 촛불

⇒ 발갓을 : 밝았을 -  적기

⑪ 나옴나옴 고초 안즈,

⇒ 나옴나옴 : 천천히

⇒ 고초 :  하게

⇒ 안즈 : 앉아 -  적기

⑫ 흰 구슬을 ~ 난만(爛漫)이 개여너여,

⇒ 흰 구슬 :

⇒ 가랴마아 : 갈아말아 -  적기

⇒ 난만이 : 흠뻑, 선명히

⇒ 흰 구슬을 ~ 난만이 개여너여 : 손톱에 봉선화  들  
이는 모습

⑬ 파사국(波斯國) 저 ~ 마아는 듯,

⇒ 파사국 : 페르시아

⇒ 홍산궁 :  은 산호 궁궐

⇒ 허쳤는 듯 : 펼쳤는 듯

⇒ 심궁 풍류 : 깊은 궁궐

⇒ 절고 : 절구

⇒ 홍수궁 :  은 도마뱀

⇒ 마아는 듯 : 뺨아놓은 듯

⇒ 파사국 저 ~ 마아는 듯 : 손톱에 붙인 봉선화의   
은 빛과 아름다움

⑭ 섬섬(纖纖)한 십지상(十指上)

⇒ 섬섬한 : 가늘고 고운

⇒ 십지상 : 열손가락에

⑮ 수실로 가마너니

⇒ 수실 : 수놓는 실

⇒ 가마너니 : 감아내니 -  적기

⑯ 조회 우회 ~ 끼쳤는 듯,

⇒ 조회 : 종이

⇒ 우회 :  에

⇒ 불근 : 붉은 -  적기

⇒ 미미히 : 조금씩

⇒ 숨의는 양 : 숨어드는 양 -  법

⇒ 가인 : 미인

⇒ 홍로 : 붉은 이슬

⇒ 끼쳤는 듯 : 어린(뿌린) 듯 -  법

⇒ 조회 우회 ~ 끼쳤는 듯 : 봉선화의 붉은 물이 손가락을  
감은 종이 위로  는 모습

⑰ 단단히 봉흔 ~ 부쳤는 듯

⇒ 봉흔 : 묶은

⇒ 춘라옥자 : 비단에 옥으로 쓴 글자

⇒ 일봉서 : 편지

⇒ 왕모 : 서왕모 - 신화 속의

⇒ 단단히 봉흔 ~ 부쳤는 듯 : 봉선화를 물들이고 손가락을  
감은 종이의 모양이 선녀에게 보내는 편지같다

① 춘면(春眠)을 늦초 깨여 ② 차례로 푸러 노코,

③ 옥경대(玉鏡臺)를 더혀서 ④ 팔자미(八字眉)를 그리랴니,

난데업는 ⑤ 불근 꽃이 ⑥ 가지에 ⑦ 부텃는 듯

⑧ 손으로 우회랴니 분분(紛紛)이 훗터지고,

입으로 불랴 하니 섯낀 안개 가리왔다.

⑨ 여반(女伴)을 서로 불너 ⑩ 낭랑(朗朗)이 자랑하고,

⑪ 꽃 압희 나아가서 두 빗출 비교하니,

⑫ 쪽넙히 푸른 물이 쪽의여서 푸르단 말이 아니 오를손가.

▶ 본사3-손톱에 물든 봉선화의 물의 아름다움

① 춘면(春眠)을 늦초 깨여

⇒ 춘면 : 봄잠

- ⇒ 늦추 : 늦게
- ② 차례로 푸러 노코,  
⇒ 열 손가락에 봉선화 물을 들인 [ ]를
- ③ 옥경대(玉鏡臺)  
⇒ 거울
- ④ 팔자미(八字眉)  
⇒ 팔자 눈썹
- ⑤ 불근 꽃  
⇒ 불근 : 붉은 - [ ]적기  
⇒ 불근 꽃 : 화자의 손에 [ ]들인 봉선화 꽃의 붉은 빛
- ⑥ 가지  
⇒ 화자의 [ ]
- ⑦ 부딪는 듯  
⇒ 붙었는 듯 : [ ]적기
- ⑧ 손으로 우회랴니 ~ 안개 가리웠다.  
⇒ 우회랴니 : 잡으려니  
⇒ 분분이 : 어지럽게  
⇒ 섯낀 안개 : 섞인 안개, 서린 입김  
⇒ 손으로 우회랴니 ~ 안개 가리웠다 : 화자의 손톱에 물들인 붉은 봉선화 빛의 아름다움
- ⑨ 여반(女伴)  
⇒ 여자 친구
- ⑩ 낭랑(朗朗)  
⇒ 즐겁게
- ⑪ 꽃 압희 나아가서 두 빗출 비교하니  
⇒ 꽃 : [ ]화 꽃  
⇒ 압희 : 앞에  
⇒ 두 빗출 : [ ]화와 [ ]의 색
- ⑫ 쪽닙희 푸른 물이 쪽의여서 푸르단 말이 아니 오를손가  
⇒ 손가락에 물든 빛이 실제 가지에 핀 봉선화보다 [ ]

은근이 풀을 매고 ①도라와 누엇더니,  
②녹의홍상(綠衣紅裳) ③일녀자(一女子)가 ④표연(飄然)  
이 압희 와서,  
웃는 듯 ④쨍기는 듯 사례(謝禮)는 듯 하직(下直)는 듯,  
몽롱(朦朧)이 잠을 찌여 정녕(丁寧)이 생각하니,  
아마도 ⑤꽃귀신이 내게 와 하직(下直)한다.  
⑥수호(繡戶)를 급히 열고 꽃슈물을 점검하니  
⑦싸우희 ⑧불근 꽃이 가득히 ⑨수(繡)노했다.  
⑩암암(黯黯)이 슬허하고 ⑪낫낫티 주어다마  
⑫꽃다려 말 부치딴 ⑬그딴 한(恨)티 마소.  
⑭세세년년(歲歲年年)의 꽃빛춘 의구(依舊)하니,  
⑮허물며 그딴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산의 ⑯도리화(桃李花)는 ⑰편시춘(片時春)을 자랑 마소.  
이십 번(二十番) 꽃벼람의 적막히 ⑱씨러진들 ⑲뉘라서  
슬허홀고.  
규중(閩中)에 남은 인연 ⑳그딴 혼몽 썬이로세.  
봉선화 이 일흠을 뉘라서 지어넉고 일로 햏야 지어서라.  
▶ 결사-봉선화는 떨어져도 계속되는 인연

- ① 도라와  
⇒ 돌아와 : [ ]적기
- ② 녹의홍상(綠衣紅裳)  
⇒ 푸른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은
- ③ 일녀자(一女子)  
⇒ 한 여자 = [ ]화 : [ ]법
- ④ 표연(飄然)이 압희  
⇒ 표연이 : 홀연히  
⇒ 압희 : [ ]에
- ⑤ 쨍기는 듯 사례(謝禮)는 듯 하직(下直)는 듯  
⇒ 쨍기는 듯 : 쨍그리는 듯  
⇒ 사례(謝禮)는 듯 : [ ]움을 전하는 듯  
⇒ 하직(下直)는 듯 : [ ] 인사하는 듯
- ⑥ 꽃귀신  
⇒ [ ]화 꽃 귀신
- ⑦ 수호(繡戶)  
⇒ 수놓은 방장으로 가린 문
- ⑧ 싸우희  
⇒ 땅 위에 : 우회 - [ ]에
- ⑨ 불근 꽃  
⇒ 봉선화 : 불근 - [ ]적기
- ⑩ 수(繡)노했다  
⇒ 낙화 : 노했다 - [ ]적기
- ⑪ 암암(黯黯)이 슬허하고  
⇒ 암암이 : 마음이 상해 시무룩하여  
⇒ 슬허하고 : 슬퍼하고  
⇒ 암암이 슬허하고 : 이유 - 봉선화꽃이 [ ]고 있기 때문
- ⑫ 꽃다려 말 부치딴  
⇒ 다려 : ~에게  
⇒ 꽃다려 말 부치딴 : 봉선화 꽃에게 [ ]을 건다  
- [ ]법
- ⑬ 그딴 한(恨)티 마소  
⇒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꽃을 [ ] : [ ]법
- ⑭ 세세년년(歲歲年年) 꽃빛춘 의구(依舊)하니  
⇒ 세세년년 : 해마다  
⇒ 의구하니 : 옛날과 같으니, 봉선화의 붉은 꽃빛은  
[ ]이 없으니
- ⑮ 허물며 그딴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 허물며 : 더구나

⇒ 그딤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 그대(= )의 자  
취( )이 내 손에 머물렀지(내 손톱에 )들었  
다) - 그러므로 헤어짐을 아쉬워하지 말아라

⑯ 도리화(桃李花)

⇒ 복숭아꽃, 배꽃

⑰ 편시춘(片時春)

⇒ 잠깐 지나가는 봄

⑱ 찌러진들

⇒ 떨어진들 : )적기

⑲ 뉘라서 슬허홀고

⇒ 누가 슬퍼하겠는가 : )법

⑳ 그딤

⇒ )화 : )법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서경별곡」

1

### 작품 분석

- ①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 마르는
- ②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림디리 (이후 후렴구 생략)
- ③ 닳곤딤 아즐가 닳곤딤 쇼성경 고외마른
- ④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 ⑤ 괴신란딤 아즐가 괴시란딤 우러곰 좃니노이다

- ①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 마르는
  - ⇒ 서경 : [     ], [     ]의 장소
  - ⇒ 아즐가 : 여음구, 조흥구
  - ⇒ 서울히 마르는 : 서울이지마는
- ②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림디리
  - ⇒ 후렴구 : 고려 가요의 특징 - 북소리의 [     ]어
- ③ 닳곤딤 아즐가 닳곤딤 쇼성경 고외마른
  - ⇒ 닳곤딤 : 새로 닳은 - 중수한   쇼성경 : 작은 서울(서경)
  - ⇒ 고외마른 : [     ]합니다마는
    - ▷ 고외다 : 고외다, 괴다 - [     ]하다
- ④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 ⇒ 여히므론 : 이별하기보다는
    - ▷ 여히다(여의다/여히다) - [     ]하다, [     ]다
  - ⇒ 질삼뵈 : 길쌈 베 - 생업, [     ]의 모든 것
  - ⇒ 브리시고 : 버리고라도
- ⑤ 괴신란딤 아즐가 괴시란딤 우러곰 좃니노이다
  - ⇒ 괴신란딤 : 사랑하신다면
    - ▷ 고외다 : 고외다, 괴다 - [     ]하다
  - ⇒ 우러곰 좃니노이다 : 울면서 [     ]겠습니다
    - ▷ 이별을 [     ]하는 [     ]적 태도

- ①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 ②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눈
- ③ 즘흔히를 아즐가 즘흔히를 외오곰 녀신들
- ④ 신잇든 아즐가 신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 ①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 ⇒ 구스리 : 구슬이(= [     ]이)
  - ⇒ 바회에 디신들 : 바위에 떨어진들

- ②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눈
  - ⇒ 긴히썸 : ([     ]과 [     ]의)끈이야
  - ⇒ 그츠리잇가 : 끊어지겠습니까?
    - ▷ 끊어지지 않는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 ③ 즘흔히를 아즐가 즘흔히를 외오곰 녀신들
  - ⇒ 즘흔히를 : (임과 [     ]져)천년을
  - ⇒ 외오곰 녀신들 : 외따로 지낸들
- ④ 신잇든 아즐가 신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 ⇒ 신잇든 : ([     ]과 [     ]의)[     ]이야
  - ⇒ 그츠리잇가 : 끊어지겠습니까?
    - ▷ 끊어지지 않는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 ①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 ②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흔다 샤공아
- ③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럼난디 몰라셔
- ④ 널빅예 아즐가 널빅예 연즌다 샤공아
- ⑤ 고즐여
- ⑥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 ①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 ⇒ 대동강 : [     ], [     ], [     ]의 공간
  - ⇒ 너븐디 몰라셔 : 넓은지 몰라셔
- ②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흔다 샤공아
  - ⇒ 빅내여 : 배를 내어
  - ⇒ 노흔다 : 놓았느냐, 노를 젓느냐
    - ▷ [     ]이 [     ]를 타고 갔다
  - ⇒ 샤공아 : 뱃사공아, [     ]의 대상
- ③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럼난디 몰라셔
  - ⇒ 네가시 : 사공의 [     ]
  - ⇒ 럼난디 몰라셔 : 바람난지(음란한지) 몰라셔
    - ▷ 사공이 배를 [     ]도록 하려고 [     ]말을 함
- ④ 널빅예 아즐가 널빅예 연즌다 샤공아
  - ⇒ 널빅예 : 떠나가는 배에
  - ⇒ 연즌다 : ([     ]을) 엮었느냐
- ⑤ 고즐여
  - ⇒ 다른 [     ]([     ]의 대상)
- ⑥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 ⇒ 빅타들면 : 배를 타고 가면
  - ⇒ 것고리이다 : 꺾을 것입니다(다른 [     ]를 사귄 것이다)

자기학습용

### 작가미상 「식어마님 며느라기」

#### 1

#### 작품 분석

①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벽 바흘 구로지 마오

▶ 며느라가 못마땅해서 야단치는 모습

①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벽 바흘 구로지 마오

⇒ 식어마님 : [ ]적, [ ]의 대상

⇒ 낮바 : [ ]어서

⇒ 벽 바흘 : 부엌바닥을

①빛에 바른 며느리가 갑세 쳐 온 며느리가 ②밤나모 서근 들걸 휘초리 나니길치 알살피신 식아바님 ③벗 빈 쇧동길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④삼 년(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길 부리길치 췌족길신 식누으님 ⑤당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길치 식노란 외길길튼 피췌 누논 아들 허나 두고

▶ 시집 식구들의 성격과 구박

① 빛에 바른 며느리가 갑세 쳐 온 며느리가

⇒ 빛에 : [ ] 대신에

⇒ 갑세 쳐 온 : [ ]으로 사 온

② 밤나모 서근 들걸 휘초리 나니길치 알살피신 식아바님

⇒ 서근 들걸 : 썩은 등걸

⇒ 휘초리 : [ ]의 비유

⇒ 나니길치 : 난 것 같이

⇒ 알살피신 : [ ]운

⇒ 식아바님 : [ ]적, [ ]의 대상

③ 벗 빈 쇧동길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 벗 빈 : [ ] 짚

⇒ 쇧동길치 : 쇧똥같이 - [ ]의 비유

⇒ 되종고신 : 말라빠진

⇒ 식어마님 : [ ]적, [ ]의 대상

④ 삼 년(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길 부리길치 췌족길신 식누으님

⇒ 겨론 : 엮은

⇒ 새 송길 부리 : [ ]의 비유

⇒ 식누으님 : [ ]적, [ ]의 대상

⑤ 당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길치 식노란 외길길튼 피췌 누

논 아들 허나 두고

⇒ 당피 : 좋은 곡식

⇒ 돌피 : [ ] 곡식, 아들의 비유

⇒ 나니길치 : 난 것 같이

⇒ 외길길 : 오이꽃, [ ]의 비유

⇒ 아들 : 아들, 또는 남편 [ ]적, [ ]의 대상

①건 밧티 멧길길튼 며느리를 어딴을 낮바 허시논고

▷ 건 밧티 : 기름진 밧에

▷ 멧길 : 아름다운 꽃

▶ 이유없는 구박에 대한 항변

① 건 밧티 멧길길튼 며느리를 어딴을 낮바 허시논고

⇒ 건 밧티 : [ ]진 밧에

⇒ 멧길 : [ ]다운 꽃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유산가」

#### 1

#### 작품 분석

①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山川景概)를 구경을 가세.  
 ▶ 서사 : 봄 경치 권유

- ①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 화란춘성 :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봄산  
 ⇨ 만화방창 : 만물이 바야흐로 한창 기를 펴고 자라남  
 ⇨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 [ ]적 배경 제시

①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을 들  
 어가니,  
 ② 만산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피  
 어  
 ③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④ 창송 취죽(蒼松翠竹)은 창창 울울(蒼蒼鬱鬱)한데,  
 ⑤ 기화 요초(琪花瑤草) 난만 중(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⑥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⑦ 화간 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⑧ 삼춘 가절(三春佳節)이 좋을씨고.  
 ⑨ 도화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⑩ 어주축수 애삼춘(漁舟逐水愛三春)이어든  
 ⑪ 무릉 도원(武陵桃源)이 예 아니냐.  
 ⑫ 양류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하니  
 ⑬ 황산곡리 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에  
 ⑭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 본사 1 : 산 경치의 아름다움

- ①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  
 ⇨ 죽장망혜 : 대지팡이와 미투리 : [ ]한 여행용 차림  
 새  
 ⇨ 단표자 : 한 개의 표주박 - [ ]하고 [ ]한 생  
 활  
 ② 만산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 만산홍록 : 온 산에 가득한 붉고 푸른 것  
 ▶ '붉은 것' : [ ] / '푸른 것' : [ ]  
 ⇨ 일년일도 : 일 년에 한 번

- ③ 춘색(春色)  
 ⇨ 봄빛  
 ④ 창송 취죽(蒼松翠竹)은 창창 울울(蒼蒼鬱鬱)  
 ⇨ 창송취죽 : 푸른 [ ]나무와 [ ]나무  
 ⇨ 창창울울 : 울창하다  
 ⑤ 기화 요초(琪花瑤草) 난만 중(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  
 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 기화요초 : [ ]에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꽃과 풀  
 ⇨ 난만 중 : 화려하게 피어 있는 가운데  
 ⑥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 유상앵비 : 버드나무 위로 꼬꼬리가 날아다님  
 ⇨ 편편금 : 여러 조각의 금덩이  
 ⇨ 유상 앵비는 편편금이요 : 색의 [ ]성  
 ⑦ 화간 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 화간접무 : 꽃 사이로 나비가 춤을 춤  
 ⇨ 분분설 : 어지러이 날리는 눈송이  
 ⑧ 삼춘 가절(三春佳節)  
 ⇨ 삼춘가절 : 봄 석 달의 [ ] 계절  
 ⑨ 도화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 도화만발 : 복숭아 꽃이 활짝 피다  
 ⇨ 점점홍 : 점점이 붉다  
 ⑩ 어주축수 애삼춘(漁舟逐水愛三春)  
 ⇨ 어주축수 애삼춘 : 고기잡이 [ ]를 타고 물을 따라가  
 며 [ ]을 즐긴다.  
 ⑪ 무릉 도원(武陵桃源)이 예 아니냐  
 ⇨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겠는가?  
 ▶ 무릉도원이 여기일 것이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⑫ 양류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  
 ⇨ 버드나무의 가느다란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푸르다  
 ⑬ 황산곡리 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  
 ⇨ 황산의 골짜기 안에서 봄철을 만남.  
 ⑭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 연명오류 : 도연명이 그의 집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 놓고 스스로를 오류 선생(五柳先生)이라 칭하였다.  
 ⇨ 예 아니냐 : 여기로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  
 법

제비는 물을 ①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②거지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흰싹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같고 ③슬피 운다.  
 ④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⑤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⑥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⑦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살살,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⑧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년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⑨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흠어지니,

⑩소부허유문답하던 기산영수(箕山潁水)가 예아니냐.

▶ 본사 2 : 새, 산, 폭포수의 아름다움

- ① 차고 차며  
⇒ 날아다니고
- ② 거지중천(居之中天)  
⇒ 하늘
- ③ 슬피 운다  
⇒ 겨울 철새인 기러기가 좋은 [ ]의 경치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 ]서 울고 있음 : 봄의 경치가 그만큼 [ ]답다
- ④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 첩첩 : 겹겹이 포개어 있고  
⇒ 주춤 : 달리다가 문득 멈추어 서서, 우뚝 솟아 있다
- ⑤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 기암 : 기이한 바위  
⇒ 층층 : 층을 이루고 있고  
⇒ 낙락 : 가지가 잘 자라 아래로 축축 늘어진 모양
- ⑥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  
⇒ 층층의 바위 절벽
- ⑦ 수정렴(水晶簾)  
⇒ 수정으로 만든 발
- ⑧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년출지고 방울져  
⇒ 천방저 지방저 : 천방지방 - 급하게 허둥지둥 날뛰는 것, 종작없이 덤벼거리는 것  
⇒ 소쿠라지고 : (아주 빠른 물결이) 굽이쳐 용솟음치고  
⇒ 평퍼져 : 동그스름하고 편편하게 가로퍼져 있는 모양. 여기서는 물이 옆으로 편편하게 흐르는 모양.  
⇒ 년출지고 : 급한 물결이 넘실거리는 모양  
⇒ 방울져 : 물줄기가 서로 부딪쳐 물방울을 이루며 부서져
- ⑨ 병풍석(屏風石)  
⇒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 벵으로
- ⑩ 소부허유(巢父許由)문답하던 기산영수(箕山潁水)가 예아니냐.  
⇒ [ ]를 떠난 [ ]을 표현 : 경치가 [ ]다  
⇒ 옛날 '소부' 와 '허유'가 서로 문답하던 '기산'과 '영수'가

여기 아니냐?

▷ 여기로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①주곡제금(奏穀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豊)이라.

②일출 낙조(日出落照)가 눈앞에 벌어나 경개 무궁(景概無窮) 좋을씨고.

▶ 결사 : 무궁한 경개 예찬

- ① 주곡제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 주곡제금 : 두견새  
⇒ 천고절 : 천고에 빛나는 곧은 [ ]  
⇒ 적다정조 : 소쩍새  
⇒ 일년풍 : 한 해의 [ ]이 들 징조
- ② 일출낙조가 눈앞에 벌어나 경개 무궁 좋을씨고.  
⇒ 일출낙조 : 아침에 뜬 해가 저녁이 되어  
⇒ 경개무궁 : 경치가  
⇒ 서사 부분과 호응 구절, 경치 구경 [ ]

자기학습용

### 작가미상 「정읍사」

#### 1

#### 작품 분석

##### ①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②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함

##### ① 돌하 노피곰 도드샤

⇒ 돌하 : 달님이시여

▷ 달 : 천지신명, 광명 - [ ] , [ ]의 대상

⇒ 노피곰 : [ ]

⇒ 도드샤 : 도드시아 - 돛으시아 - 돛으샤

▷ 시 : [ ] 높임

##### ② 머리곰

⇒ 멀리

##### ① 저재 녀려신고요.

어귀야 ②즌 덕롤 드덕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 남편의 안전을 걱정함

##### ① 저재 녀려신고요

⇒ 저재 : 시장에 - 남편의 신분이 [ ]임을 알 수 있음

⇒ 녀려신고요 : 계신가요

##### ② 즌 덕롤 드덕올세라

⇒ 즌 덕 : 위험한 곳 - [ ]과 대조

⇒ 드덕올세라 : 디딜까 두렵습니다

##### ① 어느이 다 노코시라.

어귀야 ②내 가는 덕 점그롤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

##### ① 어느이 다 노코시라

⇒ 어느 곳이나 (짐을) 놓으십시오 : 지고 간 짐 어느 것이  
나 다 / 아무데나 / 아무 여자에게나 놓으세요 / 아무 여  
자에게나 놓을까 걱정

##### ② 내 가는 덕 점그롤세라

⇒ 내 가는 덕 : 나 가는 곳에

▷ 임 : 임이 가시는 길

▷ 나 : 임 [ ] 가는 길

▷ 나와 임 : 임과 나의 인생길 - 임과 나의 [ ]

⇒ 점그롤세라 :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청산별곡」

#### 1

#### 작품 분석

살어리 ①살어리랏다. ②청산애 살어리랏다  
 ③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애 ④살어리랏다.  
 ⑤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후 후렴구 생략)  
 ▶ 1연 : 청산(자연)의 동경

- ① 살어리랏다
  - ⇒ 살리라, 살겠노라( )를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
  - ⇒ 살아야 했을 것을(옛날에 살았던 청산을 )위함
  - ⇒ 살아갈 것이로다
- ② 청산
  - ⇒ )적 공간이 아님
  - ⇒ 화자가 청산에 있을 경우 : 현실로부터의 )처
  - ⇒ 화자가 청산에 있지 않을 경우 : 생의 )처, )의 대상
- ③ 멀위랑 득래랑 먹고
  - ⇒ 향토적, )한 삶
- ④ 살어리랏다
  - ⇒ )적 어조, 남성적 어조
- 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 흥을 돋우기 위한 무의미한 운율적 후렴구(조흥구, 여음)
  - ⇒ 자아의 지향점(비애가 없는 곳)과 일치

①우러라 우러라 ②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③널라와 시름 ④한 나도 자고 니러 ⑤우니노라.  
 ▶ 2연 : 삶의 비애와 고독

- ① 우러라
  - ⇒ 울+어라( )형) : 우는구나
- ② 새
  - ⇒ 작자의 ), )의 존재 : )이입법
- ③ 널라와
  - ⇒ 너( ) ( )격)
- ④ 한
  - ⇒ )은 : 하다 - )다, )다
- ⑤ 우니노라

⇒ )적 어조

①가던 새 가던 새 ②본다, ③물 아래 가던 새 본다.  
 ④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 3연 : 속세에 대한 미련

- ① 가던 새
  - ⇒ 날아가던 ) : 현실 세계에 대한 )
  - ⇒ 갈던 ) : 삶의 터전을 잃은 )감
- ② 본다
  - ⇒ 보+니다 : 보는가 - )형
- ③ 물
  - ⇒ 평원 지대, ) : 5장에서 구체화
- ④ 임무든 장글란
  - ⇒ 화자가 농토를 잃은 )인 경우 : 이끼 묻은 )를
  - ⇒ 화자가 )에 가담한 무리인 경우 : 날이 무딘 )

①이링공 더링공 허아 ②나즈란 ③디내와손더,  
 ④오리도 가리도 업슨 ⑤바므란 쏘 ⑥엇디 호리라  
 ▶ 4연 : 절망적 고독과 비탄

- ① 이링공 더링공
  - ⇒ 이력저력
- ② 나즈란
  - ⇒ )은
- ③ 디내와손더
  - ⇒ 지내왔지만
- ④ 오리도 가리도 업슨
  - ⇒ 올 )도 갈 )도 없는 :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 )적기
- ⑤ 바므
  - ⇒ )은 : ), 절망적 고독
- ⑥ 엇디 호리라
  - ⇒ )적 어조

①어디랴 더디던 ②돌코, ③누리랴 마치던 돌코,  
 ④의리도 ⑤괴리도 업시 ⑥마자셔 우니노라.  
 ▶ 5연 : 아픈 운명 - 체념

- ① 어디랴 더디던
  - ⇒ 어디로 던지던
- ② 돌

⇒ 아픈 [ ]

③ 누리라 마치던

⇒ [ ]를 맞히려던

④ 의리

⇒ [ ]할 이

⑤ 괴리

⇒ 괴다, 고외다 : [ ]하다 - [ ]할 이

⑥ 마자서

⇒ 맞아서 : [ ]적기

살어리 살어리랏다. ①바르래 살어리랏다.

②느므 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 6연 : 바다(자연)의 동경

① 바르

⇒ [ ] : [ ]과 대응

② 느므 자기 구조개

⇒ 나문재(해초) 굴과 조개 : [ ]한 삶의 모습

가다가 가다가 ①드로라, ②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③사스미 ④값대에 올라서 ⑤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 7연 : 생의 서글픔, 기적을 바라는 심정

① 드로라

⇒ 듣는다

② 예정지

⇒ 외딴 부엌

③ 사스미

⇒ 사슴 : [ ]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람

⇒ 광대 : 놀이판에서 느끼는 [ ]

⇒ 사슴의 [ ]

④ 값대에 올라서

⇒ 값대 : 장대

⇒ 올라서 : 올라서

⑤ 희금을 혀거

⇒ 혀거 : 켜는 것을

⇒ 희금을 혀거 : 해금을 켜는 것 - 있을 수 없는 일([ ])

①가다니 ②빅 브른 도끼 ③설진 강수를 ④비조라.

⑤조롱곳 누르기 킷 와 잡스와니, ⑥내 엇디 흐리잇고

▶ 8연 : 고독, 비애의 낙천적 삶

① 가다니

⇒ 가더니

② 빅 브른 도끼

⇒ 가운데가 불룩한 독 : [ ]적기

③ 설진 강수

⇒ 독한 [ ]

④ 비조라

⇒ 빛는다

⑤ 조롱곳 누르기 킷 와 잡스와니

⇒ 누룩의 냄새가 [ ]를 붙잡으니

… 한잔 먹고 이 [ ]을 잊어야지 : [ ]적 태도

⇒ 누룩의 냄새가 [ ]을 붙잡으니 … 내가 [ ]할꼬

⑥ 내 엇디 흐리잇고

⇒ [ ]적 어조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청천에 띄는 기러기」

## 1

## 작품 분석

청천(靑天)에 띄는 ①기러기 흔 쌍(雙) ②한양성대(漢陽城臺)에 잠간 들려 쉬어 같다.

③이리로서 저리로 갈 제 내 소식(消息) 들어다가 님의 게 전(傳)히고 저리로서 이리로 올 제 님의 소식(消息) 드러 내손딛 브딛 들려 전(傳)히여 주렴.

④우리도 님 보라 밧비 가는 길히니 전(傳)홀 동 말 동 히여라.

① 기러기 흔 쌍(雙)

⇒ 를 전해 주는 새

② 한양성대(漢陽城臺)

⇒ 이 있는 곳

③ 이리로서 저리로 갈 제 내 소식(消息) 들어다가 님의게 전(傳)히고 저리로서 이리로 올 제 님의 소식(消息) 드러 내손딛 브딛 들려 전(傳)히여 주렴

⇒ 이리로서 저리로 : 여기서 저기로 - 가 있는 곳에서 이 있는 곳으로

⇒ 저리로서 이리로 : 저기서 여기로 - 이 있는 곳에서 가 있는 곳으로

⇒ 드러 : 들어

⇒ 내손딛 : 내 손에

⇒ 브딛 : 부딛

⇒ 이리로서 저리로 ~ 전히여 주렴 : [의 말] 시적 화자가 에게 임과 자신의 을 서로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함

④ 우리도 님 보라 밧비 가는 길히니 전(傳)홀 동 말 동 히여라

⇒ 밧비 : 바삐 -

⇒ 우리도 님 보라 밧비 가는 길히니 : 우리도 님을 보러 바삐 가는 길이니

▷ 시적 화자의 처지와 기러기의 처지가

⇒ 전 홀 동 말 동 히여라 : [의 말] 전할 수 있을지 말지 하는구나

▷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하는 기러기

▷ 화자의 심정을 심화

자기학습용

## 작자미상 「해가」

1

### 작품 분석

- ①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 ② 남의 아내 훔쳐간 죄 얼마나 큰가?
- ③ 네 만약 거역하고 내어 놓지 않으면,
- ④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①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 거북 :  부인을 납치해간 용

⇒ 아 : 돈호법

⇒ 내놓아라 :  형 어조

② 남의 아내 훔쳐간 죄 얼마나 큰가?

⇒ 남의 아내 훔쳐간 죄 : 명령의

⇒ 얼마나 큰가? : 남의 아내를 훔쳐간 죄가 크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③ 네 만약 거역하고 내어 놓지 않으면,

⇒ 만약 ~ 으면 : 상황

④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 잡아 구워 먹으리 :  을 통한 주술적 효과 극대화

자기학습용

### 정약용 「고시 7,8」

#### 1

#### 작품 분석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①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②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③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행채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④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고시 7>

①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 부평초 : 힘없는 [ ], [ ] 본인

⇒ 매달린 꼭지 : 뿌리

⇒ 바람 : [ ]의 영향

⇒ 부평초만은 매달린 ~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 부평초의 생태적 특징

② 더부살이 신세

⇒ 당대 [ ]들의 삶의 [ ] 상징

⇒ [ ] 본인의 [ ] 상징

③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 행채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 서민과 약자들을 [ ]하는 [ ]의 모습 연상

④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 부평초, 연잎, 행채가 서로 [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 ]

①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②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③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④“느릅나무 해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 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⑤“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뒹진다오.”

<고시 8>

① 제비

⇒ [ ]당하는 힘없는 [ ]

②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 무언가를 하소연하고 싶은 모습

③ 집 없는 서러움

⇒ [ ] 없는 서러움 : [ ]함을 호소

④ “느릅나무 해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 어찌하여 그 곳에 깃들지 않니?”

⇒ “느릅나무 ~ 깃들지 않니?” : [ ]가 [ ]에게 던지는 질문

⇒ 느릅나무 해나무 : [ ]들의 삶의 [ ]

⑤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뒹진다오”

⇒ “느릅나무 구멍은 ~ 와서 뒹진다오” : [ ]가 던진 질문에 대한 [ ]의 대답 - [ ]법

▷ 제비를 통해 인간 사회를 [ ]적으로 풍자

⇒ 황새, 뱀 : [ ]을 괴롭히는 포악한 [ ]자

⇒ 뒹진다오 : [ ]의 세태를 우의적으로 풍자

자기학습용

## 정철 「사미인곡」

### 1

### 작품 분석

이몸 ①삼기실 제 ②님을 ③조차 삼기시니  
 ④흐생 ⑤연분(緣分)이며 ⑥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⑦흐나 ⑧점어 잇고 님 ⑨하나 날 ⑩괴시니  
 이 막음 이 스랑 ⑩견줄 덕 ⑪노여 업다.

▶ 서사 1 : 임과의 연분 - 이별의 정한(情恨)

- ① 삼기실  
⇒ 삼기다 : 다, 다
- ② 님  
⇒
- ③ 조차  
⇒ , 좇아
- ④ 흐생  
⇒ 한평생,
- ⑤ 연분  
⇒ (부부의)연분
- ⑥ 하늘 모를 일이런가  
⇒ (어찌)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 하늘이 아는 연분(천생연분)이다 - 법
- ⑦ 흐나  
⇒ 오직
- ⑧ 점어 잇고  
⇒ (님을 위해) 젊어 잇고
- ⑨ 괴시니  
⇒ 괴다, 고되다 : 하다
- ⑩ 견줄 덕  
⇒ 견줄 데가
- ⑪ 노여  
⇒ 전혀

평생(平生)에 원(願)하오되 ①흔덕 ②네자 하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③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전(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④더덕 엇디하야 ⑤하계(下界)에 내려오니.  
 ⑥올 저귀 비슨 머리 얼키연디 삼 년이라.  
 ⑦연지분 잇너 마는 ⑧놀 위하야 고이 흘고.

막음의 ⑨딛친 ⑩실음 첩첩(疊疊)이 ⑪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⑫디느니 눈물이라.  
 인생(人生)은 유한(有限)흔덕 시름도 그지업다.

▶ 서사 2 : 임과의 연분 - 무심한 세월

- ① 흔덕  
⇒ 함께, 한 곳에
- ② 네자  
⇒ 지내자, 살아가자
- ③ 외오  
⇒ 외따로, 게
- ④ 더덕  
⇒ 에
- ⑤ 하계(下界)  
⇒ 에
- ⑥ 올 저귀 비슨 머리 얼키연디 삼 년이라  
⇒ 저귀 비슨 : 적의 빛은 - 적기  
⇒ 얼키연디 : 얽힌 지  
⇒ 올 저귀 ~ 삼 년이라 : 한지 삼 년이다
- ⑦ 연지분  
⇒ 품
- ⑧ 놀 위하야 고이 흘고  
⇒ 놀 : 누 + ㄹ (격 조사)  
⇒ 고이 : 곱게
- ⑨ 딛친  
⇒ 매친 : 맏힌 - 적기
- ⑩ 실음  
⇒ 시름 : 적기
- ⑪ 빠혀 이셔  
⇒ 싸혀 이셔 : 쌓여 있어 - 적기
- ⑫ 디느니  
⇒ 지느니 : 지는 것이 - 화 적용되지 않음

①무심(無心)흔 세월(歲月)은 ②물흐르듯 흐논고야.  
 ③염량(炎涼)이 썰를 ④아라 ⑤가논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⑥늦길 일도 ⑦하도 할샤.

▶ 서사 3 : 임과의 연분

- ① 무심(無心)흔  
⇒ 무정한
- ② 물흐르듯 흐논고야  
⇒  지나가는 구나
- ③ 염량(炎涼)  
⇒ 더위와 추위 : 계절의
- ④ 아라

⇒ 알아 : 적기

⑤ 가는 듯 고터 오니

⇒ 고터 : 고쳐  - 화 적용되지 않음

⇒ 가는 듯 고터 오니 : 지나가자마자 곧 다시 돌아오니.

⑥ 늦길 일

⇒ 느낄 일 :  일

⑦ 하도 할샤

⇒ 많기도 많구나 : 하다 - 다, 다

동풍(東風)이 건듯 ①부러 ②적설(積雪)을 ③헤터 내니  
 창(窓)④बाट기 심근 ⑤매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⑥갓득 냉담(冷淡)흔터 암향(暗香)은 므스일고.  
 황혼의 돌이 ⑦조차 ⑧벼마턱 빗최니  
 ⑨늦기논 듯 반기논 듯 ⑩님이신가 아니신가.  
 여 매화 ⑪것거 내여 ⑫님 겨신터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본사 1 : 춘원(春怨)-1

① 부러

⇒ 불어 : 적기

② 적설(積雪)

⇒ 쌓인 눈

③ 헤터

⇒ 헤쳐 : 화 적용되지 않음

④ बात기

⇒ बात의 : बात의

⑤ 매화

⇒ 작자의 ,

⑥ 갓득 냉담(冷淡)흔터 암향(暗香)은 므스일고

⇒ 갓득 : 가뜩이나

⇒ 냉담흔터 : 쌀쌀하고 적막한데

⇒ 암향 : 의 그윽한 향기

⇒ 갓득 냉담흔터 암향은 므스일고 : 마치 지만  
()를 가진 나와 같구나

⑦ 조차

⇒ 좇아 : 따라 - 적기

⑧ 벼마턱

⇒ 베갯머리

⑨ 늦기논 듯 반기논 듯

⇒ 흐느껴 우는 듯, 반기는 듯도 하니

⑩ 님이신가 아니신가

⇒ (저 달이 바로) 임이신가 아니신가?

⑪ 것거

⇒ 꺾어 : 꺾어 - 꺾어

⑫ 님 겨신터 보내오져

⇒ 님 겨신 곳에 보내고 싶다 : 이유 - 임금에게 자신의

와 를 표현하기 위해

꽃 ①디고 ②새닙 나니 ③녹음(綠陰)이 실렸논터  
 ④나위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뷔여 있다.  
 ⑤부용(芙蓉)을 ⑥거더 노코 ⑦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⑧갓득 시름 한터 날은 엇디 기뻐던고.  
 ⑨원앙금(鴛鴦錦) ⑩버혀 노코 오색선(五色線) 플터내여  
 ⑪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⑫수품(手品)은 카니와 제도(制度)도 꺾줄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⑬우히 백옥함(白玉函)의 ⑭다마 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겨신터 브라보니  
 ⑮산(山)인가 ⑯구름인가 ⑰머흐도 머흘시고.  
 ⑱천리만리 길흘 뉘라셔 차자갈고.  
 ⑳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 본사 2 : 춘원(春怨)-2

① 디고

⇒ 지고 - 화 적용되지 않음

② 새닙

⇒ 새잎 - 법칙 적용되지 않음

③ 녹음(綠陰)

⇒ 감을 드러내는 소재

④ 나위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뷔여 있다

⇒ 나위 : 비단 포장

⇒ 적막하고 : 쓸쓸히 걸려 있고

⇒ 수막 : 수놓은 장막(둘러치는 막)

⇒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뷔여 있다 : 음

⑤ 부용(芙蓉)

⇒ 연꽃을 수놓은 비단 장막

⑥ 거더 노코

⇒ 걸어 놓고 : 적기

⑦ 공작(孔雀)

⇒ 공작을 수놓은 병풍

⑧ 갓득 시름 한터 날은 엇디 기뻐던고

⇒ 갓득 : 가뜩이나

⇒ 한터 : 많은데 - 하다 : 다, 다

⇒ 기뻐던고 : 길던가

⑨ 원앙금(鴛鴦錦)

⇒ 원앙을 수놓은 비단

⑩ 버혀

⇒ 어

⑪ 금자히 견화이셔

⇒ 금자(자)로 재어서

⑫ 수품(手品)은 카니와 제도(制度)도 꺾줄시고

- ⇒ 수품 : (옷을 짓는)
- ⇒ 카니와 : 물론이거니와
- ⇒ 제도 : (옷의)
- ⇒ 마줄시고 : 갖추었구나
- ⇒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마줄시고 : 정철 자신의 을 은연중에 내비침
- ⑬ 우희
  - ⇒ 에
- ⑭ 다마
  - ⇒ 답아 : 적기
- ⑮ 산(山) / ⑮ 구름
  - ⇒ 님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 , 장애물
- ⑯ 머흐도 머흘시고
  - ⇒ 험하기도 험하구나
- ⑰ 천리만리 길
  - ⇒ 님과 화자와의 적 거리감
- ⑱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 ⇒ 가거든 (백옥함)을 열어 두고 나를 본 듯이 반기실까? : 님이 화자를 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

① 흐릿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날 제  
 ②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③ 수정렴(水晶簾)을 거든마리  
 동산(東山)의 ④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④ 별이 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⑤ 청광(淸光)을 취여 내여 ⑥ 봉황루(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⑦ 우희 ⑧ 거러 두고 ⑨ 팔황(八荒)의 다 비취여  
 ⑩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나트티 땡그소서.

▶ 본사 3 : 추원(秋怨)

- ① 흐릿밤 서리김의
  - ⇒ 흐릿밤 : 하룻밤
  - ⇒ 서리김의 : 서리 내릴 무렵에
- ② 위루(危樓)
  - ⇒ 높다란 누각
- ③ 수정렴(水晶簾)을 거든마리
  - ⇒ 수정렴 : 수정으로 만든 발
  - ⇒ 거든마리 : 걸으니
- ④ 돌 / ④ 별
  - ⇒ ''을 상징
- ⑤ 청광(淸光)
  - ⇒ 달과 별의 맑은 빛, 달과 별의 맑은
- ⑥ 봉황루의 붓티고져
  - ⇒ 에 부치고(보내고) 싶구나
- ⑦ 우희
  - ⇒ 에

- ⑧ 거러
  - ⇒ 걸어 : 적기
- ⑨ 팔황(八荒)의 다 비취여
  - ⇒ (청광을) 에 다 비취어
- ⑩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나트티 땡그소서
  - ⇒ 심산궁곡 : 산간벽지, 두메 산골
  - ⇒ 점나트티 : 같이
  - ⇒ 땡그소서 : 만드소서
  - ⇒ 심산궁곡 점나트티 땡그소서 : 으로 분분한 조정을 하며  정치를 갈망 - 의 소망

① 소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② 옥루(玉樓) 고처(高處)야 ③ 더욱 닐러 므슁허리  
 ④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디 쏘이고져.  
 ⑤ 모침 비친 히를 옥루(玉樓)의 올리고져.  
 ⑥ 홍상(紅裳)을 니의 츠고 취수(翠袖)를 반(半)만 거더  
 ⑦ 일모수죽(日暮脩竹)의 ⑧ 험가림도 ⑨ 하도 할샤  
 ⑩ 다른 히 ⑪ 수이 ⑫ 디여 긴 밤을 ⑬ 고초 ⑭ 안자  
 청등(淸燈) 거른 것티 ⑮ 전공후 ⑯ 노한 두고  
 ⑰ 꿈의나 님을 보려 ⑱ 퉁땡고 비겨시니  
 ⑲ 양금(鸞衾)도 츄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쉐고

▶ 본사 4 : <동원(冬怨)>

- ① 소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 ⇒ 소상남반 : 소상강의 남쪽 - 화자가 있는 전라도 창평
  - ⇒ 치오미 : 가
  - ⇒ 이러커든 : 이러한데, 이렇게 추운데
- ② 옥루(玉樓) 고처(高處)
  - ⇒ 백옥루, 옥황상제가 있다는 곳 : 이 계신 곳
- ③ 더욱 닐러 므슁허리
  - ⇒ 더욱 말해 무엇하겠는가 : 많이 을 것이다 - 법
- ④ 양춘(陽春)
  - ⇒ 따뜻한 기운
- ⑤ 모침 비친 히
  - ⇒ 초가집 처마에 비친
- ⑥ 홍상(紅裳)을 니의 츠고 취수(翠袖)를 반(半)만 거더
  - ⇒ 홍상 : 붉은 치마 - 화자가 임
  - ⇒ 니의 츠고 : 여며 입고
  - ⇒ 취수 : 푸른 소매
  - ⇒ 거더 : 걸어 - 적기
- ⑦ 일모수죽(日暮脩竹)
  - ⇒ 해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기대어 서서)
- ⑧ 험가림

- ⇒ 헤다, 헤다 : 하다, 하다
- ⑨ 하도 할샤
  - ⇒ 많기도 많구나 : 하다 - 다, 다
- ⑩ 다른
  - ⇒ 짧은
- ⑪ 수이
  - ⇒ 쉬이, 얼른
- ⑫ 디여
  - ⇒ 지어, 떨어져 : 화 적용되지 않음
- ⑬ 고초
  - ⇒ 곳곳이
- ⑭ 안자
  - ⇒ 앉아 : 적기
- ⑮ 전공후
  - ⇒ 자개로 장식한 공후라는 현악기
- ⑯ 노하
  - ⇒ 놓아 : 적기
- ⑰ 쑤
  - ⇒ 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
- ⑱ 퍽밧고 비겨시니
  - ⇒ 퍽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 ⑲ 양금(鸞禽)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셤고
  - ⇒ 절실한 음

- ⑥ 편작(扁鵲)
  - ⇒ 중국 춘추 시대의 유명한
- ⑦ 타시로다
  - ⇒ 탓이로다 : 적기
- ⑧ 출하리
  - ⇒ 차라리
- ⑨ 식어디여
  - ⇒ 져서, 없어져서
- ⑩ 간딧족족 안니다가
  - ⇒ 가는 곳마다 앉아 있다가
- ⑪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 ⇒ 향 : 향기 - 임금에 대한 심
  - ⇒ 므든 : 묻은 - 적기
  - ⇒ 놀애 : 날개
  - ⇒ 오식 올므리라 : 옷에 옮으리라 - 적기
  - ⇒ 향 므든 ~ 오식 올므리라 : 님에게 화자의 심을 보여드리리라
- ⑫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츰려 흐노라
  - ⇒ 임이야 (그 호랑나비가) 나인 줄 모르시더라도 나는 끝 내 입을 따르려 하노라 : 의 경

① 하루도 열두 새 흥 들도 설흔 날  
 ② 저근덧 싱각마라 이 시름 ③ 닛자 흥니  
 막옴의 ④ 퍽쳐 이셔 ⑤ 골수(骨髓)의 켜터시니  
 ⑥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⑦ 타시로다.  
 ⑧ 출하리 ⑨ 식어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⑩ 간딧족족 안니다가  
 ⑪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⑫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츰려 흐노라

▶ 결사

- ① 하루도 열두 새 흥 들도 설흔 날
  - ⇒ 하루도 열두 때 한달도 서른 날 : 하루 종일 한달 내내
- ② 저근덧 싱각마라
  - ⇒ 잠깐 동안(이라도) (임)생각을 말아서
- ③ 닛자 흥니
  - ⇒ 잇자 하니 : 법칙 적용되지 않음
- ④ 퍽쳐 이셔
  - ⇒ 맏혀 잇어 : 적기
- ⑤ 골수(骨髓)의 켜터시니
  - ⇒ 뻗속까지 사무쳐 있으니.

자기학습용

### 정학유 「농가월령가」

#### 1

#### 작품 분석

①천지(天地) 조판(肇判)하매 일월성신(日月星辰) 비최거다  
 ②일월(日月)은 도수(度數)있고 성신(星辰)은 전차(轉次)있어  
 일년 삼백 육십일에 제 도수(度數) 돌아오매  
 동지(冬至) 하지(夏至) 춘추분(春秋分)은 ③일행(日行)을 추측(推測)하고  
 ④상현(上弦) 하현(下弦) 망회삭(望晦朔)은 월륜(月輪)의 영휴(盈虧)로다  
 ⑤대지상(大地上) 동서남북(東西南北) 곳을 따라 틀리기로  
 북극(北極)을 ⑥보림히야 원근(遠近)을 마련하니  
 이십사(二十四) ⑦절후(節候)를 십이삭(十二朔)에 분별(分別)하여  
 ⑧매삭(每朔)에 두 절후(節候)가 일망(一望)이 사이로다  
 ▶ 24절기가 마련됨

- ① 천지 조판하매 일월성신 비최거다
  - ⇒ 조판 : 창조
  - ⇒ 일월성신 : 해, 달, 별
- ② 일월은 도수있고 성신은 전차있어
  - ⇒ 도수 :
  - ⇒ 전차 : 순서
- ③ 일행
  - ⇒ 의 움직임
- ④ 상현 하현 망회삭은 월륜의 영휴로다
  - ⇒ 상현 :
  - ⇒ 하현 :
  - ⇒ 망회삭 : 초승
  - ⇒ 월륜 : 달
  - ⇒ 영휴 : 차고 기움
- ⑤ 대지상
  - ⇒ 대지 위
- ⑥ 보림히야
  - ⇒ 기준하여
- ⑦ 절후를 십이삭에 분별하여

- ⇒ 절후 :
- ⇒ 십이삭 : 개월
- ⇒ 분별하여 : 나누어
- ⑧ 매삭에 두 절후가 일망이 사이로다
  - ⇒ 매삭 :
  - ⇒ 일망 :

정월(正月)은 ①맹춘(孟春)이라 입춘(立春) 우수(雨水) 절기(節氣)로다  
 산중(山中) ②간학(澗壑)에 빙설(氷雪)은 남았으나  
 ③평교(平郊) 광야(廣野)에 운물(雲物)이 변(變)하도다  
 어와! ④우리 성상(聖上) 애민중농(愛民中農)하오시니  
 ⑤간측(懇惻)하신 권농윤음(勸農綸音) 방곡(坊曲)에 반포(頒布)하니  
 슬프다! 농부(農夫)들아! 아무리 무지(無知)한들  
 네 몸 이해(利害) ⑥고사(姑捨)하고 성의(聖意)를 어길소냐  
 ⑦산전(山田) 수답(水畓) 상반(相半)하여 힘대로 하오리라  
 일년(一年) ⑧풍흉(豐凶)은 측량(測量)하지 못하여도  
 ⑨인력(人力)이 극진(極盡)하면 천재(天災)를 면(免)하니  
 제 각각 ⑩권면(勸勉)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 농사일의 권면

- ① 맹춘
  - ⇒ 초봄
- ② 간학
  - ⇒ 산골짜기의 시냇물
- ③ 평교 광야에 운물이 변하도다
  - ⇒ 평교 광야 : 평평한 들판
  - ⇒ 운물 :
  - ⇒ 변하도다 : 이 지나고 이 오기 때문
- ④ 우리 성상 애민중농하오시니
  - ⇒ 성상 :
  - ⇒ 애민중농 : 을 사랑하고 를 중하게 여기시니
- ⑤ 간측하신 권농윤음 방곡에 반포하니
  - ⇒ 간측 : 간절
  - ⇒ 권농윤음 : 를 권하는 말씀
  - ⇒ 방곡 : 전국
  - ⇒ 반포하니 : 널리 알리시니
- ⑥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소냐
  - ⇒ 고사 : 고집
  - ⇒ 성의 : 의 뜻



⇒ 어길소냐 : 어기면 안 된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⑦ 산전 수답 상반하여 힘대로 하오리라

⇒ 산전 : 밭

⇒ 수답 : 논

⇒ 상반하여 : 서로 나누어

⑧ 풍흉(豊凶)은 측량(測量)하지

⇒ 풍흉 : 과 은

⇒ 측량하지 : 헤아리지

⑨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하니

⇒ 사람의 에 따라 천재(흥년)은 면할 수 있다  
: 적 가치관

⑩ 권면(勸勉)하여

⇒ 부지런히 권하여

①일년지계(一年之計) 재춘(在春)하니 범사(凡事)를 미리 하라.

봄에 만일 ②실시(失時)하면 종년(終年) 일이 낭패되네.

농지(農地)를 다스리고 농우(農牛)를 살피 먹여,

③직거름 직와 노코 일변(一邊)으로 시러 너여,

④맥전(麥田)의 오줌뉘기 세전(歲前)보다 힘써 하소.

⑤늙으니 근력(筋力) 업고 힘든 일은 못 하야도,

낫이면 이영 녀고 밤의논 식기 쏘야,

적 맞추 집 니우니 큰 근심 더러도다.

⑥실과(實果) 나모 벚꽃 짜고 가지 스이 돌 끼오기

⑦정조(正朝)날 미명시(未明時)의 시험(試驗)조로 하야 보소.

⑧며나리 닛디 말고 송국주(松菊酒) 멏혀라.

⑨삼춘(三春) 백화시(百花時)의 화전 일취(花煎一醉) 하야 보즈.

▶ 정월에 해야할 농사 준비

① 일년지계 재춘하니 범사를 미리 하라

⇒ 일년지계 : 일년의

⇒ 재춘하니 : 에 있으니 범사 : 모든 일, 농사 일

② 실시하면 종년

⇒ 실시하면 : 를 놓치면

⇒ 종년 : 연말

③ 직거름 직와 노코 일변으로 시러 너여

⇒ 직거름 : 새로 만든

⇒ 직와 노코 : 만들어 놓고

⇒ 일변으로 : 한편(쪽)으로

④ 맥전의 오줌뉘기 세전보다 힘써 하소.

⇒ 맥전 : 보리밭

⇒ 오줌뉘기 : 오줌 누기,  주기

⇒ 세전 : 설 전

⑤ 늙으니 근력 업고 힘든 일은 못 하야도 / 낫이면 이영 녀고 밤의논 식기 쏘야 / 적 맞추 집 니우니 큰 근심 더러도다

⇒ 에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에 참여하는 모습

⑥ 실과 나모 벚꽃 짜고 가지 스이 돌 끼오기

⇒ 실과 : 과일

⇒ 벚꽃 짜고 : 꽃 따고 - 벌레 방지

⑦ 정조날 미명시의 시험조로 하야 보소

⇒ 정조날 : 정월 초하루

⇒ 미명시 : 날이 밝기 전 -

⑧ 며나리 닛디 말고 송국주 멏혀라

⇒ 며느리야 잊지 말고 송국주(술)를 걸러라

⇒ 닛디 : 잇디 - 잊지 - 잊지

▷ 표기 방식 : 적기

⑨ 삼춘 백화시의 화전 일취 하야 보즈

⇒ 삼춘 백화시 : 춘삼월 꽃이 만발할 때

⇒ 화전 일취 : 화전 놀이에 빠져 보자

①정조(正朝)에 세배(歲拜)함은 돈후(敦厚)한 풍속(風俗)이다.

②새 의복(衣服) 떨쳐 입고 친척(親戚) 인리(隣里) 서로 찾아

노소(老少) 남녀(男女) 아동(兒童)까지 삼삼오오(三三五五) 다닐 적에

③와삭 버석 울긋 불긋 물상(物象)이 변화(繁華)하다

④사내아이 연 띄우고 계집아이 널 뛰기요

울놀아 내기하기 소년(少年)들 놀이로다

⑤사당(祠堂)에 세알(歲謁)하니 병탕(餅湯)에 주과(酒果)로다

▶ 설날 풍속

① 정조에 세배함은 돈후한 풍속이다

⇒ 정조 :  아침

⇒ 돈후한 : 이 두터운

② 새 의복 떨쳐 입고 친척 인리 서로 찾아

⇒ 새 의복 : 설빔

⇒ 인리 : 이웃

③ 와삭 버석 울긋 불긋 물상이 변화하다

⇒ 와삭 버석 : 새 옷에서 나는 소리

▷ 의성어의 사용 : 적 심상

⇒ 울긋 불긋 : 새 옷에 다양한 울긋불긋한 색깔

▷ 색깔 표현 사용 : 적 심상

⇒ 물상 : 모습

⇒ 변화하다 : 변창하고 [ ]하다

④ 사내아이 연 띄우고 계집아이 널 뛰기요 / 율놀아 내기하  
기 소년들 놀이로다

⇒ 설날 아이들의 놀이

▷ 사내아이 : [ ] 띄우기

▷ 계집아이 : [ ]뛰기

▷ 어린아이들 : [ ]놀이

⑤ 사당에 세알하니 병당에 주과로다

⇒ 사당 : 조상을 모신 곳

⇒ 세알 : [ ]

⇒ 병당 : 떡국

보름날 약밥 제도(制度) 신라(新羅)적 풍속(風俗)이라

①묵은 산채(山菜) 삶아 내니 육미(肉味)를 바꿀쏘나

귀 밝히는 약술이며 부름 식는 생울(生粟)이라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②화불허기

흘러오는 풍속(風俗)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 정월 대보름의 풍속

① 묵은 산채 삶아 내니 육미를 바꿀쏘나

⇒ 산채 : 산나물

⇒ 육미 : 고기맛

⇒ 바꿀쏘나 : 바꾸지 않겠다

▷ 묵은 산나물을 삶아 내니 고기맛과 바꾸지 않을 정도로  
맛있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② 화불허기

⇒ 쥐불놀이

팔월이라 ①중추(仲秋)되니 백로(白露) 추분 절기로다

북두성(北斗星) ②자로 도라 서편(西便)을 가락치니,

선선헌 ③조석 괴운 추의(秋意)가 완연하다.

④귀쪼람이 말근 소리 벽간(壁間)에 들거고나.

아참에 안기 끼고 밤이면 이슬 느껴,

백곡(百穀)을 ⑤성실하고 여물 드러 고지 숙어

서풍(西風)에 익는 빗춘 ⑥황운(黃雲)이 이른다.

▶ 8월의 들판 풍경

① 중추되니 백로 추분 절기로다

⇒ 중추 : 한 가을

⇒ 백로 : [ ]이 내리는 절기

② 자로 도라

⇒ [ ] 돌아서

③ 조석 괴운 추의가 완연하다.

⇒ 조석 : 아침 저녁

⇒ 추의 : [ ] 뜻

④ 귀쪼람이 말근 소리 벽간에 들거고나

⇒ 귀쪼람이 : 귀뚜람이 - 귀뚜라미

⇒ 말근 : 맑은 - 표기 방식 : [ ] 적기

⇒ 벽간 : 벽 사이

⑤ 성실하고 여물 드러

⇒ 성실하고 : 여물게 하고

⇒ 여물 드러 : 알이 차서

⑥ 황운

⇒ 누렇게 익은 [ ]

① 백설 갖든 면화송이 산호 갖든 고초 다릭

첨아에 너러시니 가을뵈 명낭하다.

안팍 마당 닥가 노코 발치 망구 작만호쇼.

면화 썩는 다락기에 수수 이삭, 콩가지오.

나무꾼 도라올 제 머루 다릭 산과(山果)로다.

뒤동산 밤디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② 알암 모화 말이어라 철 띠여 쓰게 호쇼.

명지를 ③ 스허 내여 추양(秋陽)에 마전호고.

④ 쪽 디리고 잇 디리니 청홍(靑紅)이 식식이라.

부모님 ⑤ 연만(年晩)호니 슈의(囚衣)를 유의호고,

그 ⑥ 남아 마루직아 주녀의 혼슈(婚需)호세.

▶ 가을의 곡식과 과일, 면화

① 백설 갖든 면화송이 산호 갖든 고초 다릭 / 첨아에 너러시  
니 가을뵈 명낭하다 / 안팍 마당 닥가 노코 발치 망구 작  
만호쇼 / 면화 썩는 다락기에 수수 이삭, 콩가지오 / 나무  
꾼 도라올 제 머루 다릭 산과로다

⇒ 다릭 : 열매

⇒ 첨아 : 처마 - 표기 방식 : [ ] 적기

⇒ 명낭하다 : 밝고 환하다

⇒ 발치 망구 : 수확한 곡식을 담은 그릇

⇒ 백설 갖든 ~ 다릭 산과로다 : [ ]로운 가을

② 알암 모화 말이어라 철 띠여 쓰게 호쇼

⇒ 알암 : 알밤

⇒ 말이어라 : 말리어라

⇒ 철 : [ ]철

③ 스허 내여 추양에 마전호고

⇒ 스허 : 끈허 - [ ]

⇒ 추양 : 가을 [ ]

⇒ 마전호고 : 말리고

④ 쪽 디리고 잇 디리니

⇒ 쪽 : 남빛 - [ ]적 심상

⇒ 디리고 : 드리고 - [ ]고

▷ 표기 방식 : [ ] 적기

⇒ 잇 : 붉은 빛 - [ ]적 심상

- ⑤ 연만하니 슈의를 유의하고
  - ⇒ 연만하니 : 가 많으니
  - ⇒ 슈의 : 수의 - 죽을 때 입는 옷
  - ⇒ 유의하고 : 준비하고
- ⑥ 남아 마루지아
  - ⇒ 남아 : 나머지
  - ⇒ 마루지아 : 재단하여

①집 우회 곳은 박은 요긴한 기명(器皿)이라.  
 ②뒹스리 뷔를 띠아 마당질의 쓰오리라.  
 참깨 들찌 거둔 후의 ③중오려 타작하고,  
 ④담비 줄 녹두 말을 아쇠야 작전(作錢)하라.  
 장 구경도 화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쇼.  
 ⑤북어괘 젓조기를 추석 명일 쇠아 보세.  
 ⑥신도주(新稻酒) 오려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先山)의 ⑦제물하고 이웃집 눈화 먹시.

▶ 추수와 추석 쇠기

- ① 집 우회 곳은 박은 요긴한 기명이라
  - ⇒ 우회 : 에
  - ⇒ 기명 : 그릇
- ② 뒹스리 뷔를 띠아 마당질의 쓰오리라
  - ⇒ 뒹스리 : 띠짜리 - 대싸리(나무)
  - ⇒ 뷔 : 빗자루
  - ⇒ 마당질 :
- ③ 중오려 타작하고
  - ⇒ 중오려 : 조생종 벼
  - ⇒ 타작 :
- ④ 담비 줄 녹두 말을 아쇠야 작전하라
  - ⇒ 담비 줄 녹두 말 : 담배와 녹두를 (팔아서)
  - ⇒ 아쇠야 작전하라 : 아쉬운대로 돈을 만들자
- ⑤ 북어괘 젓조기를 추석 명일 쇠아 보세
  - ⇒ 북어괘 젓조기 : 북어와 조기젓
  - ⇒ 명일 :
- ⑥ 신도주 오려송편
  - ⇒ 신도주 : 햅쌀로 지은
  - ⇒ 오려 송편 : 올벼 송편
- ⑦ 제물하고 이웃집 눈화 먹시
  - ⇒ 제물하고 : 지내고
  - ⇒ 이웃집 눈화 먹시 : 음복

며느리 ①말의 바다 본집에 근친(近親) 갈 제,  
 ②기 잡아 살마 건져 썩고리와 술병이라.  
 초록 장옷 반물 치마 ③장숙(漿束)하고 다시 보니,  
 ④여름지어 지친 얼굴 쇼복(蘇復)이 되었느냐.

⑤중추야 붉은 달에 지기(志氣) 펴고 놓고 오쇼.

▶ 며느리의 친정 근친

- ① 말의 바다 본집에 근친 갈 제,
  - ⇒ 말의 : 휴가
  - ⇒ 바다 : 받아
  - ▶ 표기 방식 :  적기
  - ⇒ 근친 :
- ② 기 잡아 살마 건져 썩고리와 술병이라
  - ⇒ 친정집에 선물로 보내는
- ③ 장숙하고
  - ⇒ 차려입고
- ④ 여름지어 지친 얼굴 쇼복이 되었느냐
  - ⇒ 여름 :
  - ⇒ 쇼복 : 원기 회복
  - ⇒ 옷을 차려 입고 보니 농사에 지친 얼굴이 원기 회복이 되다 : 옷이 다
- ⑤ 중추야 붉은 달에 지기 펴고 놓고 오쇼
  - ⇒ 중추야 : 한 가을
  - ⇒ 지기 펴고 : 마음 놓고

금년 훔 일 못 다하나 ①망년 계교(計較) 호오리라.  
 ②밀지 뷔여 더운가리 모릭(牟麥)을 추경(秋耕)하시.  
 ③쫂쓰치 못 닉어도 급흔 대로 짓고 갈쇼.  
 ④인공(人功)만 그러홀가 텨시(天時)도 이러하니,  
 반각(半刻)도 썩 썩 업시 맞츠며 시작느니

▶ 밀과 보리의 추경

- ① 망년 계교
  - ⇒ 지난 해의
- ② 밀지 뷔여 더운가리 모릭을 추경하시
  - ⇒ 밀지 : 풀 이름
  - ⇒ 더운가리 : 소낙비에 눈을 갈고
  - ⇒ 모릭을 추경하시 : 과 를 가세
- ③ 쫂쓰치 못 닉어도
  - ⇒ 쫂쓰치 : 끝까지
  - ⇒ 닉어도 : 익어도
- ④ 인공만 그러홀가 텨시도 이러하니 / 반각도 썩 썩 업시 맞츠며 시작느니
  - ⇒ 인공 : 의 일
  - ⇒ 텨시 : 천시 - 의 이치
  - ⇒ 반각 : 잠시
  - ⇒ 인공만 그러홀가 ~ 맞츠며 시작느니 : 사람의 일도 하늘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잠시도  사이 없이 끊임없이 일이 된다

자기학습용

# 주세붕 「오륜가」

## 1 작품 분석

① 사름 사름마다 이 말습 드러스라.  
 ② 이 말습 아니면 사름이오 사름 아니니 이 말습 ③ 닛디 말오 빅호고야 마로리이다.  
 ▶ 서사 : 삼강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

- ① 사름 사름마다 이 말습 드러스라.  
 ⇨ 사름 : 백성, [ ]의 대상  
 ⇨ 이 말습 : [ ]  
 ⇨ 드러스라 : [ ]형(백성 [ ]가 목적)
- ② 이 말습 아니면 사름이오 사름 아니니  
 ⇨ 이 말습 : [ ]  
 ⇨ 사름이오 : 일반 사람  
 ⇨ 사름 : [ ]을 갖춘 사람
- ③ 닛디 말오 빅호고야  
 ⇨ 닛디 : 잊지  
 ⇨ 빅호고야 : 배우고야

아바님 날 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② 부모(父母)웃 아니시면 내 모미 업슬랏다.  
 ③ 이 덕을 갑프려 하니 하눌 꺾이 업스샏다.  
 ▶ 부자유친(父子有親) :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 ① 나흐시고  
 ⇨ 나흐시고 : 나흐시고 - 낱으시고  
 ▶ 표기 방식 : [ ] 적기
- ② 부모(父母)웃 아니시면 내 모미 업슬랏다  
 ⇨ 부모에게 [ ]해야 하는 이유 : 부모로 인해 내가 태어나고 자람
- ③ 이 덕을 갑프려 하니 하눌 꺾이 업스샏다  
 ⇨ 이 덕 : 날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한 덕  
 ⇨ 갑프려 : 끊으려  
 ▶ 표기 방식 : [ ] 적기  
 ⇨ 꺾이 : [ ]이

① 동과 향것과를 뒤라셔 삼기신고.  
 ② 벌과 가여미사 이 뜰들 몬져 아니.  
 ③ 혼 막스매 두 뜰 업시 속이지나 마옵새이다.

▶ 군신유의(君臣有義) : 윗 사람에 대한 아랫 사람의 도리

- ① 동과 향것과를 뒤라셔 삼기신고  
 ⇨ 동과 향것 : 종과 상전 - [ ]와 [ ]  
 ⇨ 삼기다 : [ ]다, [ ]다
- ② 벌과 가여미사 이 뜰들 몬져 아니  
 ⇨ 가여미 : 개미  
 ⇨ 뜰들 : 종과 상전을 생기게 한 뜻
- ③ 혼 막스매 두 뜰 업시 속이지나 마옵새이다.  
 ⇨ 혼 막스매 두 뜰 : 한 마음에 두 뜻 -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 ]와 [ ]를 강조

① 지아비 받 갈라 간 덕 밥고리 이고 가,  
 ② 반상을 들오덕 눈썹의 마초이다.  
 ③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 부부유별(夫婦有別) :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

- ① 지아비 받 갈라 간 덕 밥고리 이고 가  
 ⇨ 지아비 : [ ]  
 ⇨ 밥고리 : 밥 광주리
- ② 반상을 들오덕 눈썹의 마초이다.  
 ⇨ 반상 : 밥상  
 ⇨ 눈썹의 마초이다 : [ ] 들어 바칩니다
- ③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 손 : [ ]  
 ⇨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 ([ ]이) 친하면서도 고마우니 손님과 다르지 않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① 형(兄)님 자신 저줄 내 조쳐 머궁이다.  
 ②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스랑이아.  
 형제(兄弟)웃 불화(不和)하면 ③ 개 도티라 흐리라.  
 ▶ 형제우애(兄弟友愛) : 형제 간의 도리

- ① 형(兄)님 자신 저줄 내 조쳐 머궁이다  
 ⇨ 말하는 이 : [ ]  
 ⇨ 저줄 : 젖을  
 ⇨ 조쳐 머궁이다 : 따라 먹습니다
- ②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스랑이아  
 ⇨ 말하는 이 : [ ]  
 ⇨ 어마님 너 스랑이아 : 어머니의 [ ]이로다
- ③ 개 도티  
 ⇨ 개와 돼지

① 늘그니는 부모(父母)곤고 얼우논 형(兄)꺾트니,

② 곤퉁퉁 불공(不恭)하면 어둡가 다랴고.

③ 날료셔 꺾디어시든 절호고야 마로리이다.

▶ 장유유서(長幼有序) : 연장자에 대한 아랫사람의 도리

① 늘그니는 부모(父母)큰고 얼우논 형(兄)ㄴㅏㅓ니

⇒ 늘그니 : 늙은 이 -

⇒ 얼우논 : 은

② 곤퉁퉁 불공(不恭)하면 어둡가 다랴고

⇒ 곤퉁퉁 : 이 같은데

⇒ 불공하면 : 하지 않으면

⇒ 어둡가 다랴고 : (짐승과) 어둡가 다른가

▷ 짐승과 다르지 않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③ 날료셔 꺾디어시든 절호고야 마로리이다

⇒ 날료셔 : 나로서는

⇒ 꺾디어시든 : (노인과 어른을) 맞이하면

⇒ 마로리이다 : 말 것입니다

자기학습용

## 최명길 「춘설유감」

1

### 작품 분석

- ①이역에서 봄을 맞으나 봄인 줄 모르다가  
아침결에 ②눈송이 새로 날리는 것 놀라며 보네.  
③외물(外物)의 변화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지니  
④봄날의 기운은 분명히 이 몸에 있기에.

① 이역에서 봄을 맞으나 봄인 줄 모르다가

⇒ 이역 : 화자가 볼모로 잡혀간 청나라의 심양(우리나라보다 추운 지역)

⇒ 봄 : 「」 상의 '봄'

② 눈송이 새로 날리는 것 놀라며 보네.

⇒ 눈송이 : , 의 상황, 조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의미

⇒ 놀라며 보네 : 인데 눈이 오는 것에 놀람

③ 외물(外物)의 변화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지니

⇒ 현재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리지 않겠다는 내적 다짐

⇒ 적 표현을 통한 과 의 표명

④ 봄날의 기운은 분명히 이 몸에 있기에

⇒ 봄날의 기운 : 온갖 역경을 내고 오는 존재,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대'

⇒ 분명히 이 몸에 있기에 : 적 표현을 통한 과 의 표명

자기학습용

## 총담사 「안민가」

### 1

### 작품 분석

- ①군(君)은 아비요
- ②신(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 ③민(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신다면
- ④민(民)이 사랑을 알것입니다.  
구물거리며 ⑤살손 물생(物生)이
- ⑥이를 먹여 다스리어
- ⑦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 안이 보전(保全)할 것을 알 것입니다.
- 아아, ⑧군(君)답게 신(臣)답게 민(民)답게 한다면
- ⑨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 ① 군은 아비요  
⇒ 을 에 비유
- ② 신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 를 에 비유
- ③ 민은 어리석은 아이  
⇒ 을 에 비유
- ④ 민이 사랑을 알것입니다  
⇒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 : 군, 신, 민의 관계 - 주  
의
- ⑤ 살손 물생이  
⇒ 살손 : 살아가는  
⇒ 물생 : 백성
- ⑥ 이  
⇒ 군, 신의
- ⑦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 가정 : 들이 이야기한다면  
⇒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 주의
- ⑧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한다면  
⇒ 태평 성대를 이루기 위한 덕목 : 각자 에 충실
- ⑨ 나라가 태평  
⇒ 궁극적 점

자기학습용

### 한림제유 「한림별곡」

## 1 작품 분석

- ①元淳文(원순문) 仁老詩(인노시) 公老四六(공노스륙)
- ②李正言(니정언) 陳翰林(딘한림) 雙韻走筆(쌍운주필)
- ③靚基對策(통기딤척) 光鈞經義(광균경의) 良鏡詩賦(량경시부)
- ④위 試場(시당)사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 ⑤葉(엽) 琴學士(금혹스)의 玉筭門生(옥순문싱) 琴學士(금혹스)의 玉筭門生(옥순문싱)
- ⑥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 ▶ 제 1장 : 시부(詩賦) - 시인과 문장 예찬, 명문장 금의의 문하생 찬양

- ① 元淳文(원순문) 仁老詩(인노시) 公老四六(공노스륙)
  - ⇒ 원순문 : 유원순의
  - ⇒ 인노시 : 이인로의
  - ⇒ 공노스륙 : 이공로의 사륙병려문
- ② 李正言(니정언) 陳翰林(딘한림) 雙韻走筆(쌍운주필)
  - ⇒ 니정언 : 이규보
  - ⇒ 딘한림 : 진한림
  - ⇒ 쌍운주필 : 운을 맞추어 지은
- ③ 靚基對策(통기딤척) 光鈞經義(광균경의) 良鏡詩賦(량경시부)
  - ⇒ 통기딤척 : 류충기의 대책문
  - ⇒ 광균경의 : 민광균의  해석
  - ⇒ 량경시부 : 김양경의 와 부
- ④ 위 試場(시당)사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 ⇒ 위 시당사 경 : 아 시험장 모습
  - ⇒ 괴 엇더흐니잇고. : 그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 ⑤ 葉(엽) 琴學士(금혹스)의 玉筭門生(옥순문싱) 琴學士(금혹스)의 玉筭門生(옥순문싱)
  - ⇒ 엽 금혹스 : 학사 금의의
  - ⇒ 옥순문싱 : 죽순처럼 많은 들
- ⑥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 ⇒ 위 날조차 : 아 나까지
  - ⇒ 몇 부니잇고 : 몇 분입니까 - 가 매우 많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①唐漢書(당한서) 莊老子(장로즈) 韓柳文集(한류문집)
- ②李杜集(니두집) 蘭臺集(난딤집) 白樂天集(빅락뎃집)
- ③毛詩尙書(모시상서) 周易春秋(주역춘추) 周戴禮記(주딤례기)
- ④위 註(주)조쳐 내 외웁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 ⑤葉(엽) 大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卷(스빅여 권) 大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卷(스빅여 권)
- ⑥위 歷覽(력남)사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 ▶ 제 2장 : 서적(書籍) - 학문 수련과 독서에 대한 자금심 찬양

- ① 唐漢書(당한서) 莊老子(장로즈) 韓柳文集(한류문집)
  - ⇒ 당한서 : 당서 한서
  - ⇒ 장로즈 : 자, 자
  - ⇒ 한류문집 : 한유 유종원의
- ② 李杜集(니두집) 蘭臺集(난딤집) 白樂天集(빅락뎃집)
  - ⇒ 니두집 : 이백 두보의
  - ⇒ 난딤집 : 난대집
  - ⇒ 빅락뎃집 : 백거이의
- ③ 毛詩尙書(모시상서) 周易春秋(주역춘추) 周戴禮記(주딤례기)
  - ⇒ 모시상서 : 시경, 서경
  - ⇒ 주역춘추 : 주역, 춘추
  - ⇒ 주딤례기 : 대대례, 소대례
- ④ 위 註(주)조쳐 내 외웁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 ⇒ 위 주조쳐 : 아 주마져
  - ⇒ 내 외웁 경 : 내가  모습이
  - ⇒ 괴 엇더흐니잇고. : 그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 ⑤ 葉(엽) 大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卷(스빅여 권) 大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卷(스빅여 권)
  - ⇒ 엽 태평광기 스빅여 권 : 태평광기 사 백여 권
- ⑥ 위 歷覽(력남)사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 ⇒ 위 력남사 경 : 아, 두루  모습
  - ⇒ 괴 엇더흐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 정말 하다
  -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①眞卿書(진경서) 飛白書(비백서) 行書草書(형서초서)
- ②篆鵝書(뎨류서) 蝌蚪書(과두서) 虞書南書(우서남서)
- ③羊鬚筆(양슈필) 鼠鬚筆(슈슈필) 빗기 드러
- ④위 덕논사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 ⑤葉(엽) 吳生劉生(오싱류싱) 兩先生(량션싱)의 吳生劉生(오싱류싱) 兩先生(량션싱)의
- ⑥위 主筆(주필)사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 ▶ 제 3장 : 명필(名筆) - 유명 서체와 필기구 등 명필 찬양



- ① 眞卿書(진경서) 飛白書(비백서) 行書草書(행서초서)
  - ⇒ 진경서 : 필체 - 안진경체
  - ⇒ 비백서 : 필체 - 비백서
  - ⇒ 행서초서 : 필체 - 행서, 초서
- ② 篆鶴書(던류서) 蝌蚪書(과두서) 虞書南書(우서남서)
  - ⇒ 던류서 : 전서와 주서
  - ⇒ 과두서 : 과두체(고대 문자)
  - ⇒ 우서남서 : 우서와 남서체를
- ③ 羊鬚筆(양슈필) 鼠鬚筆(서슈필) 빗기 드러
  - ⇒ 양슈필 : 양털
  - ⇒ 서슈필 : 쥐털
  - ⇒ 빗기 드러 : 듬히 들어
- ④ 위 덕논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 위 덕논스 경 : 아 내려찍는 모습
  - ⇒ 과 멋더흐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 ⑤ 葉(엽) 吳生劉生(오싱류싱) 兩先生(량선싱)의 吳生劉生(오싱류싱) 兩先生(량선싱)의
  - ⇒ 엽 오싱류싱 량선싱 : 오생과 유생 두 선생
- ⑥ 위 主筆(주필)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 위 주필스 경 : 아,  놀리는 모습
  - ⇒ 과 멋더흐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 ① 黃金酒(황금주) 柏子酒(백즈주) 松酒醴酒(송주례주)
- ② 竹葉酒(죽엽주) 梨花酒(리화주) 五加皮酒(오가피주)
- ③ 鸚鵡盞(잉무잔) 琥珀盞(호박빈)에 ㄱ득 브어
- ④ 위 勸上(권상)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⑤ 葉(엽) 劉伶陶潛(유령도잠) 兩仙翁(량선옹)의 劉伶陶潛(유령도잠) 兩仙翁(량선옹)의
- ⑥ 위 攄軒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 제 4장 : 명주(名酒) - 귀족 계급의 주흥과 풍류 예찬

- ① 黃金酒(황금주) 柏子酒(백즈주) 松酒醴酒(송주례주)
  - ⇒ 황금주 : 황금주
  - ⇒ 백즈주 : 백자주
  - ⇒ 송주례주 : 송주, 예주
- ② 竹葉酒(죽엽주) 梨花酒(리화주) 五加皮酒(오가피주)
  - ⇒ 죽엽주 : 죽엽주
  - ⇒ 리화주 : 이화(배꽃)주
  - ⇒ 오가피주 : 오가피주
- ③ 鸚鵡盞(잉무잔) 琥珀盞(호박빈)에 ㄱ득 브어
  - ⇒ 잉무잔 : 앵무잔
  - ⇒ 호박빈에 : 호박잔에
  - ⇒ ㄱ득 브어 : 가득 부어
- ④ 위 勸上(권상)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 위 권상스 경 : 아 을 권하여 올리는 모습
  - ⇒ 과 멋더흐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 ⑤ 葉(엽) 劉伶陶潛(유령도잠) 兩仙翁(량선옹)의 劉伶陶潛(유령도잠) 兩仙翁(량선옹)의
  - ⇒ 엽 유령도잠 량선옹 : 유명, 도잠 두 선옹의
- ⑥ 위 攄軒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 위 攄軒스 경 : 아 한 모습
  - ⇒ 과 멋더흐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 ① 紅牡丹(홍모단) 白牡丹(백모단) 丁紅牡丹(딩홍모단)
- ② 紅芍藥(홍작약) 白芍藥(백작약) 丁紅芍藥(딩홍작약)
- ③ 御柳玉梅(어류옥미) 黃紫薔薇(황즈장미) 芷芝冬柏(지지동백)
- ④ 위 間發(간발)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⑤ 葉(엽) 合竹桃花(합죽도화) 고온 두분 合竹桃花(합죽도화) 고온 두분
- ⑥ 위 相映(상영)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 제 5장 : 화훼(花卉) - 온갖 꽃의 아름다움 예찬

- ① 紅牡丹(홍모단) 白牡丹(백모단) 丁紅牡丹(딩홍모단)
  - ⇒ 홍모단 : 분홍 모란
  - ⇒ 백모단 : 흰모란
  - ⇒ 덩홍모단 : 진분홍모란
- ② 紅芍藥(홍작약) 白芍藥(백작약) 丁紅芍藥(딩홍작약)
  - ⇒ 홍작약 : 분홍작약
  - ⇒ 백작약 : 흰작약
  - ⇒ 덩홍작약 : 진분홍작약
- ③ 御柳玉梅(어류옥미) 黃紫薔薇(황즈장미) 芷芝冬柏(지지동백)
  - ⇒ 어류옥미 : 석류, 매화
  - ⇒ 황즈장미 : 노란 장미, 자색 장미
  - ⇒ 지지동백 : 지지꽃, 동백꽃
- ④ 위 間發(간발)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 위 간발스 경 : 아 사이사이 이 핀 모습
  - ⇒ 과 멋더흐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 ⑤ 葉(엽) 合竹桃花(합죽도화) 고온 두분 合竹桃花(합죽도화) 고온 두분
  - ⇒ 엽 합죽도화 고온 두분 : 대나무 복사꽃처럼 어울리는 고온 두분
- ⑥ 위 相映(상영)스景(경) 과 멋더흐니잇고
  - ⇒ 위 상영스 경 : 아 서로 바라보는 모습
  - ⇒ 과 멋더흐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 ① 阿陽琴(아양금) 文卓笛(문탁덕) 宗武中琴(종무등금)
- ② 帶御香(더어향) 玉肌香(옥기향) 雙伽伽(쌍개야)스 고
- ③ 金善琵琶(금선비파) 宗智稽琴(종지희금) 薛原杖鼓(설원장고)

- ④ 위 過夜(과야)시 景(경) 이 었더하니잇고
- ⑤ 葉(엽) 一枝紅(일지홍)의 빗근 笛吹(덕취) 一枝紅(일지홍)의 빗근 笛吹(덕취)
- ⑥ 위 들고아 줌드러지라
  - ▶ 제 6장 : 음악(音樂) - 흥겨운 주악의 악기 소리의 아름다움 예찬

- ① 阿陽琴(아양금) 文卓笛(문탁덕) 宗武中琴(종무등금)
  - ⇒ 아양금 : 아양의 거문고
  - ⇒ 문탁덕 : 문탁의 피리
  - ⇒ 종무등금 : 종무리 중금
- ② 帶御香(더어향) 玉肌香(옥기향) 雙伽伽(쌍개야)고
  - ⇒ 더어향 : 대어향
  - ⇒ 옥기향 : 옥이향이 타는
  - ⇒ 쌍개야고 : 쌍가얏고
- ③ 金善琵琶(금선비파) 宗智稽琴(종지희금) 薛原杖鼓(설원장고)
  - ⇒ 금선비파 : 김선의 비파
  - ⇒ 종지희금 : 종지의 해금
  - ⇒ 설원장고 : 설원의 장고로
- ④ 위 過夜(과야)시 景(경) 이 었더하니잇고
  - ⇒ 위 과야시 경 : 아 ( )를 연주하며) 밤 새워 노는 모습
  - ⇒ 이 었더하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 ⑤ 葉(엽) 一枝紅(일지홍)의 빗근 笛吹(덕취) 一枝紅(일지홍)의 빗근 笛吹(덕취)
  - ⇒ 엽 일지홍의 빗근 덕취 : 일지홍이 비낀 ( ) 소리
- ⑥ 위 들고아 줌드러지라
  - ⇒ 아 들고서야 잠들고파라

- ① 蓬萊山(봉래산) 方丈山(방당산) 瀛洲三山(영주삼산)
- ② 此三山(차삼산) 紅樓閣(홍류각) 靉約仙子(작약선즈)
- ③ 綠髮額子(록박익즈) 錦繡帳裏(금슈당리) 珠簾半捲(주렴반권)
- ④ 위 登望五湖(등망오호)시 景(경) 이 었더하니잇고
- ⑤ 葉(엽) 綠楊綠竹(록양녹죽) 栽亭畔(직명반)애 綠楊綠竹(록양녹죽) 栽亭畔(직명반)애
- ⑥ 위 前黃鸞(황잉) 반갑두세라.
  - ▶ 제 7장 : 누각(樓閣) - 후원(後園)의 서경(누각, 미녀, 피고리) 예찬

- ① 蓬萊山(봉래산) 方丈山(방당산) 瀛洲三山(영주삼산)
  - ⇒ 봉래산 : 봉래산
  - ⇒ 방당산 : 방장산
  - ⇒ 영주삼산 : 영주산의 삼신
- ② 此三山(차삼산) 紅樓閣(홍류각) 靉約仙子(작약선즈)
  - ⇒ 차삼산 : 이 삼신산

- ⇒ 홍류각 : 붉은 누각에(미인의 거처)
- ⇒ 작약선즈 : 아름다운 선녀 데리고
- ③ 綠髮額子(록박익즈) 錦繡帳裏(금슈당리) 珠簾半捲(주렴반권)
  - ⇒ 록박익즈 : ( )객
  - ⇒ 금슈당리 : 비단 장막 속
  - ⇒ 주렴반권 : 주렴을 반만 걷고
- ④ 위 登望五湖(등망오호)시 景(경) 이 었더하니잇고
  - ⇒ 위 등망오호시 경 : 아 ( )에 올라 다섯 호수를 바라보는 모습
  - ⇒ 이 었더하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 ⑤ 葉(엽) 綠楊綠竹(록양녹죽) 栽亭畔(직명반)애 綠楊綠竹(록양녹죽) 栽亭畔(직명반)애
  - ⇒ 엽 록양녹죽 직명반 : 푸른 버들 푸른 대 자라는 정자둔덕에
- ⑥ 위 前黃鸞(황잉) 반갑두세라
  - ⇒ 아 지저귀는 ( ) 반갑기도 하여라

- ① 唐唐唐(당당당) 唐楸子(당추즈) 膜莢(조협) 남긔
- ② 紅(홍)실로 紅(홍)글위 玳요이다.
- ③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당소년)하
- ④ 위 내 가는 덕 늙 갈세라
- ⑤ 葉(엽)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상슈)시 길헤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상슈)시 길헤
- ⑥ 위 携手同遊(휴슈동유)시 景(경) 이 었더하니잇고.
  - ▶ 제 8장 : 추천(鞦韆) - 그네 뛰는 정경과 풍류 예찬

- ① 唐唐唐(당당당) 唐楸子(당추즈) 膜莢(조협) 남긔
  - ⇒ 당당당 : 의성어, 운율 맞춤
  - ⇒ 당추즈 : 호도 나무
  - ⇒ 조협 남긔 : 조협(쥐엄) 나무에
- ② 紅(홍)실로 紅(홍)글위 玳요이다.
  - ⇒ 홍실로 : 붉은 실로
  - ⇒ 홍글위 玳요이다 : 붉은 ( )를 매웁니다
- ③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당소년)하
  - ⇒ 당기거라, 밀거라, 정소년아!
- ④ 위 내 가는 덕 늙 갈세라
  - ⇒ 내가 가는 그곳에 남이 갈까 두려워 : ( ) 뛰는 광경
- ⑤ 葉(엽)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상슈)시 길헤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상슈)시 길헤
  - ⇒ 엽 삭옥섬섬 상슈시 길헤 : 옥을 깎은 듯 고운 두 손길
- ⑥ 위 携手同遊(휴슈동유)시 景(경) 이 었더하니잇고.
  - ⇒ 위 휴슈동유시 경 : 손 잡고 노니는 모습
  - ⇒ 이 었더하니잇고 : 그것이 어떠합니까

자기학습용

# 한산거사 「한양가」

## 1

### 작품 분석

- ①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마는  
타국 물화(物貨) 어울리니 백각전(百各廩) 장할시고
- ②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 ③ 민어 석어 석수어며 도미 준치 고등어며  
낙지 소라 오적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 생선전에서 파는 생선들 소개

- ①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마는 / 타국 물화(物貨) 어울리니 백각전(百各廩) 장할시고
  - ⇒ 소산 : 소산물 - [ ]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 물화
  - ⇒ 백각전 : 조선 시대 정부에서 관리하던 [ ]들
  - ⇒ 우리나라 소산들도 ~ 백각적 장할시고 :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 ]
- ② 칠패의 생선전
  - ⇒ 칠패 : 서소문 밖에 위치한 시장(현재 남대문 시장)
  - ⇒ 생선전 : 한양의 [ ]들 1)
- ③ 민어 석어 석수어며 도미 준치 고등어며 / 낙지 소라 오적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 ⇒ 오적어 : 오징어
  - ⇒ 민어 석어 ~ 새우 전어로다 : [ ]전에서 파는 [ ]들 열거 - 사실적, 구체적

① 도자전(刀子廩) 마로저재 금은보패 놓였구나  
용잠(龍簪) 봉잠(鳳簪) 서복잠(瑞福簪)과 간화잠(間花簪)  
창포잠(蒼蒲簪)과

- 앞뒤 비녀 민족절과 개고리 얹힌 쪽비녀며  
은가락지 옥가락지 보기 좋은 밀화지환(蜜花指環)  
금패 호박 가락지와 값 많은 순금지환
- ② 노리개 불작시면 대삼작과 소삼작과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가치 밀화불수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끈 술 푼 술 갓은 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 도자전에서 파는 패물에 대한 소개와 감탄

- ① 도자전(刀子廩) 마로저재 금은보패 놓였구나 / 용잠(龍簪) 봉잠(鳳簪) 서복잠(瑞福簪)과 간화잠(間花簪) 창포잠(蒼蒲

簪)과 / 앞뒤 비녀 민족절과 개고리 얹힌 쪽비녀며 / 은가락지 옥가락지 보기 좋은 밀화지환(蜜花指環) / 금패 호박 가락지와 값 많은 순금지환

- ⇒ 도자전 : 작은 [ ]과 [ ]을 파는 가게
- ⇒ 도자전 : 한양의 [ ]들 2)
- ⇒ 마로저재 : 마루저자, 마루에 펼쳐진 시장
- ⇒ 금은보패 : 금은보배(금, 은, 옥, 진주 따위의 매우 귀중한 물건)
- ⇒ 용잠 : 용의 머리 형상을 새기어 만든 비녀
- ⇒ 봉잠 : 봉황의 모양을 대가리에 새긴 큼직한 비녀
- ⇒ 서복잠 : 한자 ‘瑞’ 또는 ‘福’을 새겨 넣은 비녀
- ⇒ 간화잠 : 꽃을 새겨 넣은 비녀
- ⇒ 창포잠 : 창포 비녀, 창포 뿌리를 깎아 만든 비녀
- ⇒ 민족절 : 아무 모양도 새기지 않는 대나무 비녀
- ⇒ 쪽비녀 : 쪽에 사용하는 비녀
- ⇒ 밀화지환 : 보석의 일종인 호박으로 만든 [ ]
- ⇒ 금패호박 : [ ]의 하나, 빛깔이 누렇고 투명하며, 사치품으로 쓰임
- ⇒ 도자전 마로저재 ~ 값 많은 순금지환 : [ ]전에서 파는 다양한 모양의 [ ](비녀와 가락지들) - 사실적, 구체적
- ② 노리개 불작시면 대삼작과 소삼작과 /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가치 밀화불수 /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 끈 술 푼 술 갓은 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 ⇒ 대삼작, 소삼작 : 저고리의 겹고름, 안고름이나 치마 허리에 차고 다니던 노리개, 금은 보석이나 비단 등을 매듭과 함께 맺음
  - ⇒ 밀화불수 : 밀화로 부쳐 손갈이 만든, 여자의 패물, 대삼작 노리개의 하나
  - ⇒ 옥장도 : 자루와 칼집을 옥으로 만들거나 꾸민 작은 칼
  - ⇒ 대모장도 : 대모로 만든 장도, ‘대모’는 바다 거북과의 하나
  - ⇒ 술 :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 ⇒ 노리개 불작시면 ~ 변화하기 측량없다 : [ ]에서 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 ]들 나열 및 감탄

광통교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보기 좋은 ①병풍차(屏風次)의 백자도 요지연과  
곽분양 ②행락도며 강남금릉 경적도며  
한가한 ③소상팔경(瀟湘八景) 산수도 기이하다  
④다락벽 계견사호 장지문 어약용문  
⑤해학반도 십장생과 벽장문차 매죽난국  
⑤횡축(橫軸)을 불작시면 구운몽 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투화성주(投花成珠) 하는 모양

주나라 강태공이 ⑥궁팔십 노옹으로

⑦사립을 숙여 쓰고 곧은 낚시 물에 넣고  
때 오기만 기다릴 제 주문왕 착한 임금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소 와서 보는 거동

⑧한나라 상산사호(商山四皓) 갈건야복 도인 모양  
네 늙은이 바둑 둘 제 제세안민(濟世安民) 경영이라

▶ 광통교 아래 가게에서 파는 그림들에 대한 소개와 감탄

① 병풍차(屏風次)의 백자도

⇒ 병풍차 : 병풍을 꾸밀 그림이나 글씨 - 병풍용 그림

⇒ 백자도 :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

② 행락도며 강남금릉 경적도며

⇒ 행락도 : 당나라 때 곽자의[곽분양]가 자손 여든이 넘는  
사람을 한 집 안에서 함께 살게 하고 화락하게 지내는  
광경을 그린 그림

⇒ 경적도 : 농사짓는 일과 누에치고 비단 짜는 일을 그린  
풍속화

③ 소상팔경(瀟湘八景)

⇒ 중국 소수와 상수 일대의 여덟 군데의 빼어난 경치

④ 다락벽 계견사호 장지문 어약용문

⇒ 다락벽 : 다락의 벽

⇒ 계견사호 : 다락병용 그림, 닭과 개와 사자, 호랑이를 그  
린 그림

⇒ 어약용문 : 관직에 오르길 기원하는 뜻에서 그린 잉어  
그림

⑤ 해학반도 십장생과 벽장문차 매죽난국

⇒ 해학반도 :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그림

⇒ 십장생 : 축수를 뜻하는 관념적 회화로, 회갑 잔치를 장  
식하는 용도로 쓰임

⑥ 횡축(橫軸)을 불작시면 구운몽 성진이가 / 팔선녀 희롱하  
여 투화성주(投花成珠) 하는 모양

⇒ 횡축 : 가로 걸이용 그림

⇒ 횡축을 불작시면 ~ 투화성주 하는 모양 : 구운몽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 ]의 인  
상적인 장면을 [ ]을 통해 다시 감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⑥ 궁팔십

⇒ [ ]하게 사는 삶을 이르는 말

⑦ 사립

⇒ 명주실로 싸개를 해서 만든 것

⑧ 한나라 상산사호(商山四皓) 갈건야복 도인 모양 / 네 늙은  
이 바둑 둘 제 제세안민(濟世安民) 경영이라

⇒ 상산사호 : 중국 진나라 말기 상산에 숨어 살던 네 명의  
은사

⇒ 갈건야복 : 갈건과 벼옷이라는 뜻으로, 은사나 처사의  
[ ]고 [ ]한 옷차림을 뜻함

⇒ 제세안민 :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 한나라 상산사호 ~ 제세안민 경영이라 : 은둔자들의 사  
심 없는 [ ]의 유유자적한 은일의 삶을 표현한 그  
림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음

자기학습용

# 한호 「짚방석 내지 마라」

## 1

## 작품 분석

- ①짚방석 내지 마라 ②낙엽엔들 ③못 앉으라  
 ④술불 ⑤혀지 마라 어제 진 ⑥달 ⑦돌아 온다  
 아이야 ⑧박주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산촌 생활 속의 소박한 풍류, 안빈낙도

- ① 짚방석 / ① 술불 ⇨ 적  
 ↓ 법, 법
- ② 낙엽 / ② 달 ⇨ 적
- ③ 못 앉으라  
 ⇨ 앉을 수 있다 : 적인 것보다  그대로의  
 상태가 더 다 - 법
- ④ 혀지  
 ⇨ 켜지
- ⑤ 돌아 온다  
 ⇨ 적인 것보다  그대로의 상태가 더   
 다
- ⑥ 박주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박주산채 : 변변치 않은 술과 산나물 - 보잘 것 없는 술  
 과 안주  
 ⇨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한 삶의 모  
 습 -

자기학습용

# 허난설헌 「규원가」

## 1 작품 분석

엇그제 점었더니 ① 흐마 어이 다 늘거니.  
 ② 소년행락(少年行樂) 싱각흐니 닐너도 속절업다.  
 ③ 늡거야 설운 말습 흐자 흐니 목이 멘다.  
 ④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 흐야  
 이 내몸 길너낼 제 ⑤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브라도  
 ⑥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 흐더니  
 ⑦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⑧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者)를 꿈근치 맛나  
 이셔  
 당시(當時)에 ⑨ 용심(用心) 하기 살어름 드디는 듯.  
 ⑩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오 디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  
노이니  
 ⑪ 이 얼골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흐앗더  
니  
 ⑫ 연광(年光)이 홀홀 흐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 흐야  
 ⑬ 봄브롬 꺾을 몰이 뵈오리 북 디나 듯.  
 ⑭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⑮ 필소나.  
 ⑯ 스스로 참괴(慚愧) 흐니 누구를 원망(怨望) 흐라.

▶ 기 : 과거 회상과 늡음에 대한 한탄

- ① 흐마 어이  
⇒  어찌
- ② 소년행락(少年行樂) 싱각흐니 닐너도 속절업다  
⇒ 소년행락 :  시절 즐거이 놀던 일  
⇒ 닐너도 : 일러도 -  해도  
⇒ 속절업다 : 의미 없다
- ③ 늡거야 설운 말습 흐자 흐니 목이 멘다  
⇒ 설운 말습 :  운 말  
⇒ 목이 멘다 : 더 슬퍼짐
- ④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 흐야  
⇒ 부생모육 :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늘 기르시어  
⇒ 신고 : 몹시
- ⑤ 공후배필(公侯配匹)

- ⇒ (남편 감으로) 높은  아치의 짖
- ⑥ 군자호구(君子好逑)  의 좋은 짖  
⇒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큰  을 부리지 않았음
- ⑦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 삼생 : 전생 - 현생 - 후생  
⇒ 원업 : 원망스런  요  
⇒ 월하 : 월하노인 - 중매쟁이
- ⑧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者)를 꿈근치 맛나 이셔  
⇒ 장안유협 경박자 : 장안의 호탕하고  한 이  
▷ 남편에 대한  적,  적인 평가
- ⑨ 용심(用心) 하기 살어름 드디는 듯  
⇒ 용심 하기 : ( 섬기는) 마음 쓰기  
⇒ 살어름 드디는 듯 :  스러 웠다
- ⑩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오 디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 노 이 니  
⇒ 삼오이팔 : 15~16세 천연여질 : 타고난  다움  
⇒ 절노이니 : 저절로 드러나니
- ⑪ 이 얼골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흐앗더니  
⇒ 천연여질(타고난  다움)의 모습으로  을  
하였더니
- ⑫ 연광(年光)이 홀홀 흐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 흐야  
⇒ 연광 :   
⇒ 홀홀 흐고 : 빨리 지나가고  
⇒ 조물 :  (=조물(주), 조화(웅))  
⇒ 다시 : 매우 시기하여
- ⑬ 봄브롬 꺾을 몰이 뵈오리 북 디나 듯  
⇒ 봄브롬 꺾을 몰 :   
⇒ 뵈오리 : 뵈을 - 베틀의 울  
⇒ 북 : 베틀의 도구  
⇒ 봄브롬 꺾을 몰이 뵈오리 북 디나 듯 : 베틀이 빨리 움직  
이듯 시간이 빨리 지나가버림
- ⑭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 설빈화안 : 흰 살결과 꽃 같은 얼굴  
⇒ 면목가증 : 얼굴을 보면 더욱  지게  
⇒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  
고 나 : 아름다웠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내 얼굴을 보니  
더욱 미워지게 되었구나 - 이유 :  이 빨리 흘러  
가서 나이를 먹어
- ⑮ 필소나  
⇒ 필소나 : 사랑할소나  
▷ 고 외 다 : 고외다, 괴다 -  하다  
▷ 사 랑 할 수 없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법

- ⑯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 참괴 : [ ] 하니  
 ⇨ 누구를 원망하라 : 모든 이유를 [ ]의 탓으로 돌림

①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름이 나뉠  
 말가.

- 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이셔  
 ②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딴 어딴 머므논고.  
 ③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④인연(因緣)을 쫓쳐신들 상각이야 업슬소나.  
 얼굴을 못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러은.  
 ⑤열 두 썩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하다.  
 ⑥옥창(玉窓)의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딘고.  
 겨울 밤 츱고 춘 제 ⑦자취는 섯거 치고  
 녀름 날 길고 길 제 ⑧구즌 비논 므슴 일고.  
 ⑨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ㅁ을들 방의 들고 ⑩실술(蟋蟀)이 상(床)의 울 제  
 긴 한숨 디논 눈물 속결업시 ⑪험만 만타.  
 ⑫아마도 모딘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 승 : 입에 대한 원망과 애달픈 심정(사시사)

- ①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름이 나뉠말가  
 ⇨ 삼삼오오 : 때를 지어다니는  
 ⇨ 야유원에 : [ ]집에  
 ⇨ 나뉠말가 : 나타났다는 말인가  
 ② 백마금편(白馬金鞭)  
 ⇨ 흰말과 금썰치, [ ]한 차림새  
 ③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 멀고 가까움을 모르는데 소식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 소식을 알 수 없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④ 인연(因緣)을 쫓쳐신들 상각이야 업슬소나  
 ⇨ 인연이 끊어졌다고 해서 생각(사랑)이 없겠는가 : 님에  
 대한 생각(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법  
 ⑤ 열 두 썩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하다.  
 ⇨ 열 두 썩 : [ ]  
 ⇨ 설흔 날 : [ ]  
 ⇨ 지루하다 : 지루하다.  
 ⑥ 옥창(玉窓)의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딘고.  
 ⇨ 옥창 : 사창([ ]의 방)  
 ⇨ 매화 몇 번이나 피여딘고 : [ ]의 흐름 - 화자의 정  
 서 심화  
 ⑦ 자취는 섯거 치고

- ⇨ 자취는 : 발자취가 생길 정도의 눈  
 ⇨ 섯거 : 섯어 - 섯어  
 ⑧ 구즌 비논 므슴 일고  
 ⇨ 구즌 : 구즌 - 곱은  
 ▷ 표기 방식 : [ ] 적기  
 ⑨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  
 업다  
 ⇨ 삼춘화류 호시절 : 꽃 버들잎 피는 봄인 [ ] 시절에  
 ⇨ 경물이 시름업다 : 경치를 보아도 [ ] 업다  
 - [ ]이 없으면 아름다운 경치도 소용 업다  
 ⑩ 실술(蟋蟀)  
 ⇨ 귀뚜라미 - [ ], 애상  
 ⑪ 험  
 ⇨ 험 : 헤다(헤다) - [ ]하다, [ ]하다  
 ▷ 험(험) : [ ], [ ]  
 ⑫ 아마도 모딘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 [ ]받은 여인의 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

- ①도르혀 플터 헤니 이리햐야 어이햐리.  
 ②청등(靑燈)을 돌려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③벽련화(碧蓮花) 혼 곡조(曲調)를 시름조차 섯거 트니  
 ④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댛소리 섯도논 듯,  
 ⑤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논 듯.  
 ⑥옥수(玉手)의 트논 수단(手段) 넷소리 잇다마논  
 ⑦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⑧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야 구빅구빅 썩쳐세라.  
 ▶ 전 : 거문고를 타며 달래는 외로움과 한

- ① 도르혀 플터 헤니 이리햐야 어이햐리.  
 ⇨ 도르혀 : 돌이켜  
 ⇨ 플터 : 플쳐  
 ⇨ 헤니 : 헤다(헤다) - [ ]하다, [ ]하다  
 ⇨ 이리햐야 어이햐리 :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 [ ]을 차려야지  
 ② 청등(靑燈)을 돌려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 청등 : [ ]  
 ⇨ 녹기금 : 거문고 - [ ]운 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 빗기 : [ ]듬히  
 ③ 벽련화(碧蓮花) 혼 곡조(曲調)를 시름조차 섯거 트니  
 ⇨ 벽련화 : 노래의 이름 - [ ] 곡조  
 ⇨ 시름조차 섯거 트니 : [ ], [ ]을 섞어서 연주  
 하니  
 ④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댛소리 섯도논 듯

- ⇒ 소상아우 : 소상강 밤비
- ⇒ 댛소리 섯도논 듯 : (거문고의 소리가) 대나무 소리 들리듯 [ ]하고
- ⑤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논 듯
  - ⇒ 화표 : 망주석에
  - ⇒ 별학 : 이별의 학
  - ⇒ 우니논 듯 : (거문고의 소리가) 망주석에 천년 만에 돌아온 이별의 학이 우는 듯이 [ ]다
- ⑥ 옥수(玉手)의 탄논 수단(手段) 넷소리 잇다마논
  - ⇒ 옥수 : 아름다운 손 - [ ]의 손
  - ⇒ 탄논 : 연주하는
  - ⇒ 수단 : 솜씨
  - ⇒ 넷소리 잇다마논 : 옛날과 같다마논
- ⑦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흐니 뉘 귀에 들리소니
  - ⇒ 부용장 : 규방 창에 치는 발, 가리개
  - ⇒ 적막흐니 : 비어 있으니
  - ⇒ 뉘 귀에 들리소니 : 누구에 귀에 들리겠는가 - [ ]이 들었으면 좋겠다
- ⑧ 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야 구비구비 끈쳐세라.
  - ⇒ 속의 모든 창자들이 굽이굽이 끊겨 애가 탄다

- ③ 은하수(銀河水)
  - ⇒ [ ]물
- ④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티 아니거든
  - ⇒ 일년일도 : 1년에 한 번
  - ⇒ 실기티 아니거든 : 때([ ])를 [ ]지 아니하는데
- ⑤ 약수(弱水)
  - ⇒ 건널 수 없는 강 - [ ]물
- ⑥ 초로(草露)논 밍쳐잇고 모운(募雲)이 디나갈 제
  - ⇒ 초로 : 이슬 - 화자의 [ ]
  - ⇒ 모운 : 저녁 구름 - [ ]움의 심상
- ⑦ 새 소리 더욱 설다
  - ⇒ 새 : [ ]의 대상
- ⑧ 박명(薄命)흐 흥안(紅顏)이야 날 곳흐니 쯔 이실가
  - ⇒ 박명한 흥안 : 기구한 [ ]의 여자
  - ⇒ 날 곳흐니 쯔 이실가 :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 ▷ 나 같은 사람은 없다 : 질문 속에 답이 있음 : [ ]
- ⑨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흐여라
  - ⇒ 지위 : 탓
  - ⇒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흐여라 : 아마도 님의 탓으로 살 듯 말 듯 하여라
    - ▷ 님에 대한 [ ]
    - ▷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 [ ]

① 출하리 잠을 드러 썸의나 보려 흐니  
 바람의 디논 풀과 풀 속의 우논 짐승

②므스 일 원수(怨讐)로셔 잠조차 썸오논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③은하수(銀河水) 막혀서도  
 칠월칠석(七月七夕) ④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티 아니거든  
 우리님 가신 후(後)논 므슴 ⑤약수(弱水) 꺾곶관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썸쳤논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서 님 가신 뒤 바라보니  
 ⑥초로(草露)논 밍쳐잇고 모운(募雲)이 디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고덕 ⑦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世上)의 설운 사름 수(數)업다 흐려니와  
 ⑧박명(薄命)흐 흥안(紅顏)이야 날 곳흐니 쯔 이실가.  
 ⑨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흐여라.

▶ 결 : 임에 대한 원망과 기구한 운명 한탄

- ① 출하리 잠을 드러 썸의나 보려 흐니
  - ⇒ 출하리 : 차라리
  - ⇒ 썸 : 님을 [ ]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매개체, 소망 [ ] 성취의 매개체
- ② 므스 일 원수(怨讐)로셔 잠조차 썸오논다.
  - ⇒ (바람에 지는 나뭇잎과 풀 속에서 우는 짐승들이) 나와 무슨 일로 원수를 저서 나의 잠을 깨우는가



자기학습용

# 호석균 「꿈에나 님을 보려」

## 1

## 작품 분석

①꿈에나 ②님을 보려 잠 이룰까 누웠더니  
 새벽달 지새도록 ③자규성을 어이하리  
 두어라 ④단장춘심(斷腸春心)은 ⑤너나 나나 다르리  
 ▶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 ① 꿈  
 ⇨ 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
- ② 님을 보려  
 ⇨ 화자의 상황 : 한 상황
- ③ 자규성  
 ⇨ 잠을 이루어 님을 만나는 것을 하는 소재  
   : 이입
- ⇨ 두견새의 울음 소리 : 적 심상
- ④ 단장춘심(斷腸春心)  
 ⇨ 애끓는 , 간절한 그리움
- ⑤ 너나 나나 다르리  
 ⇨ 너 :  - 법
- ⇨ 나 : 화자
- ⇨ 다르리 : 다르겠는가 - 다르지 않다(법)

자기학습용

# 황진이 「어저 내 일이야」

## 1

## 작품 분석

- ①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던가
- ②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퓌야
- ③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①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던가
  - ⇒ 어저 : 감탄사 - [ ]와 [ ]의 정서
  - ⇒ 내 일이야 : 내가 한 일이야
  - ⇒ 그릴 줄을 : [ ]위할 줄을
  - ⇒ 모로던가 : 몰랐던가
- ②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퓌야
  - ⇒ 이시라 흐더면 : 있으라고 붙들었더라면, [ ]의 표  
현
  - ⇒ 가라마는 : 갔겠냐마는
  - ⇒ 제 구퓌야
    - ▷ [ ]법 - [ ]이 굳이 감
    - ▷ [ ]결침 - [ ]가 굳이 보냄
- ③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 [ ]심과 [ ]사이의 갈등